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시

대상 | 국수와 어머니(이현숙 · 미국)

우수상 | 아버지와 호박잎(김희정 · 일본)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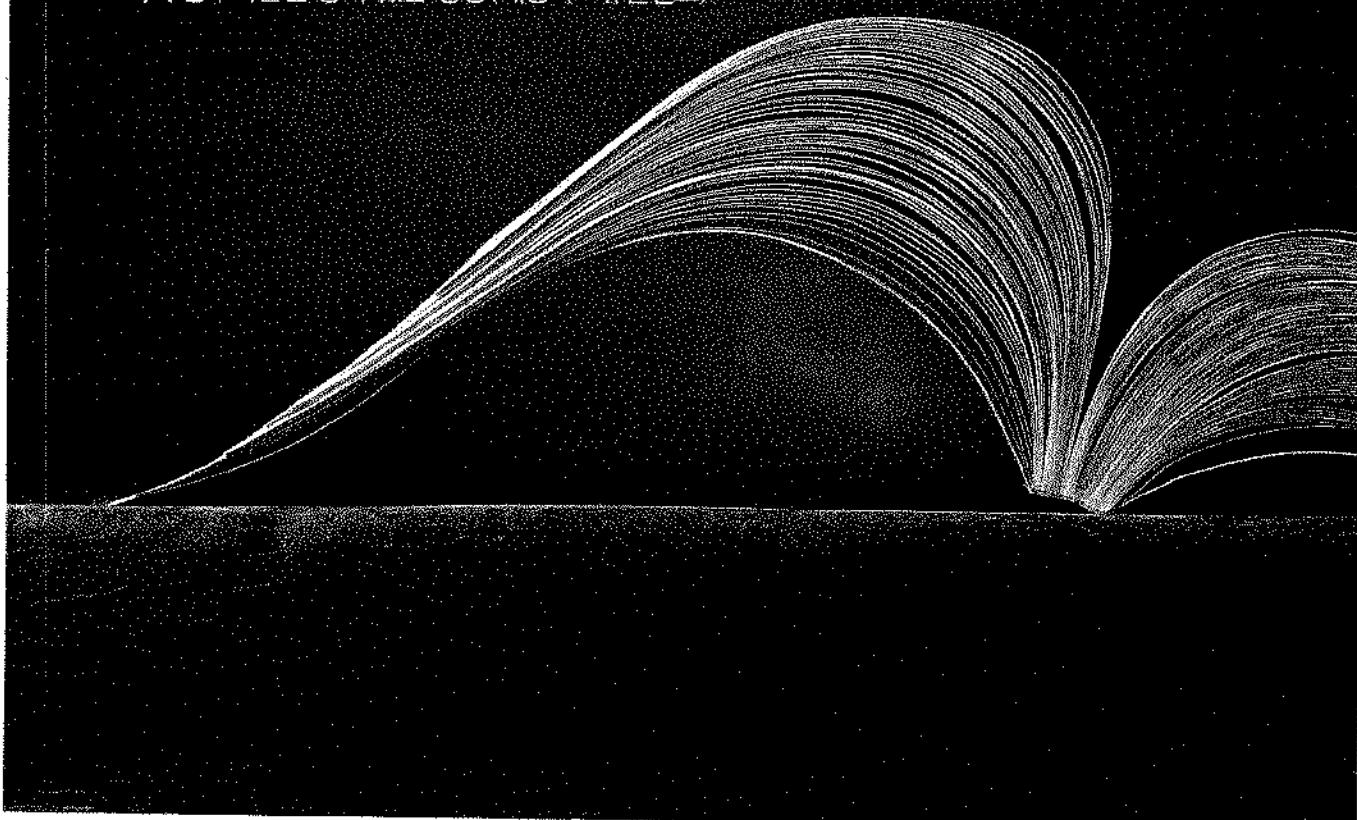
대상 | 맨섬의 고양이(장효영 · 미국)

우수상 | 딸의 남편(임은열 · 뉴질랜드)

수필

대상 | 설(박옥영 · 중국)

우수상 | 마들렌 빵이 있는 풍경(배경옥 · 뉴질랜드)



재외동포 문학의 장

재외동포와 고국을 잊는 가교 — 재외동포재단

우리 재외동포재단은 조국을 향한 전 세계 670만 재외동포의 애틋한 가슴을 채워 주기 위하여 1997년 10월 30일 특별법인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외동포와 고국을 이어 주는 가교로서 우리 재단은 교류, 교육, 문화, 경제, 정보화 사업 등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세계 속의 자랑스런 한민족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TEL : 82-2-3463-6500 <http://www.korean.net>

재외동포문학의 창은

재외동포들의 문학을 향한 열정의 마당이며,

한민족 공동체의 꿈을 마음껏 펼칠 문학의 한마당입니다.

심사평

수필부문 심사위원 : 유혜자 · 오정희 · 장철문

심사는 먼저 세 심사위원이 사전에 총 17개국 113명이 응모한 277편을 나누어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26명의 29편이었다.

심사 초반에 수상이 거론될 만한 작품으로 제출된 것은 박옥영, 배경옥, 박영보의 각 2~3편, 박계옥, 김윤선, 진경자, 신영철, 나남철, 김선진의 각 1편이었다. 그 중 '대상'에 거론된 작품은 박옥영 「설」, 배경옥 「마들렌 빵이 있는 풍경」, 박영보 「감나무 잎새」, 박계옥 「찰떡의 미학」 4편이었다.

「설」과 「찰떡의 미학」은 삶의 곡진함과 더불어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세목과 심성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마들렌 빵이 있는 풍경」은 절제와 세련을 갖춘 문장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는 미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감나무 잎새」를 비롯한 박영보의 작품들은 고른 성취도와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적 자유가 삶 그 자체를 돌아보는 데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초반에 「설」이 대상 후보로 유력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문학적 성취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진정성과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곡진함은 있으나 「마들렌 빵이 있는 풍경」, 박영보의 일련의 작품들, 김윤선의 「금선어」에 비하여 문학적 세련미와 현재적 일상을 돌아보는 미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문학적 장치나 세련이 그 문학적 함의를 넓히거나 깊게 하고, 독자의 환기력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그 진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마들렌 빵이 있는 풍경」과, 특히 「금선어」는 그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박영보의 작품들은 나름의 고른 성취를 보이긴 하되 ‘대상’으로 밀 만한 탁발한 작품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찰떡의 미학」은 주제와 소재 면에서 「설」과 겹치면서 나름의 세련미를 가졌으나 분명한 자기 개성을 갖지 못했다.

결국 대상은 「설」에 돌아갔다. 박옥영의 또 다른 작품 「만들레」가 뒤를 밀어준 바도 없지 않다. 심사위원들은 배경옥, 박영보, 박계옥의 작품을 우수상에 나란히 함께 두지 못한 것이 아쉽다.

끝으로 진경자 「아버지의 녹슨 자전거」, 신영철 「동백꽃」, 나남철 「나의 또 하나의 어머니 — 에델트라움」, 김선진 「검은 천사」에 대하여 구성적 압축, 문장의 절제에 대한 아쉬움을 밝혀둔다.

물론 이것은 다른 수상작들이나 응모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구성과 문장, 감성에 있어서의 절제와 압축은 힘겨운 글쓰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문학적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돌아보는 응시력의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

시부문

『심금을 아파해』

『나는 나의 삶의 흔적입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 달에 두어 번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식품점을 간다

마른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물건을 고르신다

허기져 보이는 어머니의 하얀 등이 안쓰러워

들어선 국숫집

긴 국숫발만큼이나 면 길을 달려온 어머니와

마주 앉는다

국숫발만큼 긴 것이 목숨이라며

국수그릇을 앞에 놓고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는 어머니

면발같이 굽어진 주름 가득한 입으로

뜨거운 국수를 드신다

맥없이 젓가락에 걸리는 국수, 한 그릇 비우기도 어려우신지

자꾸 내게 국수를 던다

자꾸 내게 당신의 뒷을 건넨다

어머니의 생이 담겨 와 나의 그릇은 비워지지 않고

*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식품 전문 판매점

그 땀방울이 마르는 데는 여러 백년이 더 있어야 했다.

그 뒤로 나는 늘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뻗쳐오르는 찔레꽃 이파리에서
옛이야기의 어느 한 귀퉁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촌 아낙의 얼
굴에서
불전 주위에 떠도는 신비스런 기운에서

이제 나는 안다
내가 가보지 않은 많은 곳에서 나를 만날 것을
내 몸속에서 무수한 내가 나를 보고 있음을
이제 그 무엇도 나와 둘이 아님을
내가 나의 육신을 먹고 살고 있음을
나와 그대가 모두 스쳐가는 바람인 것을
그 바람조차도 바람인 것을.

아아 그래도 또 한번, 나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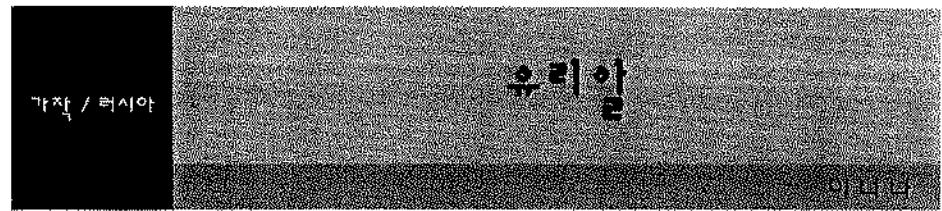
가슴 아리도록
쓸쓸한 날이면
김치를 담가요

눈물 염전에서 긁어모은 소금 뿌려
시퍼런 그리움을 한나절 잠 재우고
늙은 엄마가 따서 말려 뺑아 보내준
모정만큼 붉은 고춧가루 물에 개어
한 십 년 절여 푹 삐한 설움 액젓
독한 마늘 맛 오기도 넉넉히 넣고
잘 섞여 살자는 다짐으로 버무려요
꿈의 빈 통에 꾹꾹 눌러 가득 담으며
저절로 익을 날을 기다리자 약속해요

참 이상하죠
강산이 변하는 세월 흘러도
허기진 내 속을 채워주는 건

따뜻한 밥과 김치 한 보시기
스테이크 피자 햄버거엔 없는
그 무엇이 김치 속에만 있죠
때론 든든한 힘이 되고
때론 절절한 한이 되는
그리운 고향이 그 속에 있죠
못 잊을 얼굴이 그 속에 있죠

낯선 땅 고된 삶이
기습 허한 날이면
꽃 대신 배추를 사요
급한 시름 밀어놓고
매운 울음 삼켜가며
또 김치를 담가요



햇빛이 찬연합니다.

방금 얼굴과 손목에 선팬을 끌냈지요
알타¹⁾의 뜨거운 5월의 향기가 생각났습니다.
좁은 등성이를 따라 갑아오르듯 둘 바닥을
오르면, 자그마한 낮은 쪽문이 있는,
A. 체호프²⁾의 집에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라 문의 입구에서
아래, 문학관으로 나려가는 이끼 낀 계단과,
정원을 끼고 있는 ‘안톤’의 안경 너머에는
바람만 일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며 해변을 거닐며
고뇌와 화해와 현실을
함께했던 거리,

1) 알타 : 크림반도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지

2) A. 체호프(1860-1904) : 남 러시아 아조프해안 파간로그 출생 현안(한문)의 작가
39세때 폐병이 악화되어 ‘개를 동반한 부인’을 쓰며 알타에서 요양함.

어쩐지 홍도의 골목과 조금은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골목을 지나
'세르메체보 드바'³⁾를 지나
인천 공항 진달래 향기를 맡을 때는
목력인 날으로 있었으니까요

하늘 아래 꽃구름이 만발하였습니다.

오른쪽 경사진 비탈길을 오르자
언덕 위 작은 교회당 뜰에는
언제부턴가,
흙빛 손등이 물결치고 있어……

3) 세르메체보 드바 : 모스크바 제2국제공항

안과 밖의 화합은
훨히 내다 보이는 숨결
하나,

어쩐지 흑해의 해풍과 조금은 닮았다, 하는……
미완성이었습니다.



노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어.
머리채를 휘어감고 달려든 여자는
이것도 다 꿈이라고 말했어.

꿈이 너무 깊어.

짐작처럼 내 등에 붙어 있지 마.
고양이 새끼처럼 암전히
기다리지도 마.
허깨비 등등 떠다니는 저녁에
너희들을 팽개치고 돌아가고 싶어져.

크리스탈 호텔 정문 새까만 리무진 속에
얼른얼른 부화하는 나방들이 살았어.
몇 개는 날아가고 몇 개는 그저 살아 있고
몇 개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지.

네 운명을 너무 탓하지는 마.

일이 없는 날은 뒷산에 올라가
구멍을 파고 드러누웠어.
생은 낡은 짐짝 가득 안고
딸랑 딸랑 부푼 소리로 지나다녔지.

중소리를 들으면 등이 휘어 내 등에
피아노를 얹은 듯이 무거운 시간이
어서어서 지나가 이 깊은 꿈이
목줄기 같은 물을 타고 밤새 올라가
어딘가 적당한 모래가 있을까.
꿈을 꾸어도 마른 가시 발라내는
실픱줄 도드라진 실한 알 몇 개쯤
너희들을 위해 남겨줄 수 있을까.

부석부석 돌아누운 꿈속에선지
낡은 라디오 한번쯤 새 뜨는 소리.
나는 생각했지.
아무튼 너희를 버릴 수는 없을 꼴야.
방안에 틀어박혀 울고 있을 너희들.
그러니 언제나 잠이 깊은 너희들.

너희는 새도록 가위눌리렴.

이른 아침 종 울리며
나는 버스를 탈게.

소설부문

1. 소설의 고양이

2. 나를 위한 노래

3. 그녀를 위한 노래

4. 그녀를

이십 년이 넘은 집치고는 멀쩡했다. 물론 이 지역에는 백 년이
다 된 집들도 많지만 말이다

‘메도우 글렌 타운 하우스(Meadow Glen Town House)’라 불리는
단지 안에는 일흔일곱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상하리 만큼 인적이
드물었다. 절반의 가구는 타운의 입구로 시작해서 작은 마을을 이
루고 있고, 나머지 가구는 수십여 미터의 그린벨트를 지나서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뒷마당인 그린벨트는, 가문비나무를 주로 해
서 플라타너스, 포플러나무 등의 고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그 주변은 아이비 덩굴로 잘 정돈돼 있어서, 산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도 했다.

잠깐, 실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린다. 내 생각에는 옆집의
D같다. 그래도 이곳에서 인적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유일
한 이웃이다.

시간이 오 분 정도 지났나, 그녀는 나의 안부를 묻고 갔다. 전
기가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아니, 그녀의 이웃이 추위
와 어둠 속에 방치되어야 하므로 걱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D는 나에게 좋은 이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한다. 아니 거의
안달에 가깝다. 그녀는 고양이 세 마리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내
가 유난히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녀를 자독
하게 피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안개와 함께 타운에 스며들었다.

바다와 근접해 있는 이 도시는 날씨 변화도 심하고 일교차도 크다. 그 때문인지 유난히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그날도 늦은 아침 무렵까지 타운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었다.

쿠르릉, 시동을 켜는 차들의 소음도 현관 바로 앞의 원형의 가로등도 안개의 입 속으로 목이 달아나서는, 흐렷한 불빛으로 자신의 위치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타운은 무겁고 깊은 안개의 해저에서 그냥 그대로, 견뎌질 수 없는 거대한 잠수함이 돼버리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안개에 빠졌던 날은 따스했다.

주차장에 즐비하던 차들이 일터로 다 빠져 나간 봄날, 오후 한 시의 타운은 햇살만이 존재하는 듯 보였다. 잔디와 숲과 지붕들 그리고 나의 발자국소리, 귓불을 스치는 바람의 솜털마저도 태양이 직조한 광섬유 보자기에 덮여 버렸기 때문이다.

눈만 감으면 어디서든 단잠에 빠져들 것 같았다.

나는 일을 할 만큼 건강하지가 못했다. 그나마 타고 다니던 차도 이사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차시켰기 때문에 꼼짝없이 타운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다. 이 드넓은 대륙에서 차가 없다는 것은 핸디캡이나 다름없었다. 대중교통은 변화한 다운타운에서나 이용할 만하지, 이런 변두리에서 버스를 타는 것은 선불리 시도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이 또한 관심거리는 될 것이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나도 모를 웃음이 꺽, 새나왔다.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뭉개진 짐승들의 시체를 흔하게 보곤 했었다. 동네 길목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더지나 야생고양이, 까마귀, 때론 종류를 알 수 없는 것 등. 하지만 그만큼 나무도 우거지고 공원이나 호수 같은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일은 그런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분명히 고의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었다. 문제는 누가, 왜?

유난히 고양이를 아끼는 이곳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타운은 나의 예상을 벗어나 여전히 침묵에 싸여 있었다.

졸음이 쏟아지는 순간이 많아지고 어떤 날은 초여름 같기도 했다. 그리고 비의 왕국답게, 시도 때도 없이 소나기가 퍼붓다가 개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또한 안개는 한층 두껍고 짙게 타운을 잠식했다. 타운에서는 별씨 고양이가 세 마리째 같은 형태의 주검으로 실려나갔다.

나는 그럴 때마다 목격자로서, D와 경관의 달갑지 않은 방문을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의심은 노골적이었다.

나는 한동안 산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양이 한 마리를 잃은 D는 사건해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소금 무덤

어이 이방인, 여기서 뭐하나? 귓전에 파고드는 짐승의 커다란 울림과 함께 날카로운 이빨에 덥석 물리려는 칠나, 요란한 차임 벨 때문에 퍼뜩 잠에서 깼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내 룸메이트 아니면 D밖에는 없을 터. 룸메이트는 늦은 저녁에나 들어올 테니까 D일 것이다.

그녀는 산호 빛의 눈동자를 빛내며 나에게 불쑥 도움을 요청했다. 키는 내 어깨까지 닿고 마른 듯하나 다부진 몸매다. 요즘 들어 벽 너머로 누구와 다투는 소리가 잦더니, 결국 일이 터진 모양이었다. 얼마 전부터 열세 살이나 연하인 남자친구가 룸메이트로 들어왔는데 마약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서 나날을 보낸다고 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을 해서 먹고산다고, 좋은 머리를 가졌는데 안타깝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다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랐다. 때론 포기하는 것도 미덕이리라.

여하튼 나 같은 이방인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 나쁘지는 않았다. 그것도 요즘처럼 의심만 받는 상황에서니 말이다.

어떻게 도와줄까? 물었더니, 싸우는 소리가 커지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위험을 느낀다고 말하는 D의 눈가가 잠시 젖어 보였다.

날더러 또 경관과 대면하라고? 고양이로도 모자라서 이번엔 약장이 사내 때문에!

억지로나마 그러겠다는 나의 대답을 듣고서야 돌아가는 D의 발
꿈치께로 민달팽이 한 마리가 용케 비껴가고 있었다.

반질거리는 민달팽이의 점액이 그녀의 담장 아래로부터 내 집
의 입구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꽤 큰놈이었다. 저대로 놔두면 집
앞 화초의 새싹을 다 먹어 차울 게 분명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
십 개의 알을 낳고 또 그것들이 자라서는 꿈틀거리는 왕국을 건설
할 게 또한 분명하다. 싹부터 잘라야지.

나는 부엌에 두었던 커다란 유리병에서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
고 나와서 민달팽이 위에 들판 쌓았다. 곧 투명한 거품이 일면서
달팽이는 부글부글 녹아 내렸다.

하지만 자국은 끈적이는 얼룩으로 남아서, 여기저기에 동전만한
다른 무덤들과 함께 길 위에 무늬를 이뤘다.

나무로 만들어진 벽 너머에서 끊임없는 웅성거림이 들렸고 나
는 다시 견딜 수 없이 산책을 하고 싶어졌다.

4

토박이인 D가 그 동안에 아무런 턱새도 없이 나에게 친절과 관
심을 보였던 것은 아마도 이런 사태에 대비했기 때문이었나 보다.

자신의 차에 나를 태우고 시장을 볼 수 있게 배려해준다거나,
필요한 공구를 흔쾌히 빌려준다거나, 이방인의 음식에 대해서 지
대한 호기심을 나타낸다거나 뭐 그런 일련의 일 따위들이.

내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그녀가 눈치챈 후에는 나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기는 했었다. 그건 그녀의 고양이가 시도 때도 없이 내 주변에 출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다.

잿빛의 긴 털을 자랑하듯 어슬렁거리는 그녀의 고양이는 벽구름과 닮았다.

해서 나는 그 페르시안의 풍실뭉실한 꼬리털만 봐도 비 맞은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져 오는 것이었다.

털은 손질해준 지가 오래되었는지 여기저기 엉켜 있고 지나치게 비만해 보였다.

내 현관 앞에다가 녀석이 오줌을 갈기는 모습을 본 뒤부터, 나는 거의 신경증에 가깝게 물청소를 해대며 짜증을 부렸었다.

여기는 네 영역이 아니야!

고양이의 순찰은 내가 녀석의 이웃으로 사는 한 계속 될 것이다. 또한 나를 보면 친한 척 그 간지럽고 불길한 터력을 나에게 문지르며 말할 것이다. 어이 이방인, 여기서 뭐해?

내가 고양이를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단지 짐작 하건대 유년시절, 집 마당에서 도둑고양이가 쥐를 공격하는 걸 본 뒤부터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 광경은 티브이 속 ‘톱과 제리’에서 보았던 빌랄하고 유쾌한 싸움과는 거리가 훨씬 먼 것이었다. 나는 쥐의 사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찌되었건, 나를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보는 그 눈빛은 분명히 싫었다.

아이비 뎅굴처럼 속을 알 수 없는 D의 부탁은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나를 자신의 고양이 살해자로 의심할 때는 언제고, 너밖에 는 없다는 표정으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녀의 룸메이트가 들어온 시점과 고양이들이 죽어 나간 시기가 얼추 들어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심증뿐이었다. 그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 타운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어느 순간에 조용하던 타운의 적막을 깨고 밤이고 낮이고 떠들어 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뿐이었다. D는 길 잃은 야생고양이 한 마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셈이었다.

틀리는 날이 더 많지만, 일기예보에 며칠 동안 비가 내린다고 하고 나는 잠깐 단잠을 잤으니 겉기로 했다. 이러다가는 운동부족으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나는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다가 문득, 소금이 떠올랐다.

손바닥만한 비닐주머니에 굵은 소금을 한 가득 눈덩이처럼 눌러서 주머니에 넣었다.

5

오월이 막바지에 접어들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두 달여 동안에 집안에만 갇혀 지내야 한다.

꽃가루는 눈 폭풍이라도 되려는 듯이 살인적으로 날린다. 숲과 함께 사는 게 이때만큼은 곤혹스럽다.

주머니에 든 소금을 뿌드득 뿌드득 거리며 공룡머리바위를 향해 걸었다.

나는 타운의 중간쯤에 있는 바위를 그렇게 이름 지었다. 모양새가 영락없이 공룡머리였다. 그리고 바위가 있는 지점이 내가 산책을 하면서 잠시 쉬어 가는 반환점이기도 했다.

얼마 걷지 않았는데 숨이 턱까지 차 올랐다. 벌써 몸의 균형이 깨졌다, 잠시 길가에서 엉거주춤 쉬고 있는데 습한 바람이 밀려왔다. 내가 사물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렇게 바람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때이다.

일단 대상을 정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그것이 바위덩어리라 해도 흐늘거리면서 입을 벌리기 시작한다. 이건 마술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이렇게 고요한 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뿐.

마음을 정했으니, 누군가 나를 보기 전에 어서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나는 고양이가 죽었던 자리마다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내가 더 이상 의심받지 않기를 바라며, 세상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죽음 때문에 내 생활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며, 나도 그와 같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건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닷물이라도 펴다가 이 상황들을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만큼 타운 안에서만의 생활은 고립된 것이었고 시간이 흐를

~~수록~~ 엄청난 스트레스로 쌓여가고 있었다.

생각이 자꾸 생각을 낳아서 머리가 점점 무거워져 갔다. 이러다 가는 나도 너처럼 될 것 같다. 나는 공룡머리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다시 걸었다.

머리가 붉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날아가고, 먹구름이 천장널처럼 군데군데 하늘을 낮게 밟치고 있었다.

이젠 마음도 좀 흘가분해졌고, D의 상황도 궁금해져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멀리 타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당혹스러운 그 소리를 외면하려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사이렌 소리는 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 귀가 잠시 명해진 사이에 혀방을 디뎠는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동시에 쥐고 있던 소금주머니가 길바닥으로 터져버렸다.

불빛을 번뜩거리며 지나치는 차창으로 경관과 나의 눈이 마주쳤다. 눈빛은 마치 웬 소금? 이라고 묻는 듯했다. 난감해졌다.

나는 쏟아져 내린 소금 위에서 민달팽이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달래고 있었다. 무덤이 따로 없었다.

⑥

우연

걷는 것조차도 이토록 신경 쓰이는 일이었나, 도대체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

건지, 난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 D는…… 소금은…… 고양이는…… 제기랄.

결국 D의 룸메이트는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 그는 D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몸싸움까지 걸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나는, 도움을 청한 이웃을 외면한 몹쓸 사람이 되고 말았다.

소금에 대한 경관의 질문에까지 대답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보다는, 알게 모르게 저변에 깔리는 어떤 차별을 느끼는 게 더욱 짜증스러웠다. 그것들은 늘 앙금처럼 남았지만 심증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어슬렁거리며 햇살이나 즐기는 집 고양이로 보였거나, 길바닥에 소금을 뿌려대는 이상한 짓을 하는 이방인으로밖에는 안 보였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보는 게 분명했다.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쓸 새 없이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을 것일진대.

나의 삶은 유유자적한 게 아니라 치열한 생존이거늘,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

나는 일주일이 넘게 몸살을 앓았다. 고양이들이 눈사람만한 텔 풍치가 되어서 숲에 버려지는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

창 밖에서는 어느새 꽃가루가 날리고 있었고, 솜털들이 바람을

타면서 영역을 넓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또한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젖은 스펀지 같았다.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데, 타운에서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타운 내부의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곤 하는데 나는 번번이 참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에 대한 의심을 풀고 싶었다. 그 방법은 모임에 나가는 것뿐이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는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 아, 이제 나에게는 문장의 꼬리마저 잘라먹는 버릇이 생겼나, 이러다가는 나조차도 내가 범인인지 아닌지 헷갈리겠군.

7

타운 입구에서 십여 미터쯤 떨어져 있는 오피스로 사람들이 한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서, 나는 낯가림이 심한 아이처럼 멀뚱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저만치서 나의 룸메이트와 D가, 언제 만났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찾았다는 표정으로 반갑게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하지만 D는 나의 시선을 피하면서 자신의 얘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떠났고, 그에게는 앞으로 오년 동안 자기의

주변에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이었던 하바나 브라운(Havana brown)이 이를 전에 죽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동시에, 주민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나를 할퀴고 가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삼십여 분의 시간이 흘렀다. 타운의 사건은 중대사안이니 만큼 잠시 뒤로 미루고, 타운 내의 관리비에 대한 얘기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이며 소음 때문에 16호와 17호의 언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그리고 드디어 타운의 대표가 사건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하자, 흥분하면 주민들도 금세 수그러들었다. 사방이 갑자기 적막해졌다.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한 공간에 스산한 안개가 밀려와서 뿐옇게 시야를 가리는 듯했다.

어제까지 열세 마리의 고양이가 죽어나갔다고 했다. 순간 나는 당혹스러웠다.

내가 집안에만 있었던 날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사건이 벌써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니,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추측은 분분했다. 하지만 결론은 누군가 정신병자가 살고 있고 돌림병에 걸린 고양이들을 고의로 살해했을 거라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돌림병에 대한 얘기는 D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 고양이들이 고리가 잘려서 죽은 것만은 아니며 동물병원에서의 부검결과로는

죽은 고양이들이 모두 톡소플라즈마증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질병은 톡소플라즈마라는 원충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수의사가 고양이들에게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원충을 발견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쉽게 감염되지 않는 이 질병이 어떻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돌립병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 성질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조가비처럼 입을 벌리고 D의 말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고양이 사건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해결했어야 옳았다면 분개하는 목소리로 이어져갔다. 문제는 범인이 어떻게 병증을 알았느냐는 것이었다.

모임은 결국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고, 나 또한 누명을 벗어 던지기는커녕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 감사해야 했다.

어찌 보면 나 또한 피해자인데 왜 이런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에 속이 메스껍고 숨이 차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한 점의 빛도 유영할 수 없는 바다의 무광층에 사는 귀신고기가 나타났다.

이빨이 너무 길고 커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는 그 물고기는 이승의 생명체로 보이지 않았다. 귀신고기는 그 큰 입으로 어둠을 삼키면서 나에게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숨이 차 올랐다. 발버둥칠수록 심해로 무겁게 가라앉고 있

었다. 겨우 숨을 고르며 어둠 밖으로 빠져 나왔다. 아니, 꿈 밖으로 한숨을 깊게 들이켜보고는 시계를 보니 자정이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마당에서

뭔가가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8

창 밖을 내려다보니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걷다가 떨어졌는지, 다시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었다. 등나무에 무성한 잎들이 파르르 몸서리를 치면서 꽃가루를 털어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밖까지만 나가보기로 했다.

낮에 내린 꽃가루 때문에 길은 얇은 솜이불을 덮고 있는 듯했다. 다행히 밤에는 그 폭설이 멎춰 있었다.

달빛을 보면서 깊게 숨을 고르고 있는데 다른 집들의 담장을 타고서 몇 마리의 고양이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조금만 걷자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이 시간이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타운의 숲 주변에 모여 있었다. 아마도 타운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 같았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공룡머리 바위

에 올라가 있던 눈부시게 흰털을 가진 고양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 듯했다. 나는 살금살금 그들의 모임에 끼여들었다.

이때만큼 나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한들 알아들을 리는 만무했다. 침병, 순간 내가 그만 물 속으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모임만 망쳐놓고 말았다. 놀란 고양이들이 득달같이 사라져 버리자 달빛 아래에 남은 건, 숲 속에 빈 밥그릇처럼 떠 있는 내 그림자뿐이었다.

나는 숲 속에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었다. 숲 바닥은 습지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로만 맴돌았었고, 가끔 야생 오리 한 쌍이 물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었다. 이런 야심한 밤에 괜한 짓을 해서 발만 젖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 다시 숲 밖으로 밟길을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푸른빛의 물결 위로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텔 없는 고양이 같았다.

눈은 킁하고 거죽은 창백했다. 앗, 나는 놀란 가슴으로 잠시 움츠러들었다가 정말 고양이라도 된 듯이 습지 밖으로 경충 뛰어 올랐다.

잠이 텔 깨었거나 어둠 때문일 거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내 발등을 해초처럼 감싸고 있는 어떤 것이 느껴졌다. 축축하고 약간 묵직한 어떤 것, 기분을 아주 바닥까지 내려앉게 하는 어떤 것, 그건 다름 아닌 실종되었던 꼬리였다.

독백

눈 폭풍이 좀 잡잡해진 듯하다. 전기를 다시 쓸 수 있을 때까지 벽난로에 장작을 펼 수 있어야 하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숲의 나무들도 온통 얼어붙어서는 가지들마다 거대한 고드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물결이 잔잔하던 습지 또한 지난 봄날을 접어둔 채로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다.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나는 이제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D.

타운의 정원사는 일년에 한두 번씩 숲의 잔가지를 쳐주는데, 한 여름에 비가 멈추고 한창 땅볕이 기승을 부릴 때 습지가 마르는 틈을 타서 일을 한다.

그런 그가 사라졌던 고양이 꼬리들을 D의 뒷마당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사실 그녀가 무표정하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할 때부터 기분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머나먼 이국인 이곳, 자신의 영역에서 살게 된 이유를 묻곤 했었다. 그 물음의 저변에는 민달팽이의 점액 같은 혐오감이 묻어났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목구멍 깊숙이에서 미처 꺼내지 못하고 감추는 질문의 꼬리를 눈치채곤 했었다. 어이, 이방

인 여기서 뭐하시나?

하지만 타운의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나의 꼬리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내게는 애초에 밟힐 만한 일 따위는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난 그저 그날 밤에 내 발목을 불들었던 것들을 그녀의 숲으로 모두 던져버렸을 뿐이다.

그녀는 이제 내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일로 이 계율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웅크리고 있던 앞발을 나른하게 펼쳐본다.

1

쿠키 담은 접시와 차 한잔을 손님에게 내밀자 6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은 “Thank you.” 하며 온 얼굴에 웃음을 보이며 인사한다.

정신을 놓고 무의식적으로 접시를 내밀던 형숙도 아차 하는 생각에 “Have a nice day.” 하며 함빡 웃어 보였다.

자기 돈 내고 먹으면서도 늘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곳 노인네들, 노후복지 탓일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인다.

말쑥하게 차려 입은 이곳 노인네들, 한가한 시간이면 차 한잔 시켜놓고 친구와 남편이랑 도란거리며 마주 앉아 있길 좋아한다. 때때로 쿠키 한 조각, 차 한잔에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며 쿠키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가끔씩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쿠키점의 일터가 형숙은 좋았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게 아니었다. 큰딸 지수 생각만 나면 일하던 중간 중간 손길이 멈춰지고 할일을 잊어버리곤 했다.

피크타임이 지나자 머리를 좀 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숙은 아르바이트생 정아를 부르기 위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학 졸업반인 둘째 딸아이 지영이보다 나이가 몇 살 적은 정아는 올리브색 티셔츠와 허리에 걸리는 듯한 검은 빛이 도는 윤기 나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정아가 손님이 비운 자리에서 빈 찻잔과 접시를 들어올리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마다 허리의 맨살이 말갛게 드러났다. 다시 일어서서 그것들을 들고 이쪽을 향해 걸어오자 정아의 배꼽이 살짝 살짝 보였다.

평소 형숙은 정아의 발랄하고 밝은 모습에서 젊음을 느끼곤 했다. 노골적인 노출보다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노출의 아름다움은 젊으니까 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늘 상쾌해 보였던 그 모습마저도 팬히 짜증이 났다.

“애, 정아야, 너 앞치마 입어라. 그게 뭐니, 손님 앞에 허리, 배꼽 다 내놓고…….”

“…….”

“그리고 오븐에 넣어놓은 쿠키 좀 봐주고.”

“네, 아줌마.”

의아해하는 듯 쳐다보다 아무 감정도 들어 있지 않은 평소의 밝은 톤으로 정아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형숙은 하지 않아도 될 말들 속에 자신의 기분을 드러낸 것 같아 주스 병을 들어 소리나게 유리컵에 따랐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지수가 마혜시와 결혼을…… 지수가…… 남편에게 어떻게 얘길 해야 하나.’

‘남편이 지수 애길 들으면 무어라 할 것인가.’
형숙은 눈시울이 붉어음을 느꼈다.
‘말려야지, 결혼은 무슨 결혼. 아무래도 지수가 생각을 잘못 한 거야’

주스를 들고 와서 빈 테이블에 앉자 형숙은 한숨이 나왔다.
지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쇼핑 몰 안 이곳 저곳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보았다. 쿠키점에서 바라보면 몇 개의 음식 코너와 즐비한 옷가게들이 보인다. 쿠키점을 돌아서면 또 다른 수십 개의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러다 보니 쿠키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많다.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이곳 오클랜드는 한겨울인 칠월이라 하지만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별로 춥지가 않다. 그래서인지 이 계절에도 짧은 팔에 짧은 반바지나, 가슴패인 웃옷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통 부츠를 신은 아가씨가 있는가 하면 오리털 피카에 맨발인 사람도 보인다.

아무렇게나 입어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겨울.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신고 싶은 대로 신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 모습들로 보인다. 또한 없는 인종 없이 다 모여 인종전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이 민 2세 아이가 십 년 만에 한국에 놀러 가서 엄마에게 전화하며 ‘엄마. 여기 한국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밖에 안 사는 이상한 나라야.’라고 했다나. 형숙은 그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원주민 마오리에, 유러피안, 남태평양계, 인도계, 아랍계, 아시

안, 아프리카인. 과연 역사가 오래지 않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하루종일 보고 있어도 사람 구경에 지겹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 구경에 잠시나마 넋을 빼고 있던 형숙이 등뒤에서 들려온 남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여보, 왜 그래? 하루종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 푹 쉬지 그래.”

“볼 일 끝났어요? 정말 그래야겠어요. 그럼 이것저것 정리하고 뒷시간 바쁘지 않으니까 정아에게 맡기고 오늘은 일찍 나가기로 해요. 당신에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시 은행 볼 일로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돌아오자 형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지수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형숙과 대기업의 반도체분야 일을 했던 남편이 딸 아이 둘을 데리고 이곳 뉴질랜드로 이민 온 지 올해로 꼭 십이 년이 되었다. 이 쇼핑 몰 한 코너에서 쿠키 속을 한지는 십 년, 처음 이민 와서 랭귀지 스쿨을 다니며 무엇을 해야 하나 직업을 찾아 봤지만 어설픈 영어로 이곳에서 직장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 또한 반도체 생산 공장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도저히 자기 전공을 찾아 일할 수 없음을 알고 서서히 직업 찾기를 포기했다.

형숙은 이민 초창기에 열심히 영어를 해야만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민 선배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뭔가를 하지 않고는 안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속을 찾게 되었다. 수입은 크

게 많지 않지만 쇼핑 몰 안의 쿠키 체인점이라 좋은 점이 많았다. 저녁 시간에 일찍 끝나고, 본점에서 재료 주며 지도해주는 그대로 구워 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리 복잡하지도 않았다. 이런 저런 조건이 형숙이 부부에게 맞아 시작한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의 직업이 되어버렸다. 먹고사는 데 지장 없고, 남편과 함께 일하니 마음 편하고 적당히 아르바이트생 쓰면 여유 시간도 낼 수 있었다.

처음엔 손님이 와서 주문을 하면 영어가 서툴러 많은 실수를 했다. 처음엔 그랬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남편이나 형숙 자신이 월급만 받고 살아온 사람이라 자신이 없었다. 가게를 소개해준 이민 선배에게 물었다.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할 수 있을지?”

“에이, 그 정도면…… 이민 사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채 가게는 야채 영어만 하고 세탁소는 세탁소 영어만, 식당은 식당 영어만 한다고 아마 여긴 쿠키 영어만 쓰면 될 거예요.”

“……”

그 말 뜻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돈 벌어먹고 사는데 뭐 이 정도 고생이야.” 하는 맘으로 버티며 열심히 친절하게 하다 보니 많은 고객들도 알게 되었고, 아닌게 아니라 한정된 영어로도 그들에게 웃음을 전할 수 있었다.

형숙이 부부가 이곳에서 십 년 동안 쿠키점을 하며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별 탈 없이 잘 성장해준 두 딸에게 있었다.

‘딸 둘’ 하면 대부분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들을 떠올린다. 내색은 않지만 형숙은 아들에 대한 콤플렉스 아니 아들에 대한 슬픈 기억 때문에 두 딸을 바라볼 때마다 때때로 뒤통수가 당기곤 했다.

형숙이 초등학교 삼학년 때였다.

엄마가 다섯 번째 딸을 낳았다. 첫째딸인 형숙은 다섯 번째 딸을 낳고 우는 엄마 곁에서 숨죽이며 함께 울었다. 딸 다섯과 엄마는 할머니 앞에선 죄인이었다. 그나마 딸 다섯과 엄마를 견디게 해준 건 다정다감하신 아버지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아버지마저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 칩을 들이쳤다. 그 칩이 떡하니 첫아들을 낳았다. 너무나 기뻐하시던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축하해주던 친척들.

딸만 줄줄이 낳고 죽은 듯이 살던 엄마. 그 칩이 아들 덕에 기세가 등등해지자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뭐길래.

그날 아침 엄마는 학교 가는 형숙이와 동생들에게 곱게 옷을 입히고 머리도 빗겨 주셨다.

그것이 마지막 엄마의 기억이었다. 자다 깨어보면, 엄만 잠 못 이뤄 앉았다. 썼다, 밤새 한숨으로 지새고 계셨다. 남편을 딴 방으로 보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불쌍한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엄만 심한 우울증이셨던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려면 딸

다섯을 두고 그렇게 모진 일을 저지르셨을까. 그땐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우는 동생들을 달래며 뒷바라지를 하며 큰딸로서 죽은 엄마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곤 했다.

철이 새엄마로 들어앉고 서러운 일이 생길 때면 엄마를 보고 싶어하면서도 바보 같은 엄마라고 욕하며 울었다. 그러면서도 배 다른 남동생에게 꼼짝해하는 할머니, 아버지, 고모들에게 심한 분노를 느끼곤 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더욱 번창해지자 아버진 딸자식에게 그나마 남은 미안한 감정을 돈으로 보상하듯 딸 다섯에게 학비며 용돈을 충분히 대여주셨다. 형숙은 엄마의 죽음을 잊어버린 듯해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싫었다.

하지만 형숙은 철이 들면서 그 분노마저도 엄마에 대한 슬픔과 함께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누구의 말처럼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의 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눈을 감았을 때의 깜깜함. 떴을 때의 그 환하고 밝음, 눈을 감고 뜨고는 자신에게 달렸다고 믿으며 자신의 마음을 눈뜬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모든 슬픈 기억들을 애써 지워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직에 몸을 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남편은 참으로 무던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형숙은 첫 아이를 가지고도 남들이 다한다는 초음파 성별구분도 하지 않았다. 엄마에 대한, 아니 아들에 대한 자신만의 아픈 기

억들 때문에라도 자신은 자식의 성별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였다.

“딸이에요, 축하합니다.”

간호사의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꺼번에 귀에 와 부딪혔을 때 형숙은 죽은 엄마가 떠올랐다. 그리고는 웬지 모를 가슴 훅 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였다. 남편이 형숙의 배에 손을 올리고,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여보, 이번엔 아들이었음 좋겠다.”

남편의 별 뜻 없는 얘기였지만 형숙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신! 아들 선호주의자예요?”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딸이 있으니까 아들도 있으면 좋잖아.”

“난 그렇게 말하는 당신 사고가 의심스러워요.”

“…….”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발갛게 상기된 채 씩씩거리는 형숙을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형숙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마의 기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낸 것이었다. 시부모님도 친구도 보는 사람마다 아무렇지 않게 “이번엔 아들이었음 좋겠다.” 하는 인사를 해왔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도 딸이었다.

형숙은 오기가 불끈 솟았다. 엄마처럼 아들 때문에 계속 자식을 낳아보겠다는 오기가 아니라 두 딸을 아들보다 잘 키워보겠다는

오기였다. 더 이상 자식은 낳지 않겠다고 주변에 선언을 했다.

“그래,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더라. 초등학교에는 학년 초 여자 짹꿍 없는 남자아이들이 집에 와서 운다던데…….”

“잘 생각했다. 딸 잘 키우면 열 아들 안 부럽다.”

속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다. 형숙은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며 시대를 잘못 타고난 엄마의 불행을 또 한번 떠올렸다. 그러나 형숙은 아들 가진 부모 부럽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때때로 남자아이 옷을 만져 보기도 했고, 남자아이 양손을 잡고 가는 부모를 넋 빼고 쳐다보기도 했다.

로봇 장난감이나 자동차를 갖고 노는 친구의 아들녀석이 두 딸 아이와 가끔은 달라 보인다고 느끼며,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에게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며 농담을 했다.

“당신, 아들 부려워? 딸 잘 키워 아들 같은 사위 얻어줄게.”

“아니야, 난 당신과 두 딸이면 그만이야.”

당황해하는 남편에게서 고개를 돌리며 형숙은 속으로 그런 말들로 위안을 삼는 자신을 새삼 발견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형숙이 우연히 남자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겼을 때 두 딸을 키우며 느끼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다. 딸들과의 미묘한 감정들에 비해 단순한 남자아이들의 사고, 들판에서 그 아들들에게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확실히 두 딸을 키우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들 가진 부모들이 든든해하는 것, 딸 가진 부모가 조바심 내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의를 해왔다. 이민을 가지고 “여보, 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정년 퇴직 때까지 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난 살지 않고도 내 인생을 훤히 볼 수 있어. 그건 이미 산 것이나 마찬가지야. 물론 이민을 가면 고생을 하겠지. 그렇지만 내가 살아 보지 않은 삶을 살아보는 것도 참으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은 형숙이 반대할까 봐 열심히 이민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유한 집에선 영어권 나라에 유학도 시키는데, 우리 가족 다 함께 가서 우리 둘 고생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이곳보단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형숙은 남편의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짐짓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땐 한참 형숙이 역시 교사 생활에 심한 염증을 느낄 때였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도 공부에 할애하는 아이들. 방학 때마저 스파르타식 교육학원에서 공부하는 상위권 아이들.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도 취업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또 영어 때문에 처참해져야 하는가.

“영어가 문제야. 영어만 잘되면 대학 졸업 후 얼마든지 외국에 취직할 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 자리 하나 놓고 몇백 대 일이라니…….”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불쌍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친한 몇 명의 교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형숙은 자신의 두 딸아이라도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어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도 취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두 딸로 키우고 싶었다. 또한, 인구밀도 높은 내 나라에서 남의 나라로 이민 가주는 것도 넓게 보면 애국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땅덩어리 좁은 데서 빠져 나가 주면 남은 사람 발 디디는 게 좀 낫겠지. 또한 젊은이에게 내가 있던 자리까지 내줄 수 있으니까.

다른 이민자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형숙은 내 나라를 떠나왔고, 말 잘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내가 고생하는 만큼 아이들은 좀 편하게 살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껏 그렇게 믿었고 또 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했다. 그러나…….

3

“아니,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언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아마, 모두가 제 결혼을 반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가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저녁.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동생과 수다떨며 웃고 있는 지수에게 형숙은 언제나 그러하듯 재미있다는 듯 말을 꺼냈다.

“우리 지수 달라고 엄마에게 줄 서는 사람 많다. 너, 주희 엄마 알지. 그 아줌마네 조카가 있는데 너랑 잘 어울릴 거라며 진지하게 얘기하더라…… 한 번 만나 볼래?”

“언니는 좋겠다, 데리고 가려는 사람 많아서.”

“지수야, 너 공부하느라 딴 짓도 못해봤지. 좋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중매야. 나도 네 덕에 공짜로 아들 하나 얻어보자.”

형숙은 여러 곳에서 중매 말이 오갈 만큼 반듯하게 자라준 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한없이 즐거웠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지수는 할 얘기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 트인 말문의 물줄기를 막을 틈도 없이 형숙에게 쏟아 부었다. 마흔시와 결혼을 하겠다는 지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형숙은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워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할 얘기를 다한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이성과 감성의 차이로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형숙이 또한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수 자신도 부모가 그 결혼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엄마의 가슴을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형숙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수나 지영이가 다른 민족의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지수가 그 어려운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일, 또 이곳 가까운 종

합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었을 때 기뻐했던 일이 떠올랐다.

마해사는 그 종합병원의 내과 담당 의사였다. 지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와 연결 지어 본 적도 없는 그는 서른여섯 살의 인도인이고 지수와는 여덟 살이나 차이가 났다.

형숙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안 될 일이라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민이라고 다른 나라에 와 살며 딸자식을 키우는데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자신이 더 우습다는 생각도 들었다.

교민들 이민역사가 짧아서일까, 아직 이곳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소식이 들렸었는데.

몇 달 전 세탁소 선배 딸의 결혼식이 떠올랐다.

그 집 딸아이가 중국계 이민 2세 대만 청년과 결혼을 했었다. 호텔에서 식을 올리고 피로연을 가졌다. 사회자가 중국어로 말하면, 또 한국어로 통역해서 말하고,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하느라 예식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스운 일이었다, 세 가지 언어로 올려지는 결혼식.

영어가 잘 되지 않는 선배부부가 떠듬거리며 사위와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딸이 결혼하는 기쁜 날, 형숙이가 바라본 세탁소 선배부부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이제 어떡하나. 자신도 남편도 그래야 될 판국이니.

‘휴……’

형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형숙이가 알고 있는 팔 지수는 자기 주장이 강한 둘째 지영이 와 달리 이제껏 한번도 형숙 부부의 말을 거슬러 본 적이 없는 아 이였다. 언제나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아이. ‘그런 아이가 저런 말을 할 때는……’ 생각하니 형숙은 가슴이 할퀴는 듯 아파왔다.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콩닥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다 아침이 오고 쿠키점 일이 시작되었다. 하루종일 머릿 속이 부글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았다.

4

아르바이트생 정아에게 뒷정리를 부탁하고 형숙은 남편에게 오늘은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고 했다. 남편은 ‘당신이 아픈데 괜찮아?’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기분좋게 한인식당가로 차를 몰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형숙은 남편에게 몇 번이나 지수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모처럼 둘만의 외식에 들떠 있는 남편에게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저녁을 끝내고 부근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가자고 형숙이 제의를 했다.

“당신 오늘 무슨 날이야, 기분 좋은데. 삼십 년 전 테이트할 때 같은데, 차까지 마시다니.”

남편은 형숙의 얼굴을 살피며 궁금해했다.

“여보…….”

형숙은 말도 꺼내기 전에 가슴까지 차오르는 억누른 감정에 목이 떼었다.

“지수가 결혼을 하겠대요.”

형숙은 마해시 이름을 어렵게 꺼냈다. 그 이름을 꺼내면서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은 어색한 이름이라는 것을 느꼈다. 너무 생소한 이름. 살면서 늘 불러오던 한국식 이름. 경수, 태영, 윤식, 지민…… 친근하게 다가오던 이름들이 아닌 뜻 모를 생소함. 이름만 들어도 어떤 생김새인지 떠오를 것 같던 모습이 아니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 형숙이만큼이나 놀랐으리라. 딸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니까.

며칠이 흘렀지만 그 동안 남편도 형숙도 지수에 대해선 아무 얘기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형숙은 남편이 또한 자신만큼이나 지수의 결혼에 대해 무척 힘들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거운 집안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랜 시간을 깊게 생각하는 성격의 남편인 줄 알면서도 형숙은 그러한 남편이 짜증스러웠다. 형숙은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딸에 대한 자신의 괴로움을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남편의 꼭 다문 입은 형숙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다.

“여보,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지수에게 할 말 없어요? 당신 가장이잖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수 결혼은 안 돼요.”

형숙은 답답한 마음의 꼴지라도 틀어보는 심정으로 억지 대답을 강요하며 묵묵부답인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젊을 때, 아니 이민 올 때만 해도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 남편의 코 아래부터 입술까지의 인중이 저렇게 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남편의 자상하지 않은 무뚝뚝한 성격이 그 긴 인중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다.

‘저놈의 긴 인중 때문에 나도 참…….’

힘들게 산다는 말을 끌꺽 삼켰다. 괜히 가만 있는 인중을 탓하고 있는 자신이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대신해서 지수에게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저녁을 먹자마자 두서없이 얘기를 꺼냈다.

“지수야,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결혼에 찬성할 수가 없구나. 나이도 많고 너랑은 안 어울려.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마해시라는 사람 얘긴 꺼내지 마라.”

“엄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아무 말 없이 궁정의 의미로 씩 웃고 말았을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숙은 지수의 단단한 그 목소리 억양에 더 강한 반발심이 일었다. 형숙은 더 강도 높은 어조로 화가 나서 말했다.

“난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많아도 인도인과 결혼은 안 시킨다.”

“엄마, 결혼은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하는 거예요.”

지영이가 타협의 여지없이 말하는 엄마가 지나치다 싶었는지

언니를 대신해 형숙의 말을 받았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형숙의 항의에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둘째 지영이까지……
하는 생각이 들자 형숙은 거의 거름종이에 걸리지지 않은 듯한 말
들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수야, 그 사람이 중국 사람쯤만 되어도 내가 이런 소리까진
하지 않겠다. 인도인이라니, 우선 겉보기에 피부도 우리보다 검고,
뭔지 모르게…….”

못살아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예의 없어 보이고, 사나워 보이
고, 자식이 태어나면……. 형숙은 떠오르는 대로 다 내뱉고 싶었
지만 거기까지 얘기하기 전에 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
뒤를 이어 둘째딸 지영이의 화난 목소리가 컷불을 후비듯 들렸다.

“엄마,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아니, 지영아!”

형숙은 지수가 아니라 지영이가 언니 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에
더 속상하고 섭섭해짐을 느꼈다.

“엄마, 힘든 건 엄마보다 언니예요. 피부가 조금 검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요?”

형숙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
한다는 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엄마, 죄송해요. 그 사람과 전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언제
까지라도 기다리기로 약속했어요. 전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지수야.”

그제야 남편이 울면서 얘기하는 지수를 조용히 불렀다.

“너의 엄마가 지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니 우리 조금 생각해 보자꾸나. 너도 그 사람과 결혼 할 맘이 있다면 엄마에게 그러지 말거라. 엄마가 힘들어하시는구나. 네가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좋은 점이 있겠지.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타민족끼리의 문화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너 자신 있는 거야?”

“노력할 거예요.”

형숙은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자 남편이 원망스러워졌다. 형숙은 딸로부터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얘기까지 듣자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졌다. 자신이 이제껏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단지 그네들을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며 별로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젠 그게 아니었다. 상관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형숙은 이것저것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이민 올 때 이미 지수가 고등학교 일학년, 지영이는 초등학교 졸업반이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왔으므로 빨리 영어를 익혀야만 했다. 이미 지수는 자연스럽게 영어 배우기에는 늦은 학년이었기에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이 한국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골라 입학시키는 것이었다. 지영이는 그런 대로 잘 적응해주었지만 지수는 학교만 갔다오면 울었다. 매 시간마다 녹음해온 테이프이며, 옆 아이의 노트를 빌려다 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 모두 자기 스스로 이민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모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다. 지수는 위낙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

고 또 동생 지영이에 비해 억척이었다.

그렇게 육개월이 흐르자 학교 수업을 어지간히 알아듣겠다고 했다. 일년 후부터는 지수는 거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형숙은 두 팔아이를 도와줄 수 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자신이 안타깝기만 했다. 지수는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다.

형숙은 남들이 지수가 대단하다고 말할 때 그 일들을 자신이 이루어낸 듯 즐거워했을 뿐 아이의 힘듦과 그 뒤의 정신적인 외로움과 변화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되었다.

의과대학 육 년간 늘 공부에 매달려 도서관과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한 아이였다. 한국 아이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아이였다. 형숙은 후회가 되었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를 택해 공부하고 또 많은 한국 아이들과 어울렸다면 자신의 짹을 선택하는 사고, 아니 적어도 타민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형숙은 다 자기 탓이라 생각했다. 이민 오는 것에 동의한 것, 영어 빨리 깨치라고 한국 아이들 없는 학교를 골라 보낸 것, 또 지수가 마혜시와 결혼한다는 것, 모두가 다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엄마. 마혜시가 부모님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다고…….”

“…….”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자 지수가 머뭇거리며 말을 껴냈다. 형숙은 지수를 쳐다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지수 눈에 애절함과 함께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렇거리는 물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형숙은 자신이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찡해왔다.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에서는 딸이 친구 같을 때가 많다. 형숙이 역시 지수나 지영이를 격의 없이 친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지수가 너무 낯설어 보였다. 친구랑 싸워서 어색해진 것처럼 지수와 형숙의 사이가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았다.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도 지수와 지영이가 나타나면 형숙은 슬그머니 딴 짓을 했다. 지수가 멋쩍어하며 엄마에게 얘기를 하려고 ‘엄마’ 하고 부르면 형숙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돌부처처럼 돌아선 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대답을 했다.

“엄마, 화났어요? 죄송해요……. 저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알았어.”

형숙은 무 자르듯 지수의 긴 말들을 한마디로 잘라버렸다.

십 년 세월을 별 생각 없이 하던 쿠키점 일도 점점 시들해졌다. 이민 올 때만 해도 갓 사십이었던 자신의 나이가 어느새 오십을 후딱 넘어서 버렸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비집고 들어왔다. 형숙은 쿠키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전에처럼 형숙은 집에서 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잠옷 바람으로 누웠다 책 뒤적거리다, 차 한잔 들고 서서 창 밖을 명하니 내다보다 하였다.

며칠을 지켜보던 남편이 형숙을 달랬다.

“여보, 언젠가 우리 이런 말을 한 적 있었지.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겠다고 짹꿍을 데리고 왔을 때 아무리 우리 맘에 안 들어도 아이들이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 뜻대로 해주자고 했었지. 기억 안 나?”

“그래요 기억나요. 하지만 지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다 시시해서 그래요. 나 자신 스스로……. 지수가 용납되지 않는 나 자신이 싫어서 그래요.”

“여보, 그러다 당신 마음의 병 생기겠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바람이나 좀 쐬고 오지 그래.”

형숙은 정말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이지 모든 게 멈춰버릴 것 같았다. 남편이 가게로 나가자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 갑자기 세탁소 선배집을 한번 들러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 전 딸을 결혼시키며 우울해하던 선배 부부.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든 갈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클랜드 근교 남쪽 도시에 있는 선배네 세탁소를 향해 형숙은 차를 몰았다. 1번 모토웨이를 벗어나 국도를 한참 달리다 보니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형숙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배 부부가 반색을 했다.

“어. 웬일이야 지수 엄마……, 전화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요…… 궁금하기도 하고.”

형숙은 선배 부부네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어렵게 지 수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는 결혼한 선배 딸 소식을 물었다.

“그럼, 잘 지내지. 저들이야 좋아서 못 견딜 지경이지. 부모 맘 허전한 거야 모르겠지. 그 사위 놈이 한국 놈만 되었어도……. 그렇지만 결혼을 허락하기까지 힘들었지. 이젠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둘이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야. 어차피 나랑 사는 게 아닌걸. 난 사위라 생각하지 않고 딸 남편이라고 생각해. 그놈이 내 딸아 이에겐 극진하거든.”

“타민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잖아. 이민 역사 가 긴 미국이나 캐나다 쪽 교민들이 보면 우리가 우스울 거야. 우 린 아직 이곳에 이민 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세월이 흘 러 손자 손녀 그 이후를 생각해봐. 나 죽고 난 뒤 그게 뭐 이상할 것 같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한번은 사위놈이 자기 딴엔 정 낸다고 맥주 사들고 와서는 ‘아 버님, 맥주 먹어’ 하고 내게 권하는 거야. 옆에서 딸아이가 쭉 찌 르니까 그제서야 ‘……요’ 하고 말하는데 그 모습도 이제 귀여워 지더군.”

“그래요. 귀엽기도 하겠네요. 사돈은 어떻고 사돈네는 정말 우 리만큼도 영어를 못하니 어떻게 딸 통역 기다리다가 때때로 아는 한문 다 동원해 종이에 그려가며 영어 몇 마디 한문 몇 글자 그렇 게 얘기하기도 한다니까.”

선배 부부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얘기라며 지수 때문인지 동 병상현의 마음인지 번갈아가며 딸과 사위 얘기를 해주었다. 형숙

은 그들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형숙은 지수를 생각하며 자신이 지수에게 향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떠올렸다.

딸만 줄줄이 낳아 살기를 포기했던 엄마와 자신이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이면 어떻고, 인도인이면 어떤가. 자식이 원하는 것은 자식을 이해하고 그들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동안 형숙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긴 숨을 토했다.

그제서야 선배네 집에 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국도 좌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부담스럽지 않은 푸른 풀밭의 구릉지. 그리고 소와 양들. 드문드문 집도 보이고 사슴도 보였다. 뉴질랜드 시골 어디를 가도 보이는 풍경인데도 형숙은 새삼 편안함을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달렸다. 형숙은 도로에 길게 그어진 하얀 선, 노란 선, 점선들이 자신의 차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그제서야 자신이 속도감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느끼며 계기판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로 경주게임을 하는 듯한 착각. 게임기만 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 마치 꿈속 같은 느낌.

이민 온 후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내가 이상한 나라에 와 있구나. 깜빡 꿈에서 깨어나면 예전의 교단 위에 서 있

던 자신으로 돌아가 있을 것 같았던 꿈. 형숙은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직도 난 이 나라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보다 적어서 꿈 같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닌데. 나와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섭섭하겠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숙이 그렇게 마음먹자 선배 부부의 말들이 되뇌어졌다.

‘사위가 아니라 딸의 남편.’

형숙은 마음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일단 마해시를 만나봐야지. 만나보지도 않고…….”

아침 일찍부터 나는 한국에서 오신 둘째삼촌을 모시고 도문 세관문 어귀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야 했다. 벌써 오늘까지 한 주일이 거의 되지만 이북에 계시는 큰삼촌은 시종 나타나주질 않고 있었다. 분명히 편지에다는 6월 25일에 건너오겠다고 하셨는데 여태껏 건너오시지 않는 것은 또 왜일까? 국내라면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겠지만 이건 그저 울며 겨자먹기로 매일 눈만 빠지게 하루종일 세관문 앞에서 목을 쭉 빼들고 기웃거려야만 했다.

이젠 싫증이 날 정도이지만 한국 삼촌은 그래도 그 흥미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조금만 늦어져도 그 새에 이북 삼촌이 건너오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아침 밥술을 놓기 바쁘게 다그쳐 나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 삼촌에게 있어서 여기의 모든 것은 친근하고 감격적이었다. 첫날은 도도히 흐르는 두만강을 바라보고 엉엉 우는가 하면 건너오는 이북 손님들을 마구 불들고 흔들어대는 바람에 어안이 병벙해 서 있던 이북 손님들이 그 말투와 그 차림새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래져서 두리번두리번 살피며 달아나기도 하였다.

때는 장마철이라 어젯밤에 억수로 소나기가 퍼부었지만 오늘 날씨는 역시 짜물쿠기가 말이 아니었다. 삼촌은 연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쑥쑥 문지르며 헛빛이 쟁쟁 내리쬐는 대문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길 맞은 쪽 백양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도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알아보겠건만 삼촌은 외고집을 부리며 그냥 그대로 대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사이다 한 병을 사서 가져다 드렸지만 이게 어디 맛이 있어 먹겠느냐 하면서 거절하는 삼촌을 보면 측은해 보이면서도 또 어딘가 괘씸하기도 했다. 한국은 얼마나 잘 살기에 사이다도 맛없다 하느냐 싶은 게 뱈이 육하고 치밀었다.

오전 열 시 반이 거의 되니 세관은 대문을 닫아버렸다. 오후 세시쯤에 다시 손님들을 내보내니 그때 와서 다시 마중하라는 것이다. 출근은 오후 두 시에 하지만 세관검사를 마치고 수속을 하노라면 한 시간쯤은 족히 걸려야 했기 때문이다.

“삼촌, 오늘도 오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 볼까요?”

이제는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오후에는 보통 이북측에서 오전에 검사를 못 마친 나머지 사람들을 건네 보내는데 그 수가 많지 않은 만큼 그 희망도 적은 것이었다. 밖에서 네 시간 반이나 초조히 기다렸다가 또다시 삼촌한테 차례질 실망을 생각하니 적이 마음이 애씁짤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점심시간에 멀리 있는 집까지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냉면 한 그릇으로 점심을 떼우고 난 다음 강변에 가서 시원하게 목욕이나 하자는 나의 전의에도 삼촌은 거절하고 세관문 앞 나

무그늘 밑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었다.

몇 시간을 그저 이렇게 맥맥하게 보내자고 생각하니 참말로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다. 삼촌은 나한테로 돌아앉더니 이복 삼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삼 형제가 있었는데 독립군이었던 만이인 아버지가 중국 만주 땅으로 피신 온 것이 바로 그들 형제가 갈라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당시 고향에는 해마다 수재가 들다보니 살아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큰삼촌은 감히 떠나지 못하고 둘째삼촌이 돈벌어 보겠다고 집을 나선 것이 그만 이리저리 노가다 판에서 떠돌게 되었다. 나중에는 강원도 원주 리에 가서 일하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삼 형제가 이렇게 세 곳에 헤어져 살아야 했다고 한다.

당시 지원군으로 나갔던 아버지, 인민군에서 총을 뺐던 이복 삼촌과 한국 국방군에 있었던 둘째삼촌은 서로 적수가 되여 전쟁판에 말려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총을 쏘자고 겨누고 보면 보이는 것이 다 형제 같아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중 한번은 우물거리다가 대방의 총에 맞아 부상병이 되어 전장에서 물러난 것이 나의 아버지였다. 중국으로 후송되어 와 병을 치료하고 몇 년 살면서도 두 동생의 안부를 몰라 애태계 속을 태우다가 끝내는 병이 도져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다.

“참, 그때 우린 왜 그래야 했는지?”

후— 길게 한숨을 내쉬던 삼촌의 눈에는 그 어떤 비장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왜긴 왜예요? 다 집권자들의 불장난이었지요. 삼촌한테나 아버

지한테는 다 죄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삼촌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언제나 지나간 일이기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긴 그렇지만…… 이제 네 이복 삼촌이 오시니깐 난 죽어도 눈을 감게 되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구천에서 소원을 푼 셈이구. 그치?”

사실 이번 남북 두 삼촌을 만나게 하는 데는 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먼저 이복 삼촌을 찾는데 꼭 신경을 써야 했고 나중에는 두 곳에다 초청장을 띄우고 그 시간을 맞추는 데 거의 일년이 걸렸다.

이복 삼촌이 한국 삼촌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 집으로 부쳐왔다가 내가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했고 한국 삼촌의 편지는 아예 나의 필체로 고쳐서 이복에 보내야 했는데 한번 편지가 오고가는 데도 거의 달 반이 걸렸다.

6월 25일쯤에 여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즉시 중국에 들어오시겠다는 이복 삼촌의 편지를 받고 한국 삼촌한테 알렸다. 소식을 접하고 중국에 투자해볼 생각이 있던 차라 한국 삼촌은 이렇게 앞당겨 왔던 것이다. 그런데 오시겠다던 이복 삼촌은 이렇게 한 주 일이 지나도 종무소식이니 안달이 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시간은 그럭저럭 흐르다가 오후 세 시에 이르렀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머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문을 나서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그 뒤로 얼마쯤 떨어져 따라나오는 늙은이 한 분이 짐차를 미느라고 깅낑거리고 있었다.

“야, 형! 형 아니오?!”

대문 곁에서 서성거리던 한국 삼촌이 화닥닥 뛰쳐나가며 늙은 이를 부둥켜안았다. 어리벙벙해 서 있던 늙은이는 한참 삼촌을 들여다보더니

“이게 누구다? 메사니 석진이가 아니우!”

“형! 형! 나예요! 석진이에요!”

“석진아—.”

“형—.”

둘은 부둥켜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모여 섰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남 일같이 심드렁해서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그 울음소리가 하도 비통했던지 아낙네들은 슬금슬금 치맛자락으로 눈굽을 찍고 있었다.

한참 눈물을 쏟고 난 이복 삼촌이 먼저 머리를 들고 한국 삼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석진아, 그만 그티자! 남들이 웃갔수다.”

“예. 형님도 울지 말아요. 형님을 이 일생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 할 줄 알았는데…… 이 중국 땅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근데 형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고생 많았지요?”

내가 보기에도 이복 삼촌은 한국 삼촌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아예 할아버지라고 해도 곧이 들을 만큼 얼굴에는 밟고랑이 패였고 머리는 때 이르게 파파 희고 허리는 구부정해있었다.

“석진아. 네 형수다. 여보, 얘레 내 동상이라우.”

이복 삼촌은 먼저 나와 계시던 늙은 할머니를 가리키며 인사를 시켰다. 정말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늙어 보였다.

“형수님, 반갑습니다.”

한국 삼촌은 형수 앞에 가서 90도 경례를 하였다.

“적은이, 만나니 정말 반갑시유!”

삼촌 어머님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애야, 넌 왜 거기에 명해 서 있니? 삼촌과 삼촌 어머님한테 인사를 올려야지.”

한국 삼촌이 뒤로 돌아보며 병병히 서 있는 나를 보고 재촉해 왔다.

“삼촌, 삼촌 어머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 고맙다. 자네가 장한 일을 했다. 저 메사니 이 물건들을 신고 가야겠는데 차가 있다?”

“삼촌두, 그저 빈 몸으로 오실 테지 이 더운 날에 뭘 가져 오시느라고 이런 고생을 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길가에 서있는 인력거에 짐을 실어 버스 역으로 향하였다.

“근데 형님, 25일에 오시겠다고 해서 조카애와 나는 그날부터 나와서 기다렸지 않아요?”

인력거를 따라 걸으며 한국 삼촌이 말씀하셨다.

“25일에 떠나려고 준비가 다 되었징유, 근데 그 내례 출국 전에 꼭 학습을 해야 하는 줄을 몰랐시유. 그래서 한 주일 학습반에 다니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시유.”

삼촌 어머님이 삼촌 대신 변명했다. 출국 전에 학습이라는 말이 알둥 말둥 한지 한국 삼촌은 그저 묵묵히 발걸음만 다그치고 있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집에 들어서니 어느새 날이 어슴푸레 어두워져 있었다.

한국 삼촌은 신을 벗기 바쁘게 방에 올라서더니 형님한테 큰절을 올리겠다고 서둘러댔다.

“절은 무슨 절? 세관에서 이미 했디 않수?”

이복 삼촌이 사절하려 했지만 동생의 거듭 우김에 못 이겨 방 가운데 정중히 앉았다.

한국 삼촌은 머리를 구들에 대이도록 큰절을 공손히 하고 난 다음 형수 앞에 가서 끓어앉았다.

“아니, 형수한테는 그만 캐라.”

이복 삼촌이 말렸지만 한국 삼촌은 들은 척도 않고 깍듯이 큰 절을 했다.

“애들아, 너희들도 들어와서 큰절을 올려라!”

한국 삼촌이 나를 보고 말하였다. 사실 중국 땅에서 자란 나는 큰절은 그저 큰 잔치 때에나 하는 인사인 줄 알았지 평시에도 이렇게 하는 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 동생이 형한테 큰절을 하는데 조카인 나는 한국 삼촌이 오신 다음에도 그저 허리만 굽혀 인사했지 이렇게 끓어앉아서 큰절을 하지 않았잖는가. 나의 얼굴은 수치로 화학 달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례로 삼촌들한테 큰절을 올렸다. 내가 큰절을 올릴 때 한국 삼촌은 자기도 따라서 나와 맞절을 했다.

뒤이어 부엌에서 저녁준비에 바빠 설치던 나의 아내와 밖에서 놀고 있던 나의 아들이 차례로 큰절을 올렸다.

“전 그저 허리만 굽혀 인사하면 단 줄 알았는데요. 둘째삼촌, 요전번에 속으로 못난 조카를 되게 욕했겠습니다.”

나는 인사가 끝나자 한국 삼촌한테 양해를 구했다.

“뭘 괜찮다. 중국에 왔으면 중국 습관에 따르는 것도 사실은 옳은 거지. 안 그래요? 형님!”

“하긴 그렇기 두 해!”

뭐가 그리 우스운지 우리는 한바탕 웃고 나서 아내가 갖춰놓은 술상에 빙 둘러앉았다. 생각 같아서는 두 삼촌과 삼촌 어머님께 따로 상을 하나 차려 드렸으면 좋겠지만 집안형편이 허락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해서 다 먹겠냐?”

언제나 밥상 앞에 앉으면 타박부터 하는 한국 삼촌이었다. 하긴 한국 삼촌이 오신 다음에는 끼니마다 돼지고기, 소고기, 물고기, 닭고기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정성껏 차린다고 해도 뭐 차릴 게 있어야지요. 중국은 한국보다 못사니 뭐 영양가를 따져가며 해드릴 수도 없고요. 많이 양해하세요.”

이럴 때마다 나의 아내는 언제나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바를 몰라한다.

“아니, 이건 뭐 산해진미를 다 갖추구두. 쯧쯧…….”

삼촌 어머님은 연신 혀를 끌끌 차며 술들 냄을 못하고 있었다.

“삼촌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이북에는 먹는 게 좀 곤란하다던데 우리 중국에는 먹는 게 흔해 빠졌어요. 그저 이번에 실컷 잡수고 몸을 좀 내서 가요.”

수다스러운 나의 아내는 큰삼촌의 감정변화를 읽지 못하고 손님들의 접시에 먹을 것을 마구 집어 놓고 있었다.

“뭐, 우리 이북도 배부르게 먹느니라.”

큰삼촌의 얼굴은 어딘가 약간 흐려 있었다.

“큰할아버지네는 잘사나?”

곁에 앉아 있던 나의 아들이 눈이 동그래서 이복할아버지를 빠끔히 올려다본다.

“잘살구 말구, 네레 오면 먹을 거 많이 해주마!”

삼촌 어머님이 말을 가로채며 술을 들었다.

“아니 얘기 아버지, 어찌 술을 안 꺼내요?”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궤쪽 안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모태주 한 병을 꺼내놓았다.

“아니, 이게 모태주가 아니냐?”

먼저 이복 삼촌이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어디 보자. 모우타이라구, 제일 좋은 술이지.”

한국 삼촌은 술병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뜯어보며 연신 ‘모우타이, 모우타이’ 하신다.

“자, 한잔씩 드세요!”

나는 두 삼촌한테 한 잔씩 부어드렸다. 삼촌 어머님께도 한잔 부어드리려고 했지만 자기는 마실 줄 모른다고 기어코 사양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네 이 술을 먹자니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구나.”

술잔을 받아든 이복 삼촌의 손이 가볍게 펼리고 있었다.

“형님한테도 한잔을 부어놓지요?”

한국 삼촌은 빈 잔에 그득 술을 부어 제일 좌상자리에 정중히 모셔놓았다.

“캬—, 정말 좋은 술이군.”

한국 삼촌이 단모금에 잔을 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두 삼촌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마음놓고 드세요!”

나는 연신 두 삼촌한테 술을 따랐다.

“석진아, 이번에 왜 제수를 데려오지 않았다?”

술기가 잔뜩 오른 이복 삼촌이 눈이 거슴츠레해서 한국 삼촌을 나무랐다.

“집안사람은 남아서 회사 일을 보고 있어요. 한국은 하루만 경영이 못 따라가면 부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같이 왔어야 하지. 우린 뭘 혁명사업이 안 바쁜 줄 아아. 그래도 같이 오지 않았나.”

“여보 영감, 적은이를 나무랄 게 뭐유. 빨리 식사나 하시구 편히 쉬다가 내일 이야기하면 되잖수.”

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꼬떡꼬떡 졸고 있는 나의 아내 보기 가 미안했던지 삼촌 어머님이 그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며늘아기, 요새 욕보네. 빨리 거두고 쉬게나!”

취중에서도 정신은 맑은지 한국 삼촌은 뒤로 물러앉으며 상을 내놓는다.

아내가 상을 거두고 잠자리를 펴드리려고 방을 거두자 이복 삼촌이 말씀하시었다.

“여보 노친, 가져 온 건 없어두 애들한테 내 놓수!”

삼촌 어머님이 가지고 온 크고 작은 보파리를 헤치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이건 그래도 우리 조국의 유명한 도자기들이 아니냐. 받아쓰려 무나!”

삼촌 어머님이 내놓은 물건은 거의 다 도자기꽃병, 도자기물주

전자, 도자기술병 등 도자기 품이었다.

“그리고 이건 개성 삼이다. 개성 삼이 원래부터 몸보신에는 제일 좋은 게지. 남조선이 못 산다기에 적은이 몸 약할까봐 약에 쓰시라구 가져 온 계구. 그리구 요 몇 해엔 꼭 명태 잡을 철이면 미제와 남조선과 뢰도당이 동해바다 상공에서 무슨 놈의 연합군사연습을 하기에 명태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것밖에 못 구해왔다.”

보따리를 해치고 나니 정말 값 나가는 물건이 얼마 없었다. 개성 삼이 아무리 좋다 한들 양삼인 이상 얼마나 더 좋으련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흐뭇했다. 한국 삼촌은 천연색 텔레비전이 지금 위해 세관에 있는데 후에 도문 세관으로 전녀오면 가서 찾아 쓰라고 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들어선 그 당시 실망보다는 지금 이복 삼촌의 처사가 더 반가운 기분이었다. 한국은 잘 산다기에 원래부터 기대가 커던 만큼 그 대신 가져다주는 실망도 더 커지고 이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서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삼촌네도 잘 못사실 건데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어찌지요?”

반갑다는 인사를 나의 아내는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엉? 너 그 말이 옳지 않다. 우린 장군님 품에서 근심걱정 없이 잘살고 있단다!”

얼근히 취해서 엿비스듬히 벽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던 이복 삼촌이 눈 번쩍 뜨며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하시었다.

“아, 그래요? 삼촌, 노여워 마세요. 오늘은 그만하고 빨리 주무세요!”

이내 아내가 말을 돌려맸다. 사전에 내가 아내한테 단단히 다짐을 받았기에 아내는 이내 수그러들 수가 있었다. 이번에 손님은 비록 친삼촌이지만 남북서 오기애 말에 주의하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특히 이북에서 오신 삼촌을 더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가난할수록 자존심밖에 남은 것이 없기에 자칫하다간 노여움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아내가 방을 닦고 나서 이부자리를 펴드렸다. 노인 세분이 큰방에서 쉬게끔 하고 나와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콧구멍만 한 뒷방에 가서 비좁게 누워 자야 했다.

자리에 누워서도 나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다. 앞방에서는 두 삼촌이 잠들 줄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때론 쿨쩍쿨쩍 울기까지 하였다.

왜 그러지 않으랴! 30여 년 동안 생이별하고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그립던 형제들인가!

나는 두 노인의 다정한 소리를 들으며 그래도 이번 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에 스르르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흥분해서인지 눈에 핏발이 선 세 노인은 일찍 일어나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는 한국 삼촌의 거듭 요구대로 토장국을 끓여서 들여놓았다.

상 앞에 나앉은 한국 삼촌은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중얼거리며 기도를 드렸다.

“할배, 정말 하느님이 있나요?”

나의 아들은 또 동그래진 눈으로 신기해서 묻는다.

“하느님이 있구 말구.”

“우리 선생이 말하는데 하느님 믿는 건 미신이래요!”

“하느님을 믿는 건 미신이 아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믿어야 선량해질 수 있는 게지.”

“아버지,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누구해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요?”

“야, 됐다. 이젠 그만하구 빨리 밥먹구 학교에 가!”

옆에 묵묵히 있는 이복 삼촌과 삼촌 어머님의 굳은 표정을 훔쳐보고 나는 이렇게 천진한 아들을 욕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왜 학교에 가요? 어제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 할배, 할매 모시고 거리에 놀러 간대요!”

“옳구나,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그럼 빨리 밥 먹고 할배, 할매 모시고 놀러 나가자꾸나!”

한국 삼촌은 역시 드는 등 마는 등 몇 술을 놀리더니 밥상에서 물러앉는다. 맛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몸에 해로울까봐 그러는지 때론 자기가 가지고 온 육개장 따위 라면을 끓여 잡수면서도 식사는 언제나 형식에 불과했다. 한국에서는 달걀을 먹지 않는다니,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아 몸에 해롭다느니, 닭은 무슨 사료를 먹이느냐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 음식을 꺼리는 것이 분명했다. 물론 한국은 잘살아서 이보다 더 고급 음식을 먹겠지만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만하면 정성을 다한 셈이니 나는 아내를 더 나무랄 수 없었다.

사실 나의 삼촌이 그렇지 한국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물집 할머니네 집에 오셨던 한국 손님은 먹성이 그렇게도

좋아서야. 우리를 꼼 째 먹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또 호텔이거나 식당에 가보면 너무 많이 차렸다고 하면서도 맡바닥이 드러나게 먹어치우는 것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었다.

식사가 끝난 다음 우리는 거리에 나갈 차비를 하였다. 주로 오늘은 이복에서 오신 삼촌과 삼촌 어머님한테 옷 한 벌씩을 사드리려 하였다. 아래 위 검은 색깔의 레닌복을 입은 삼촌도 그렇거니와 이 무더운 삼복 철에 치마 없이 토토론 남색바지를 입고 있는 삼촌 어머님이 보기가 측은했던 것이다. 더욱이 오늘 저녁에는 촌에서 남북형제가 모였으니 통일잔치를 베풀겠다고 어제 촌장이 왔다 간 이상 마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할배, 할매, 그 빠찌 차지 말아요. 거리에 가면 남들이 웃어요.”

아들녀석이 이복 손님의 가슴에 달린 마크를 벗기려고 동동 배달린다.

“아눔아! 이건 안 된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다!”

큰삼촌이 매달리는 손주 녀석을 훽 뿌리치며 질겁해서 고함질렀다.

“삼촌, 거리에 가시면 사람들이 많아 불편하실 텐데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집에 놔두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점에 드나들자면 사람 속을 비집고 다녀야 하기에 나의 아내가 옆에서 권고했다.

“며늘아기, 우린 모실 때부터 목숨으로 수호하겠다구 맹세했으니 더 말 말게!”

“삼촌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이제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 비집고 다녀야 하기에 혹시 잃을까봐 그러는 게지요 뭐!”

“그럼 자네들이 둘째삼촌을 모시고 가게나, 나와 노친은 집에 남아 있을 테니.”

어딘가 불만의 기색이 뚜렷하였다. 하긴 그렇다. 아무리 한 민족이라 해도 나라가 다르고 국정이 다 다른 만큼 사유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좋을 대로 하세요 차고 가시도록 하세요 우리가 너무 삼촌님의 심정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삼촌과는 달리 삼촌 어머님은 그런 열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이북에서 하는 말마따나 삼촌이 세대주인 만큼 다른 사람은 세대주를 따르면 그만이었다.

“한국 할배, 그 옷 보기 싫어요 바꿔 입고 가요!”

이번에는 아들놈이 곁에서 묵묵히 신발을 신고 있는 한국 삼촌을 걸고들었다.

“건 왜?”

“꽃 적삼은 여자 옷이래요 남자들이 입으면 여자 된대요!”

오늘 따라 거리에 나간다고 하니 한국 삼촌이 알록달록한 꽃적삼을 껴내 입었는데 삼촌 연세로 보면 정말 잘 어울리지가 않을 정도였다.

“옷은 남을 위해 입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안하면 되는 게지.”

“안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꽃 적삼 입은 남자는 다 나쁜 놈이에요”

“허허, 그래. 그럼 바꿔 입지.”

한국 삼촌은 너무 정색해서 대드는 손주놈이 하도 기특해서인지 흰 적삼을 바꿔 입고 밖을 나섰다.

거리에 가서 나는 먼저 시장을 구경시켰다.

“아니, 이게 정말 다 파는 물건이유? 이렇게도 많을 수가 있수?”

삼촌 어머님은 깜짝 놀란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가는 곳마다 만져보고 물어본다.

“내레 그래두 어제 자네 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음식을 보고 아마 정부에서 우정 보이느라고 마련한 거겠지 했더유, 오늘 시장에 나와 보니……. 막 썩어나가는구나. 에그, 물건이 이렇게도 많아서야.”

삼촌 어머님은 연신 찬탄을 아끼지 않는다.

“할매, 조선에는 물건이 이만큼 없나요?”

아들녀석이 또 참새처럼 끼여든다.

“우리 조선은 영…….”

삼촌 어머님이 얼버무리는데 삼촌이 가로챈다. 죄끄마한 손주녀석의 물음에도 삼촌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조선은 잘산다. 그저 요 몇 해 재해가 그냥 들이닥치는데다가 미제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허리끈을 풀어놓고 마음놓고 먹을 수가 없는 게지.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란다…….”

삼촌의 말에 삼촌 어머님은 입을 비쭉거려 보인다. 처음에는 삼촌 어머님도 말에 극히 조심하며 신경을 쓰더니 이제는 점차 여기

분위기에 휩쓸리는지 때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다.

한국 삼촌은 따로 무슨 궁리를 하는지 제일 뒤풍무니에 따라다니며 덤덤히 서 있곤 했다. 물론 큰삼촌이 남조선, 미제라는 말에는 약간 흐린 얼굴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내 원래 표정대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런 섬세한 표정변화를 나는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었다. 자칫하다간 이번 두 삼촌의 만남이 불쾌로 돌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나의 처지가 대단히 난처해질 것은 불 보듯 뻔했다.

나는 아내를 다그쳐 백화상점에 들어가 이북 삼촌과 삼촌 어머님한테 옷 한 벌씩 사드리고 귀로에 올랐다. 한국 삼촌한테는 무엇을 사드리려 해도 질이 나쁘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아무것도 사드리지 못한 것이 좀 섭섭하기는 했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촌에서 베풀기로 한 연회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북 삼촌과 삼촌 어머님이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기름기 음식을 갑자기 잡수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느 음식이 깨끗지 못해서 그러는지 두 노인은 밥 한 알 못 잡숫고 뒷간 만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그래도 이 마을에 의사가 있어 매일 오전 오후로 링거 주사를 놓은 덕분에 이틀이 지나니 차차 멎기 시작했다. 못사는 이북에서 왔는데 무슨 돈을 받겠느냐는 의사의 말이 고마운 건 더 말할 것 없고 어쨌든 병이 호전되니 마음이 놓였다.

며칠이 지나 병이 채 완쾌되기도 전에 이북 삼촌은 길립 시에 한번 테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벌써 건너 온 지가 여러

날이 되는데 수령님이 공부하시던 육문중학교에 가보지 않고서야 어디 말이 되느냐 하는 심증한 태도였다.

“아니, 몸이 이래서 어떻게 간다고 그러십니까? 뭐 며칠 늦으면 안 된답니까?”

나는 삼촌의 몸이 걱정되어 만류해 나섰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 조국에 돌아가면 다 회보해야 하는데 이런 충성심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삼촌,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든든해야 혁명을 해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도 있지 않아요. 충성도 걸보다는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더 귀중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큰삼촌을 나무랐다. 물론 삼촌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네 나와 하는 말씀이겠지만 또한 나의 사정도 얼마쯤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길림까지 기차를 타고 가자 해도 꼬박 하루가 걸려야 하는데 도중에 병이 더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형님, 조카애 말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며칠 더 있다가 몸이 완쾌되면 길림보다는…… 먼저 백두산천지나 같이 가봅시다. 백두산은 그래도 우리 민족의 넋이 묻혀 있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 민족의 상징이 아닙니까?”

“……”

달다 쓰다 말이 없는 큰삼촌의 표정으로 보아 동생의 말에 몹시 노여움이 선 것 같았다.

요 며칠 눈치를 보니 두 삼촌은 첫날 만나서 울고불고 하던 형제 정이 왜인지 지금 점점 식어 가고 있었다. 아무리 친형제라 하

지만 서로간의 의견부동이 자꾸 생김에 따라 무의식중에 틈이 생기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하는 수 없이 두 가지 선택을 다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한국 삼촌을 모시고 백두산으로 떠났고 그와 동시에 나의 아내가 이북의 두 노인을 모시고 길림 시로 떠났다.

친척도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일수록 더 가깝고 형제일지라도 만났다 이내 해어져야만 더 그립고 정이 더 깊어지는 거다. 오래 같이 있으면 자연히 감정이 식고 따라서 금이 생기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30여 년 만에 만난 두 형제지만 사유방식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신앙이 다름에 따라 이렇게 좋은 유람도 갈라서 해야 했으니 비인지 희인지?

이번 유람이 끝난 다음 돌아오신 두 삼촌은 그래도 떠나기 전 보다는 정서가 좋아졌다. 무슨 큰 시름을 던 듯이 이북 삼촌은 가벼운 마음이었고 한국 삼촌은 무슨 장한 일이라도 해낸 듯이 천지에서 주워온 돌들을 자주 꺼내보며 흥얼거리곤 했다.

그날 저녁 촌에서는 개 한 마리를 잡아 연회를 베풀었다. 촌장의 말로 하면 같은 개고기지만 이북에서는 ‘단고기’라 하고 한국에서는 ‘보신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사는 우리는 남북 쌍방이 다 접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꽤나 유모적이고 뜻 있는 말이었다.

좌석도 떡 신경을 쓴 것 같았다. 촌장이 가운데 앉고 양켠에 남북 삼촌을 모셨는데 외교도 그럴 듯한 외교였다.

“여러분, 오늘 비록 차린 건 없지만 이 자리에 남북 손님을 가

지런히 모셨다는 그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세 분의 상봉을 축 하하여 잔을 듭시다!”

총의 크고 작은 간부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리고 삼촌과 나 이 비슷한 동네어른들을 청하다 보니 앞뒤 방에 상 네 개를 차렸고 부엌에도 수고하신 분들이 한 상 차지하고 있어 잔치도 그럴 듯한 잔치였다.

술이 몇 고배 돌고 나자 나는 큰삼촌을 보고 눈짓을 했다. 답례의 말씀을 드리라는 뜻이었다. 주인의 첫인사가 끝났으니 다음은 손님 측에서 인사말을 올리는 것이 응당하기 때문이었다. 큰삼촌은 나의 뜻을 알아챘지만 하시는 말씀은 되려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존경하는 촌장 동지,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이 매우 바쁘시겠는데도 시간을 내서 이런 풍성한 연회를 베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한형제입니다. 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놓고 먹고 놀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두 나라 수령님들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먼저 두 나라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이건 철두철미한 외교 연설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십 년 전에 하는 말이라면 그래도 접수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말들이었다. 하물며 이건 촌에서 가진 모임이 아닌가.

나는 촌장의 입에서 다른 비풀은 말이 나올까봐 적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천만 다행이었다. 부엌에서 아낙네들의 키득거리 는 웃음소리가 몇 번 났을 뿐 누구도 비웃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국 삼촌이 다시 제의하려는 걸 나는 말리고 말았다.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말이다. 한국 삼촌은 그저 허리만 굽실거리며 한 상에 앉은 노인들과 술잔만 부지런히 나누고 있었다.

“이번에 와보니 정말 중국이 잘살아요 이게 어디예요 상다리가 다 부러지겠어요 정말 꿈에서만 생각하던 걸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가 없군요!”

삼촌 어머님이 저쪽 상에서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잘산다구요? 한국은 중국보다 몇 곱 더 잘산다구요!”

부엌에서 젊은 아낙네들과 같이 먹던 개잡이꾼 덕수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참견을 한다. 덕수는 작년에 한국에 가서 2년 일하다가 돌아왔기에 지금은 제법 넥타이를 매고 다니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남조선에서는 잘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기아에서 허덕인다더군요?”

삼촌 어머님이 눈이 등그래서 반문한다.

“아하, 할머님은 들은 말이지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한국 손님한테 물어봐요!”

한국 삼촌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가타부타 말 없이 그저 머리만 끄덕이고 있었다.

“삼촌 보세요 저분이 작년에 한국 갔다왔어요 보다시피 남북 통일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하고 있다구요 얼마나 좋은 한국 홍보예요 한국에서 불법체류, 불법체류 하면서 벌어가는 달러를 아까워하지만 그들이 통일에 기여하는 그 가치는 어찌 몇 푼 되는 달러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쌉 월급 대신 창조한 로동

가치는 또 얼마인가요?”

나는 한국 삼촌을 향해 연주포를 쏘아댔다. 우리 마을에만 해도 한국에 갔다온 집이 거의 절반이 되는데 올 봄에 모두들 쫓겨왔다. 그들은 분한 나머지 이젠 다시는 한국을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했지만 반년이 멀다 하고 또 노무일꾼으로 나간다. 여행사를 거쳐 나간다 하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다. 말로는 한국이 못살 곳이라고 욕하지만 남들이 한국 나쁘다고 하면 이를 물고 대드는 건 또 왜서일까?

“중국 교포들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인으로 해서 외국인이 너무 많기에 하는 수가 없는 거란다. 한국도 사실은 잘사는 나라는 못되거든.”

한국 삼촌은 수저를 밥상에 놓으며 이북 삼촌을 힐끗 쳐다보았다.

“필리핀 인은 외국인이니 불법체류라고 하지만 중국 교포를 불법체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교포라 하지 말든지. 그래, 친척집에 놀러 간 사람을 오래 있다고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게다가 번들번들 놀면서 파먹는 것이 아니라 피땀으로 일하면서 있는데요. 보세요, 삼촌님도 이젠 며칠 됐으니 아시겠지만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만큼 인심이 후하고 자기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만큼 남북통일에 관심 갖고 힘쓰는 해외동포들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긴 그렇기도 하다만…….”

한국 삼촌이 무엇이라고 더 변명하려는데 덕수가 와서 술을 권했다.

“고맙네. 술은 받아먹으나 자네도 한잔 받아야 하네. 이걸 보고

한국에서 대포 쏜다고 하거든. 자네도 한국 갔다왔으니 알겠지만.”

삼촌이 받아 마시고 나서 다시 잔에 술을 그득 부어 덕수 앞으로 내밀었다. 덕수는 술잔을 두 손으로 깍듯이 받으며 말했다.

“어르신님의 술을 감히 받아 마시겠습니다마는 술보다도 저의 청을 하나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청이라니?”

한국 삼촌이 약간 긴장하였다. 저 자식 또 달려를 좀 바꿔달라고 하자나 않을까 하고 나도 적이 마음이 긴장되었다.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 돌아가시면 우리 저 형님(나를 손가락질 하며) 초청장 하나 해보내시라 그겁니다. 한국에서 한 십만 원만 먹이면 된다는데 모든 비용은 저 형님이 한국에 가서 돈을 꽝꽝 벌어 곱으로 갚아드리지 않을라구요.”

“좌우간 자네 말이 고맙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60세 미만은 초청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에…….”

“그럼 통일은 60세 미만은 관계치 말고 60세 이상 분들이 구천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건…….”

난처해진 건 삼촌이었다. 비록 덕수가 취해서 망탕 한 말이긴 하나 그저 듣고 지나쳐버릴 말은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덕수 그 녀석이 대신 한 셈이었다.

한국 삼촌이 오신 다음 나의 아내가 몇 번이나 초청장 때문에 나를 꼬드겼지만 나는 언제나 입가에까지 나왔던 말을 되삼켜버리곤 하였다. 그래도 조카집이라고 찾아온 삼촌을 보고 한국 가 돈벌겠으니 초청장해달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덕수야,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있나? 이번에 남북 삼촌 모신다고 몇천 원 때려 썼을 건데 잘사는 한국 손님 벌써 타산이 있을 게 아니냐?”

촌장이 불는 불에 키질을 했다.

“이젠 말씀 그만 하구 술이나 한잔 듭시다!”

화제가 너무나 한국 쪽으로 쏠려서 그러는지 이북 삼촌이 언짢은 기색으로 술잔을 들고 권한다.

“아니, 이만했으면 잘사는데 또 뭐가 모자라서 남조선에 나가려 하지요?”

언제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삼촌 어머님이 또 말참견을 했다.

“이러다간 앞으로 우린 죽도 못 먹는다구요 등소평이 한때는 우리 백성들을 잘살게 했지만 등소평이 죽고 나니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안대요 지금 좋을 때에 돈을 꽝꽝 벌어놓아야지요.”

덕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게 무슨 말본세우?! 나라 수령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다니!?”

하고 이북 삼촌이 질겁하여 주위를 두리번 살핀다.

“뭐, 등소평은 사람이 아닌가? 등소평이 등소평이지 뭐 등대평이겠나요? 나 원, 이북에서는 다 좋은데 충성을 랑용하는 것이 딱 우리 문화대혁명 때 같다니깐요 충성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얼근히 취한 덕수가 침방울을 퉁툭 통기며 연설을 품다.

이북 삼촌은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나중에는 파래지고 있었다.

“덕수, 말을 작작 하게. 나라마다 실정이 다 다르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고향을 떠나온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고향이 좋다 나쁘다 평할 게 있는가. 취했군 취했어!”

나는 이북 삼촌의 면목을 치세우려고 덕수를 나무랐다.

“형님, 난 취하지 않았소. 뭐 우리가 고향이 나빠서 떠나온 줄 아우? 우리 조상들이 여기로 왔으니 할 수 없이 남아 있는 게지. 우리 조상들이 동족상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겠소. 그래도 우린 거의 다 독립군의 후손들이라우. 형님은 다 좋은 데 그 거짓말하는 게 난 딱 질색이라우. 뻔히 이북이 어떤 면은 지나치다는 줄 알면서도 왜 감히 말 못하우. 형님, 한국 욕하는 글 신문에서 나두 봤수. 왜 한국은 자본주의라고 욕할 수 있고 이북은 사회주의라고 욕하면 안 된다우? 꾸민 욕두 아닌데. 실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지, 한번 재간 있으면 이북 어렵다고 사실 그대로 써보라구. 뭐 글쟁이들 기행문 많이 쓰는데 보고 느낀 대로 써보란 말야…….”

언젠가 신문에 실린 나의 글을 보고 덕수가 말한 것이었다.

“정 그러면 난 가겠수다. 이런 괄시를 받고서야 어떻게 나원…….”

이북 삼촌이 푸르뎅뎅해서 벌떡 일어서는데 눈에서는 불꽃이 막 튀고 있었다.

“아니 영감, 이게 뭐 집인 줄 아우. 가만 앉아 계시우다!”

삼촌 어머님이 역지로 삼촌을 밀려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았다.

“이제 어디 술 좌석이우, 반동모임이지. 목이 날아나웨다…….”

보니깐 큰삼촌의 노기는 여기에서 오고 있었다. 술 좌석은 대번

에 스산해지고 말았다.

“형님, 좀 참으시우, 그래도 우린 손님이 아닙니까? 저 아저씨 말씀대로 이북이 너무한 건 있지 않습니까?”

“뭐야, 너도 우리 조선을 깔보는 거냐? 남조선은 뭐가 잘해서 미군을 불러다 6.25전쟁을 벌리고 지금까지 남조선을 통치하게 하냐. 그리구 뭐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다구? 침략자를 돋는 게 잘한 일이우? 동맹국이라구 나쁜 짓도 같이 해야 한다우? 우린 배 굽어도 남의 식민지 노릇은 안 해!”

덕수한테 해대지 못하던 분풀이가 그만 동생이 불을 지피는 바람에 확 하고 당기고 말았다.

“형님, 남을 욕할 게 뭐유? 백성들 배 굽기면서 핵무기는 무슨 핵무기유? 6.25를 봐도 미군이 먼저 불질렸소? 이북이 먼저 불질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가입한 거지요!”

“뭐 이북이 먼저 쳤다구? 남조선괴뢰도당이 먼저 전쟁을 도발 하구두.”

그만 두 삼촌은 다투기 시작했다. 6.25라는 이 민족의 원한이 아직도 그들의 맘속에 깊이 뿐리박고 있었던 것이다.

“손님, 이거 안됐습니다. 맹탕 모셔다놓고 불쾌하게 하셨구만요.” 촌장이 나서서 말렸다.

“아니, 좋은 음식 놔두고 얼굴 붉힐 게 뭔가요?”

나는 참다 못해 두 삼촌을 번갈아보며 불만을 토로했다. 두 삼촌은 성을 가라앉히느라고 씩씩거리며 가만 앉아 있었다.

그 후 아무리 내가 기분을 돋우려고 애를 썼지만 묵묵히 술만 마시는 두 삼촌 때문인지 좌석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나는 두 삼촌의 주량이 근심되어 이내 연회를 피하자고 재촉하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두 삼촌은 성이 가라앉지 않았다. 폭 취해 녹초가 된 것도 있겠지만 아까 있었던 불화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넌 오늘 무슨 말을 했니? 그래 6·25는 우리가 먼저 불질 했다구?”

큰삼촌은 또다시 걸고 듣다.

“아니, 형님, 그럼 6·25는 우리가 먼저 손댔단 말이우?”

“그럼 네놈들이 아니면 누구냐?! 미제와 결탁해서 우리를 치고 도 지금은 뭘…….”

“형님, 역사는 왜곡할 수 없습니다!”

두 삼촌은 또다시 얼굴이 벌개서 다투기 시작했다. 내가 아무리 말리려고 서둘렀지만 취한 그이들한테는 나의 말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큰삼촌,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또 보자요 예.”

“흥, 네놈도 다 같은 놈이야! 오늘이 무슨 자리냐? 영? 반동 모임이지? 함부로 우리 공화국을 모욕해! 넌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해!”

삼촌이 다시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이의 욕지거리에는 또한 그 어떤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한국 삼촌은 중국에 투자할 생각인데 고찰해보겠노라고 얼버무리고 연길로 떠나갔다. 고찰도 고찰이겠지만 큰형님과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속 시원히 밖에 나

가서 바람이나 씌며 흥분된 정서를 가라앉혀보려는 한국 삼촌의 심사를 나는 알 수가 있었다.

아무리 고찰입네 하고 충분한 이유를 대고 나갔지만 이북 삼촌은 속이 편할 리 만무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한국 삼촌이 돌아오지 않자 이북 삼촌 또한 뱉어 옥 했던지 어느 하루 아침엔 나를 보고 정중하게 제기했다.

“내일로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니 그리 알고 준비해달라!”

“아니, 이제 반 달도 안 되는데 돌아가시겠어요? 왔던 김에 오래 계시다가 가셔야 할게 아니에요.”

“실컷 놀았다. 조국은 아직 동강나 있지 않니? 이제는 아직도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들번들 놀아서는 되겠나?”

큰삼촌의 표정으로 보아 이건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래도 둘째삼촌이 돌아온 다음에 가셔도 가셔야 할 게 아닙니까?”

“하긴 그렇다면…….”

그래도 형제가 다르기는 다른가보다. 아무리 낯을 붉히고 헤어졌지만 진작 떠나자고 하니 자연히 동생 생각부터 앞서는가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둘째삼촌의 소식은 전혀 없었다. 아마 투자를 하자니 매우 바쁜 모양이다. 원래부터 무슨 일을 하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중국 사람들의 본성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덕수가 문에 들어서면서 큰소리로 떠들었다.

“형님, 술 한잔 주우! 나 오늘 뭐 잔 했다우!”

꼴을 보니 또 어디 가서 잔뜩 술을 퍼마신 모양이다. 한국 갔다온 다음에는 그까짓 일년 뼈빠지게 농사 지어봤자 한국에서 하루 일하는 것보다 못하다며 매일 한국에 나갈 생각만 하면서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는 덕수였다.

“형님, 나 오늘 어디에 갔댔는지 아오? 연길 가라오케에 갔댔소 가라오케말이오, 형님, 가봤소? 형님은 돈이 없어 못 가지…… 이 북 손님은 더 말할 것 없구…… 억…… 근데 형님, 나 오늘 가라오케에서 이 집 한국 손님 봤다니깐. 새파란 계집 껴안고 수작하는데 제법이더군. 하하…… 그래서 나도 계집 하나 불렀더니 고개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나원…….”

큰삼촌의 눈이 꽂꽃해졌다.

“이북 손님, 왜 이렇게 날 쳐다봅니까? 중국에는 돈만 있으면 다라구유. 하하…… 고놈의 계집애 응응, 싫습니다 하는 게…….”

덕수가 떠나간 다음에도 큰삼촌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삼촌, 달리 생각 마세요. 중궁에는 이젠 그렇게 된걸요.”

“지금 보니 난 네 둘째삼촌과는 편편 딴 세상 사람이구나. 자본주의 동생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삼촌, 그래도 형제가 형제지,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해서 형제가 남아 되겠습니까?”

“사람은 계급 선을 못 벗어나느니라……. 애야, 사실 말이지 내가 형제 정이 너무 그리워서 온 게지 아니면 감히 오겠냐? 내가 중국에 와서 한국 동생을 몰래 만나본 일이 탄로되는 날이면 어떤 후과가 차례지는지 넌 모를 게다. 그런데 정작 동생이라고 만나니

실망밖에 없구나.”

큰삼촌은 풀풀 한숨을 내쉬며 내일은 꼭 조국으로 돌아 갈 테니 꼭 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다. 이튿날 억지로 삼촌을 놀려 앉히고 은행에 가서 대부금 2,000원을 내와 재봉침, 자전거, 흑백 텔레비전 등을 샀다.

비록 아내가 자꾸만 돈만 꾸어 쓰면 앞으로 무엇으로 갚겠는가고 바가지를 긁었지만 못사는 큰삼촌을 너무 섭섭하게 보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약간 허리끈을 조여매면 이북 손님들이 돌아가서 몇 년을 잘살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날 밤을 자고 나서 나는 삼촌과 삼촌 어머님을 모시고 도문으로 향했다. 그날 따라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어 날씨는 어둠침침했다. 그래도 사전에 산 짐을 기차로 부쳤기에 가벼운 몸으로 떠날 수가 있었다. 사지 못한 것이 쌀이지만 도문에 가서 사도 충분하기에 돈만 넉넉히 가지고 가면 그만이었다.

도문에 도착하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내일로 미루자고 내가 거듭 만류했지만 삼촌은 기어이 고집을 부렸다.

세관검사를 마치고 짐을 부치고 난 다음 우리는 세관 대합실에서 비 몇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은 눈물이 글썽해서 나를 외면해 서 있었고 삼촌 어머님은 벌써부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삼촌, 섭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명년에 다시 편지할 테니 그때 다시 오셔요 꼭 잘 해드릴 게요!”

“조카, 고맙네. 자네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네. 그저 혁명 사업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급히 떠나니 달리 생각 말게!”

그렇게도 억수로 퍼붓던 소나기가 어느새 뚝 멎으며 햇빛이 쟁쟁 내리쬐고 있었다. 큰삼촌은 나와 악수를 마치고 나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다.

“수고했네. 조카…… 흑흑…….”

삼촌 어머님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삼촌 뒤를 따라 총총히 떠났다.

삼촌과 삼촌 어머님이 다리 목에 오르려 할 때였다.

“형님!”

목 메인 소리가 저쪽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한국 삼촌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그 뒤로 나의 아내가 따르고 있었다.

“형님! 왜 벌써 떠나우?”

“엉…… 석진아…….”

두 삼촌의 네 손이 한데 엉켰다. 둘째삼촌은 물참봉이 되어 있었다. 나의 아내한테서 소식을 듣고 비를 맞으며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형님, 내가 잘못했소 날 욕하오!”

“아니, 석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옹졸했어!”

“아니오! 형님, 제가 너무 버릇없었어요!”

“석진아!”

“형님!”

드디어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의 아내도 쉽게 흐느끼고 있는 삼촌 어머님을 부축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나도 어느새 눈앞이 부옇게 흐려져 왔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자책, 더

많은 눈물이 수요되었다.

정말 세관수속만 마치지 않았다면 큰삼촌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세관 일꾼들이 재촉하여 큰삼촌과 삼촌 어머님은 다리에 올라섰다.

“형님! 명년에 다시 만납시다요!”

멀어져 가는 큰삼촌과 삼촌 어머님의 등에 대고 한국 삼촌이 고함을 질렀다.

“명년에 꼭 다시 만나자!”

“명년에 서울에서 만나자요!”

한국 삼촌이 두 손을 나팔형을 해가지고 외쳤다.

“명년에 평양에서 만나자!”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큰삼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땐 나도 갈게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외쳤다.

두문강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출렁출렁 노래하며 흐르고 훈훈한 바람은 속삭이며 불어오고 있었다.

큰삼촌네가 다리 목에서 내려 사라진 지가 떡이나 지났지만 나와 한국 삼촌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다리 위만 명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느새 칠색 무지개가 둥그렇게 비껴 있었다. 비온 뒤의 무지개는 더욱 아름다웠다.

작은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왔던 희미한 석양빛이 스멀스멀 벽 속으로 찾아들자 방안은 금세 어두워졌다. 텔레비전에서 훌러 나온 빛 때문인지 모로 누운 노파의 주름 깊은 얼굴은 마치 먹으로 찍은 판화의 유령처럼 보였다.

나는 섬뜩한 마음이 들어 기저귀를 개다 말고 노파를 불렀다.
“어머니…….”

노파는 대답 대신 손으로 이불을 가슴 쪽으로 끌어 올렸다. 그녀는 아직도 문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문어 다리는 짜고 달고 구수한 맛이 가시고 더 이상 아무 맛도 나지 않을 텐데 그녀는 무턱대고 문어 다리를 씹고 있었다. 반 년 전부터 젊은이처럼 왕성한 이상식욕을 내면서 배설이 잦아졌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먹는 것에 탐닉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가 반신불수가 되고부터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는 일은 오로지 먹고 자고 욕하고 배설하는 일 뿐이었다. (최근 몇 달은 그 혐오스러운 벽화 그리기에 열중했다.) 나말고는 듣는 이도 없는 옛날 고리짝 같은 이야기들을 녹음기처럼 뇌이며 이미 서버린 당신의

손목시계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곤 했다.

“열두 시 반이네. 내 시계도 열두 시 반이고 저 시계도 열두 시 반이다.”

노파는 어두워져서 이미 보이지 않는 벽시계가 걸린 쪽을 또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언젠가부터 그녀의 시계는 열두 시 반에서 정지한 채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처음 시계를 잘못 읽었을 때는 바르게 가르쳐주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어차피 그녀에게 시간이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쪽을 영감쟁이야! 낮에 산에서 실컷 놀았으면 밤에는 집에 와서 자거라. 날마다 극장 패처럼 놀기나 좋아하고 술집 계집 끼고 자지 않으면 춘심이 집에나 들어 박혔고……. 그년이 그렇게 좋으면 날 민적이나 파내 주자. 네깐 놈 아니라도 날 좋다는 놈 새고도 쌌다. 내 이가 놈 집에 시집와서 새 색시 놀이 한번 못해보고 병신만 됐다.”

노파는 물고 있던 문어 다리를 입에서 빼내 들고 문득 생각 난 듯 갑자기 소리쳤다.

“무슨 짓거리 한다고 여태 안 오누……. 내사 자식을 열을 낳았어도 시어미는 산구완 한번 해주지 않았지. 아이 낳고 사흘 만에 밖에 나가 얼음 깨어 기저귀 뺀고 밥 해 먹었다. 산후 몸조리 한 적이 없으니 몸이 어떻게 됐겠나. 졸쌀 한 흡도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열여섯 살 새 색시가 양식 구하려고 철둑길을 온종 일 혜매며 시커먼 재 덮어쓰고 꼭수(석탄)를 주워다 팔지 않았겠나. 쌀 뒷박 사서 집에 오면 얼굴은 인도쟁이같이 시꺼멓고 저녁은 늦어 허둥지둥 해도 시어미는 담뱃대만 물고 앉아 있었지. 서

둘러 세수하고 우데나 구라분 바르고 지은 밥상 들고 들어가면 시어미는 문둥이 썩는 냄새난다고 밥상을 월칵 밀어붙였지. 밥사발은 엎어지고 찬그릇은 텅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쏟아진 상 거둬쓰레기통에 넣고 돌아서면 사내 호릴 궁리만 한다고 고래 같은 고함이 집을 쟁쟁 울렸지. 내 서러움에 겨워 숨죽여 울고 있으면 청승스런 울음 운다고 욕은 또 얼마나 뒤질 나게 먹었던지. 입이 합죽한 할망탕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아웃에서 며느리 구박한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다…….”

노파는 다시 문어 다리를 입으로 넣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이런 식으로 그녀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한 시절 이야기나 시집살이 이야기나 죽은 자 오랜 영감 욕을 해댔다. 젊은 시절 한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맘이 몹시 상했던지 영감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뿐 드득 같았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추억은 오직 남편이 바람피운 것만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일 말고는 그녀는 하루 종일 내게 먹을 것만 청했다.

“내가 뉘 집 악을 덮어쓰고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 이건 시집온니 탓이다.”

처음 노파가 그런 말을 꼬집어냈을 때 나는 그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해주어야 할 일(세수, 양치질, 머리 빗기기, 옷 갈아 입하기, 식사시키기 등등)을 가끔 바빠서 꼼꼼히 챙겨주지 않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내게 퍼부어댔다.

“내가 처음부터 병신이었더냐? 내가 수족을 쓰지 못하니 며느리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아이고 억울해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다니. 아이고 아이고.”

노파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텅탕 내리치며 울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수치감으로 몸을 떨며 어쩔 줄 몰라했다. 노파의 말인즉 내가 그녀의 반 수족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아무것도 그녀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노파는 나를 미워하며 당신 병을 내 탓으로 돌리곤 했다. 내가 걷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빨래를 꼼꼼하게 빠는 것조차 트집을 잡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도 알 수 없는 생사람을 때려 누이는 마력이 내게 있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이것이 벗을 수 없는 명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한 처음 삼 년간은 초상집에 온 느낌으로 세월을 보냈다. 노파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눈물과 통곡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음 삼 년은 그녀 자신의 실수로 골반 뼈를 부수고 대수술을 하고 난 뒤 침대 위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누워 있게 되었다. 그 절망적인 사건은 짓기는커녕 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닫아 버렸다. 부지런하고 성깔이 대단한 양반이 그렇게 하릴없이 누워 있자니 울화가 치밀기도 했을 것이다. 간헐적이게 그녀가 토해내듯 던지던 욕지거리들은 내가 가장 견디기도 힘들었던 것이었다.

그 다음 삼 년은 그녀의 멀쩡하던 남편이 세상을 버리는 바람에 그녀의 신세한탄은 끝장이 나고 말았다. 그녀는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녀 자신의 병 회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남편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녀는 알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어쨌든 그녀의 회복을 위하여 바친 나의 수고와 정성은 그 누

구도 알지 못했다. 끓인 약탕수를 세자면 어떻게 그것을 셀 수 있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바친 기도가 얼마인가.

이십 년 세월이 바람처럼 날아갔다. 내 감정은 애증으로 들쭉날쭉했지만 미움이 켜켜이 심층에 쌓여 있었다. 어쨌든 노파는 일어나지 못했고 비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랫동안 그녀의 시중을 들어왔다. 수발을 도와주던 형제도 세월이 흐르면서 무심해지고 품해지더니 마침내는 발길마저 끊었다. 어쩌다 맘 내켜 들르면 노파의 얼굴만 쳐다보고 훌쩍 가버렸다. 그래 나도 이제 지쳤다.

마침내 노파의 목구멍으로 문어 다리 넘어 가는 소리가 꿀꺽하고 들렸다.

“문어 다리 한 개 더 가져 와.”

“안 돼요 오늘 많이 드셨어요 더 드시면 안 돼요.”

“한 개 더 가져오라니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기저귀를 개켰다. 그런 거부 방법이 가장 확실했다. 노파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졸라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도 간파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긴 흘렀어. 옛날엔 어립도 없는 짓이지. 코도 마음대로 훌쩍거릴 수 없는 미움을 샀으니까.’

나는 기저귀 개는 일이 끝나면 노파의 낡은 반다지 위의 문어를 감추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텔레비전의 아나운서가 코 메인 목소리로 독감 주의보를 전하고 있었다. 폐렴 합병증이 무서운 신종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행성 독감이 시작되고 난 뒤 환자의 칠십 퍼센트가 이미

사망한 치명적인 새로운 병의 뉴스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그 외 뉴스는 난장판 정치와 돈에 눈먼 세상 소식 일색이다.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유행병 소식이 오히려 무공해한 소식이라니까.’

나는 리모트 컨트롤로 채널을 바꾸고 텔레비전 소리를 완전히 죽였다. 더러운 시궁창 냄새나는 세상 소리가 지겨워졌다. 문어 다리를 체념한 노파는 풀죽은 얼굴로 소리를 완전히 죽인 텔레비전을 쳐다보았다.

“왜 바꿔? 시어미 텔레비죤 보는 게 눈꼴이 시어?”

노파는 거절당한 문어다리 때문인지 심드렁하고 부아 돋은 말을 내게 뱉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째서 끝까지 나를 그렇게 벼랑으로 내 모세요. 이제 이십여 년 세월이 갔어요. 미움도 삭을 시간이 벌써 지나간 것 아녜요?”

나는 노파에게 눈을 훌기며 채널을 뒤틀려 놓고 다시 기저귀를 갤다. 기저귀를 개는 메마른 손이 천에서 일어나는 먼지로 가시가 돋았다. 손이 천을 뜯었다. 잣 사십 넘은 여자의 손이 너무 거칠다. 침을 손바닥에 탁 뱉어 손을 측이고 텔레비전을 쳐다보며 기저귀의 귀를 맞춘다. 노파의 못마땅한 시선이 내게 잠시 머물렀다. 참 더러운 팔자다.

소리를 죽인 텔레비전은 무성 영화나 마찬가지였다. 배우들은 무슨 말인지 입을 벌리고 지껄이고 있었다. 그들의 발 아래 한 여자의 주검이 엎드려져 있었다. 그들은 여자를 벌렁 들어 바로 눕

하고 그 중의 한 남자가 여자의 배를 급하게 타고 앉아 가슴팍을 두 손바닥으로 콕콕 다급하게 눌러댔다. 여자의 얼굴이 크게 화면에 나타났다. 푸르뎅뎅한 여자의 얼굴은 어쩐지 가망이 없어 보였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아’ 하고 부르짖었다.

눈과 코와 이마가 그 여자와 흡사했다. 일년 전 세 번째로 죽은 노파의 수다스러운 간병인 아주머니도 이마에 흥터가 있었다. 바람피우던 남편이 던진 재떨이에 맞아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열 바늘이나 꿰맸다면 여자는 남편 끌이 보기 싫어 집을 등지고 나와 이곳에서 일여 년을 일하다 죽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마흔여섯이면 아직 한창 살 나이였다. 남편의 바람기만 아니면 착실히 살림만 할 여자였는데 수십 일이나 집을 비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이판사판 남편 떡을 쥐고 달려들어 집을 쏙 대밭으로 만들었다. 여자는 욕지거리와 난투극만 남은 집을 보파리를 싸서 나오며 몰래 들고 나온 남자의 신발을 개천에 던지고 악담을 퍼부었다.

‘아놈아, 걸레 같은 년 끼고 너 죽을 때까지 더러운 개천이나 해매고 다니다 뛰쳐라.’

그녀는 남편에게 악담 퍼붓는 것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여기 오고서는 노파와 상소리를 해가며 서로 당신들을 배반했던 남자들을 난도질하고 색 짙은 말들로 깔아뭉개면서 나날을 보냈다.

그날도 아침거리 악담을 실컷 한 여자는 다른 때보다 일찍 노파를 휠체어에 태웠다. 늘 하던 대로 어린이 놀이동산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운동을 하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다 그녀는 갑자기 쓰러

졌다. 요행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목격이 되어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그게 끝이었다.

그 간병인의 죽음이 한동안 우리의 골칫거리가 되긴 했지만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수습이 되었다. 간병인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 빚 때문에 아직도 남편은 외지에서 일하고 있고 몇 달에 한번 또는 두 번 잠시 집으로 들르곤 했다. 그는 건설 회사를 따라 다니며 철골 공사를 했다. 간병인과 노파 때문에 남편은 철새가 되었단 것이다.

어쨌든 들어오는 간병인마다 얼마 있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바람에 기가 드센 집이라고 소문이 파다했다. 더 이상 간병인을 두지 못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입들은 빠르고 방정맞아 벌써 다음 희생자가 누구일 것이라고 공공연히 쑥덕거렸다.

‘이번엔 할머니의 머느리 차례가 된 거야’

‘뭐 내 차례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였다. 나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당장 내가 다시 감당해야 할 비위 틀리는 일들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것도 얼마간 손을 쉬었다고 생경해진 간병 일을 두고 선천적이게 비위 약한 나를 나는 스스로 원망했다.

노파는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배설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코를 싸고 기저귀를 갈아 채워야 했다. 노파가 풍기는 악취와 비례해서 내 가슴속에는 날이 선 증오심이 고기비늘처럼 시퍼렇게 일어났다. 젊은 시절에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조금씩 힘들어지더니 언젠가부터 벅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꼭꼭 감추고 절제되었던 감

정들이 들쭉날쭉 시시때때로 내 이성을 누르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특히 노파에게 예민해지는 내 감정 수위 조절은 고장 난 풍향기처럼 마음대로 돌았다. 오물로 아침을 열고 배설물 닦는 일로 하루를 달는 나날들이 넌덜머리나는 삶으로 변해 있었다.

노파는 잠깐이라도 진자리에 누워 있으려 하지 않았다. 종종 식사 때면 노파는 나를 소리쳐 부르곤 했다.

‘나 뚝 놋아.’

비위가 상해서 나는 심한 구토를 했다. 풍 기저귀를 갈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유 없이 나날이 야위어 가고 자주 드러누웠지만 비위가 약한 것말고는 이렇다 할 병은 없었다. 간병인을 들어게 된 동기는 그러했고 신병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 어쩌면 사람들의 입방아가 맞아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녹녹하게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다짐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의 배우는 간병인처럼 소생되지 않고 배웃에 쌌여 관에 넣어지고 있었다.

이미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전등을 켰다. 차곡차곡 갠 기저귀를 노파의 머리맡에 놓고 시계를 보았다. 남편이 오겠다고 한 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다. 거울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얼굴에 바른 지분이 들떠서 마른버짐처럼 표피로 솟아올라 있었다. 나는 다시 얼굴에다 분을 덧칠하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초로의 여자가 피곤한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마흔셋에 저렇게 늙다리가 되다니. 서둘러 서랍에서 새빨간 립스틱을 찾아서 발랐다.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늙은 매춘부

같다. 어둑한 실내등 아래서 이를 드러내고 나는 매춘부처럼 웃었다. 그리고 뒷물을 했다. 남편은 곧 돌아올 것이다.

작은 창으로 푸르스름한 달빛이 흘러들고 있었다. 나는 졸음을 털어내듯 일어섰다. 남편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에서 네 시간이 지나 있었다. 노파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다. 노파의 방에서 지독한 배설물 냄새가 났다. 불을 켰을 때 노파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서 또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노래 아닌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녀는 오물을 꺼내 방안을 휘저어 놓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 까지 솟구쳤다. 아불을 거세게 빼앗듯 젖혀 버렸다. 구린내가 온 방안에 진동했다. 오늘만 해도 벌써 다섯 번째가 아닌가 말이다. 천둥같이 소리를 지르지만 노파는 듣지도 상관하지도 않았다. 노기가 메스꺼움으로 바뀐다. 구토가 시작된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린다. 토악질과 함께 창자를 끌어내는 고통이 왔다.

‘끄악 끄악.’

빈속이라 올라오는 건 타액뿐이었다. 극에 가까운 증오심이 발동한다. 노기가 머리끝까지 오른다. 이건 극기 시험이나 마찬가지다. 성깔대로 하자면 모든 것을 엎어 치우고 싶다. 생각이 뒤죽박죽이 된다. 토악질은 이성도 감성도 마비시켰다. 망령이 나면 한 걸같이 치부 쪽으로 손을 넣는 것은 원죄 때문일까? 사타구니로 손을 넣지 못하게 할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구토의 후유증으로 몸이 나른해졌다. 식은땀이 머리와 등골로 배어 나왔고 주저앉은 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음침한 냉기가 올라왔다. 토악질의 고통 때문에 한동안 널브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양동이에 물을 받고 마스크를 껴냈다. 화학전에 투입된 군인처럼 나는 조심해서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의 손을 물로 씻고 옷을 벗겨냈다. 요의 훌청에는 아직 비누 냄새가 났다. 이불들을 모두 걷어낸 뒤 벽에 바른 오물을 젖은 수세미로 지워 냈다. 벽지를 바르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손을 움직였다. 마스크가 입김으로 축축해졌다. 코와 입이 젖었다. 늘 하는 일인데도 갑갑함으로 숨통이 막혔다.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었다.

다시 새 물을 바꾸기 위해 화장실로 양동이를 들고 갔다. 마스크를 벗었다. 기분 나쁜 축축한 찬 공기가 코와 입 언저리로 끼쳐들었다. 반 양동이의 물이 엄청난 무게로 팔을 당겼다. 노파는 언제까지 나를 이런 일로 괴롭힐까? 양동이의 물을 던져 버리고 싶은 맘을 꾹 참는다. 노파의 악쓰는 고함소리가 머리를 흔든다.

“너 이년 망할 년아, 니 예미 애비가 가르치더냐. 엄동설한에 나를 얼어죽으라고 저년이 이불을 모두 걷어 갔네. 옷 가져오너라. 이년아. 그게 니 옷이냐?”

들고 간 물 양동이를 노파의 곁에 놓았다. 거칠게 사타구니에서 오물을 닦아내고 기저귀를 채운다. 노파의 욕설은 그치지 않는다.

“시부랄년. 그래 이년아 날 얼려 죽여라 이년아. 동네 사람들아 이년 좀 보소. 이년이 날 죽이려 하네.”

이상한 건 정신없는 노파에게 가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중풍으로 이십여 년을 누운 병자였다. 오로지 먹고 싸고 자고 뚝 칠하는 것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노인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 가증스럽기도 했다.

그것은 어쩌면 노파가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도 모른다. 그녀는 젊어지는 샘물을 마셨는지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는지 새로 검은머리가 돋아나고 눈이 밝아졌다. 볼의 홍조가 분꽃처럼 되살아나고 이빨은 말뚝처럼 튼튼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오로지 병세였다. 내가 가장 바라는 병세의 호전만 알토란처럼 쓱 빼고 병세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노파는 많이 먹고 더 많이 배설했다. 나를 최악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일과 노파가 극도로 미워지는 일들이 불규칙하고 빈번하게 일어났다. 노파는 이따금 먹은 것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뱉어 내놓곤 했다. 턱 밑과 옷 앞자락은 물론이고 노파의 전방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정말 내가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화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게다가 참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밥사발을 엎고 길길이 뛰어도 노파는 또 밥을 뱉어낸다는 사실이었다.

성게 알을 좋아하는 노파는 아들이 그런 것을 사다 들일 만치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 식사 때면 성게 타령이었다. 남편은 생활비를 줄여도 노파를 위해 비싼 성게 알을 사 왔다. 지난번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파는 어쩐 일인지 성게 알 얹어 먹인 밥을 또 뱉었다. 발작적으로 나는 밥사발을 엎고 내 머리 칼을 뜯으며 횡설수설 게거품을 물고 노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남편은 어이없어 멀거니 나를 바라보고 있더니 돌아서 나갔다. 휴가가 이틀이나 남아 있는데도 그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떠났다. 남편은 그 후로 돈만 부치고 돌아오지 않았다.

회의감이 왔다. 노파 때문에 생기는 파란은 겉보기보다 심각했

다. 나의 머리는 서리맞은 풀포기처럼 거칠어졌고 희어졌다. 피부는 마른 가랑잎처럼 가스랑거리고 메말랐다. 미움과 분노의 골이 깊어 내 젊음은 값싼 향기처럼 빠르게 날아갔다. 노파에게 터끌만 치의 동정심이나 인정이 내게 남아 있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가 말없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남편은 나에게 크나큰 짐을 지우고도 내가 불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육 개월 동안 소식 한번 전하지 않던 그가 삼일 전 느닷없이 전화를 했다. 다른 현장으로 옮기면서 집에 잠시 들를 것을 알려왔다.

지금 시계는 이미 밤 아홉 시를 넘어섰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펴붓던 노파는 힘이 빠졌는지 찡그린 채 몸을 잔뜩 구부리고 나를 노려보고 있다. 다른 요 이부 자리를 갈고 나서야 나는 노파의 방을 물러 나왔다.

‘썩어 자빠질 년, 폐병 들린 년처럼 천날 만날 입 가리개는 주동이에 붙여가지고’

내 뒤통수에다 대고 노파가 소리쳤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로 갔다. 뺨랫감을 목욕탕에 내동댕이 쳐놓고 화장실 문을 쾅하고 닫았다.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이 됐다.

‘도대체 이게 뭐야. 생각해봐 내 인생이 이딴 일로 다 훌러갔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아십여 년이 적은 세월이야? 나도 처음부터 발작이 있은 것은 아니잖아. 내가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보라구. 그래, 오기 싫

으면 오지 않아도 돼. 나도 기다리지 않을 거야.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좁은 베란다 창문 앞에서 달을 쳐다보며 나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아침부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더니 밤이 되자 칼 같은 바람이 불었다. 집안은 냉기 때문에 코가 시렸다. 서민용 연립 주택의 난방 시설은 형편없는데다 기름이 비싸 보일라도 맘대로 켤 수 없었다. 노파는 방에다 군불 넣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마루 밑에 패어놓은 장작이 있는데 저년이 계을러서 불을 때지 않는구만. 죽으면 썩어질 몸, 아겼다 무슨 지랄할라고.’

노파는 과거와 중첩된 시간을 살고 있었다. 지금 군불 넣는 집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끊임없는 불만과 내게 펴부어 대는 욕은 늘 내 곁을 떠날 줄 몰랐다. 전기장판의 스위치를 최고로 높게 올려놓고도 노파의 불평은 좀체 그치지 않았다. 하긴 예사로운 추위가 아니었다.

골목으로 바람이 채찍 휘두르는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몸에서 냉기가 빙빙 돌고 있었다. 이불 속에 누웠는데도 도무지 몸이 따뜻해오지 않았다.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혹한이라 하였지만 몸이 많이 망가진 것이었다. 겨울이면 아무리 꽁꽁 언 손발도 남편의 몸에 닿기만 하면 온기를 되찾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늘 몸이 절절 끓었다. 몸이 따뜻한 만큼 누구에게나 헌신적이었고 자상한 남편이었다. 노파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내인 나를 언제나 위로하고 불평 많은 노파의 비위를 맞추며 공경했다.

“우리도 늙고 병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당신은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나중에 늙어 복 받을 거야.”

낙천적인 성격 때문인지 남편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노파 때문에 철새가 되든지 기러기가 되든지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았다. 그런 성격의 남편이 육 개월 전 말없이 떠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의 발작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항상 감싸던 사람이 갑자기 봉동이를 든 격이었다.

‘이렇게 늦어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팔베개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늙대 기질을 가지고 있다구.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친구가 말했다.

“밖에서 떠돈 지 얼마나 됐지? 거의 삼 년! 가능성이 구십 퍼센트야.”

친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단정했다.

“애 뒤를 타봐. 틀림없이 여우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을걸.”

“정말 그럴까? 그럴 리는 없는데.”

“우둔한 것도 팔자라니까. 요즘 그런 것 조사해주는 곳이 천지에 늘렸어. 한번 의뢰해보라고 야! 요즘 말이 있잖아. 밤에 살 맞대고 잘 때는 남편이라도 밖에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 안 들어 봤어? 이런 맹추를 봤나. 너 구석기 시대 사람 아냐? 러브호텔이 낮에 더 붐빈다는 거 뭘 뜻하겠니.”

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완전히 얼이 빠졌다.

‘개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정말 그에게 여자가 생겼을까? 만약 여자와 함께 나타나거나 숨겨두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찾아가서 닦 뜯듯 뜯어버려야지. 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야. 나는 확 떠나버릴 거야. 여기 무슨 미련이 있다고, 날마다 노인네 뚉이나 주무르고 앓아서. 그래, 이 모든 원인은 저 노인네 때문이야.’

그 뒤 나는 자주 나의 천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노파가 몰고 온 모든 일들을 저주하며 남편이 밖을 떠도는 것도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것도 살림살이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마저도 노파 때문이라고 떠들고 있었다. 허나 지금은 노파가 벽에 뚩칠만 하지 않는대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먹은 것을 뺏어내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어도 만족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노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든지 내가 하루 종일 노파를 지키고 있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불가능해 보였다.

노파는 결코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고 나도 진종일 앓아서 노파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그 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했다. 바지를 입히고 허리에 바를 매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노파는 여전히 냄새나는 그림을 그렸다. 상의와 하의를 맞붙여 단추를 달았다. 바짓가랑이를 좁히고 바지를 허벅지 위로 끌어올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손을 넣을 수 있는 모든 입구나 가능성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번번이 노파는 나의 노력을 바웃듯 손가락으로 오물을 껴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어. 귀신이야 귀신.”

죽은 간병인이 말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른다. 귀신이 씌워서 하는 짓인지도 모른다. 잡을 수 있다면 잡아서 그 귀신의 목을 비틀어 주고 싶다. 노파의 이불과 옷에 묻었던 오물이 밤새 찰거며 리처럼 달라붙어 나를 괴롭혔다.

남편은 끝내 소식이 없다.

이미 밤은 너무 깊었다. 눈에 갇힌 것일까? 그가 가 있는 지역에 유례없는 폭설이 내린 것을 저녁 뉴스에서 들었다. 잠을 자야겠는데 하릴없는 생각들이 잠을 방해한다. 오물들이 추위에 말라 버리면 더 씻기 힘들어질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기보다 걱정거리로 없애는 것이 더 유익했다. 두터운 허드레 바지를 껴입으며 작은 창문을 내려다본다.

길은 달빛으로 창백하고 메말라 보였다. 밤이 깊어선지 사람은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금방이라도 추위에 꺼질 것같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의 이층집 창문의 불이 환했다. 젊은 부부가 창문에 커튼도 치지 않고 이렇게 추운 날 밤늦은 정사를 벌리고 있었다. 나는 관음증 환자처럼 어두운 창문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엉겨붙어 열중해 있었다. 여자는 머리를 훌트리고 엎어져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희고 살집 좋은 몸뚱이를 이루만지고 있었다. 군침이 입안에 가득 고였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들의 섹스는 적나라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차갑던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자가 입을 쩍 벌리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가랑이를 벌리고 그 위로 다시 펼쳐 엎어졌다. 그들은 밤을 꼬박 새울

심산인 것 같았다. 음탕하게도 나는 자석에 끌린 쇠붙이처럼 오래 창문을 떠나지 못했다. 몸이 열탕처럼 끓어올랐다.

욕탕에다 물을 틀어놓고 빨랫감을 담갔다. 그러면서도 나는 몇 번을 창문으로 드나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었다. 마침내 껴입었던 옷을 훌딱 벗어 던지고 내의 바람으로 빨래를 시작했다. 힘껏 빨래를 빨래판에다 문질러 물에서 흔들어내고 비누질을 했다.

“벌어먹을 것들.”

비누거품이 대야에 넘쳐났다. 그 많은 빨래거리를 씻고 또 씻었다. 이마에 팜방울이 송글송글 솟아나 눈 위와 관자놀이로 흘러내렸다. 몸에서도 땀이 배이나 속옷이 놋눅해졌다. 눈앞을 가로막던 젊은 부부의 마술 같은 섹스 장면이 비누거품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 나가고 있었다. 텔북승이 남자 성기가 거품같이 부풀어올랐다가 푹 하고 꺼졌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갈증과 심한 오한 때문에 눈을 떴다. 벽의 시계가 여덟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문으로 가냘픈 일광이 들어와 있었다. 머리가 지끈지끈 했고 온몸이 흠씬 맛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다. ‘무리했구나’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릿발 같은 오한 때문에 ‘으흐흐’ 하고 나는 신음을 했다. 벽장에서 이불을 더 꺼내 덮고 싶었으나 몸을 도무지 일으킬 수 없었다. 새우처럼 몸이 오그라들었다. 목도 탔다. 뜨거운 모래알을 한 줌 삼킨 듯 목안이 따가웠다.

‘누가 날 물 한 컵만 가져다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 나는 소리치고 있었지만 맘으로만 그럴 뿐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뱃속이 텅 비었는지 허기가 뱃속을
핥퀴었다. 어제 저녁 노파의 벽화 소란으로 저녁을 걸러버린 것이
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한기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불이 더 필요했
다. 벽을 의지해 겨우 일어섰으나 나는 곧 쓰러지고 말았다. 모든
기운을 뺄래 씻는 것에 소진시킨 것이었다. 천장이 팽이처럼 빙그
르르 돌았다. 메스꺼움이 올라오고 전립이 갑자기 솟았다.

‘어머니…….’

가물가물 희미해져 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나는 나의 발이 강기슭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길은 강 쪽으로 뻗어 있었다. 나는 샛노란 저고리에 옆두 폭 빨
간 치마를 떨쳐입고 풀들이 드문드문 나 있는 들길을 따라 혼자
타박타박 강가로 향해 걷고 있었다. 멀리 강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붉고 푸른 만장 같은 기를 휘날리며 그
들은 북을 등등 울리고 있었다.

‘환송 인파야.’

누군가 내 귀에다 속삭였다.

‘뭐라구? 환송이라고? 그들은 누구야? 내가 어디로 간다고?’

‘이번엔 네 차례니까! 갈 때가 왔어.’

‘내 차례?’

나는 영문을 모를 환송 인파 쪽으로 가고 있었다.

‘내 차례라?’

맞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왔다. 죽은 간병인이었다. 그녀
는 어깨에다 그녀의 바람난 남편의 신발을 걸어매고 있었다.

‘아주머니, 어디로 가세요?’

‘복망산 가는 길이야. 같이 가자.’

‘아녜요. 나는 강으로 가야 해요. 사람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가자니까.’

간병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휘어 쥐고 껴들었다.

‘안 돼요 사람 살려요.’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는 목안에서만 감돌 뿐 누구 한 사람 도와주려 오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줘요.’

나는 안간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안돼. 네년도 같이 가야 해. 이번엔 네 차례라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간병인은 내 머리칼을 쥐고 흔들며 냉혹하게 말했다. 그리고 머리끄덩이 쥔 손을 늦추는 일 없이 나를 질질 끌고 산으로 향해 갔다.

‘용서하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간병인이 절벽 끝에서 나를 아래로 밀어뜨렸다. 외마디 고함을 내지르며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진땀으로 몸이 젖어 있었고 부들부들 떨려왔다. 일어나려고 몸을 꿈틀거리는데 방바닥이 나를 힘껏 불들고 있었다. 겨우 팔을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그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나보다. 소문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정말 내가 죽을 차례가 됐나보다.’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내 몸엔 머리카락 한 올 들어올릴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천장이 노랬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뜨거

운 열이 온 몸을 휘감았다. 나는 다시 기진해져 정신을 잃었다.

‘이 계단은 끝도 없는 계단이구나.’

나는 돌계단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이제 다 왔으니 거기 서 있으라.’

누군가 나에게 명령했다. 사방은 안개에 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소리가 난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계단은 끝나 있었고 넓은 돌바닥 광장에 나는 홀로 서 있었다. 갑자기 내가 누워 있는 방문이 휙 하고 열렸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기척이 없다. 나는 누가 들어올 것인지 궁금하고 기다려졌다.

‘누구야, 얼른 들어오고 문 닫아. 나 추워.’

“너는 시어머니를 미워한 죄가 크다. 너의 증오는 극악에 가까웠으니라. 맞느냐?”

반 수족을 쓰지 못하는 노파가 반 수족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방문턱을 넘는다. 그녀의 손에는 흰 기저귀가 쥐어져 있다. 한 수족씩 옮길 때마다 그녀는 기저귀를 앞으로 먼저 밀어 놓는다. 힘겨워 보인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내 뒤크치가 제란처럼 곱다고 날 미워했습니다.”

“나 오줌 쌌어. 기저귀 갈아줘.”

노파가 기저귀를 들어 보인다. 그녀의 까만 머리가 유독 눈에 띈다. 그리고 거미줄보다 더 가늘어진 내 반백의 머리가 베개 위에 누워 있다. 나는 노파를 외면한다. 간병인이 다시 머리채를 쥐

고 흔든다. 나는 노파를 힘없이 바라본다.

‘당신은 아직 내가 미우니까 이 미친 여자를 내칠 수가 없으시죠.’

‘시어머니의 공평치 못한 질시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은 움직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이십 년이나 모셔왔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노파는 한쪽 팔을 지탱하여 계속해서 몸을 끌고 있다.

‘빌어먹겠다. 빌어먹겠어. 해가 하늘 뚫구녕 찌를 만치 올랐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네. 망할 년이 시에미 굶겨 죽일라고 작정을 했어.’

노파는 미친 간병인이 내 머리채를 쥐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욕설만 하고 있다. 노파가 이제 입을 다물고 나를 멀거니 바라본다. 나는 눈을 감는다.

‘말이 이십 년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질시만 아니었다면 저 여인은 수많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노파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고귀한 사랑이라고? 내가 고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림없다.’

강기슭 끝의 환송인파가 손을 흔든다. 북이 등등 울린다. 나는 간병인과 싸운다. 노파의 얼굴이 끼여든다. 기저귀를 높이 들어보인다. 그리고 벨어낸 밥들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널려 있다. 노파는 벽에 붙어 오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내 얼굴을 그

리고 있다.

‘여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거야.’

남편이 노파의 등을 어루만지며 내게 말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실천했다 하더라도 종오와 분심을 가지고 했다면 그 행위는 무위로 돌아가느니라. 그 죄가 중하니라.”

허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는 신인가? 그럼 내가 여태껏 해온 일은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사람들은 나에게 성인군자 같은 도를 실천하기를 강요하고 신 또한 나에게 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자.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뒤돌아본다. 괴로웠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던 삶이 빙긋 웃으며 손을 흔든다. 노파의 주름 깊은 얼굴이 눈물을 따라 주르르 떨어진다. 저 먼 안개 낀 강 끝으로 발길을 옮긴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다. 노파 때문에 한번도 살뜰히 돌보아 준 적 없는 아들을 바라본다. 아들은 어미를 껴안는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응어리진 핏빛 슬픔 한 텅어리가 목에 걸린다.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눈앞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들고 있던 작은 꽃가지를 내게 내민다.

‘이 꽃을 한 잎씩 따서 먹으세요. 종오를 이기고 분을 삭이는 약초지요. 이 길을 따라 가세요. 당신의 생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의 생사를 정하는 곳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편히 가세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두리번거리며 아들을 찾는다.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들아……’

허공으로 아들 부르는 내 목소리가 날아간다. 바람이 인다.

아주 깊은 높지에서 빠져 나온 듯한 나른함과 함께 눈을 떴다. 밝은 햇살 한 움큼이 넓은 문갑 모서리에 머물고 있었다. 얼마를 잤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문갑에 붙은 햇살이 겨울이면 오후 두 시쯤을 의미했다. 노파에게 끼니를 준 기억이 없었다. 화들짝 놀란다.

‘맙소사. 내가 왜 여태까지 잤을까? 노인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일어나려고 이불을 걷으려는데 팔이 빠근했다. 정맥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고 링거 줄이 머리맡 위로 늘어져 있었다.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다. 뺨래를 힘겹게 새벽녘까지 했었다. 심한 두통과 오한과 허기를 느꼈던 것을 생각해냈다.

노파 외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노파는 환자였다. 누군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남편이 돌아왔을 것이다. 나는 사방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발치에서 묵직한 무게를 느꼈을 뿐이었다. 나는 발로 그것을 밀어내려 했다. 뜻밖에도 그것은 조금 움직인 듯했다.

‘무엇이지?’

머리를 들고 확인하려는 순간 나는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노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당했다.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곳에 계세요?”

대답을 채 듣기 전에 밖에서 부산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열렸다. 남편과 아들이 건장한 남자 두 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남자들은 앰뷸런스용 들것을 들고 있었다. 아들과 남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니 노파에게로 갔다. 남편이 노파의 볼을 쓰다듬었다. 노파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볼의 홍조와 검은머리는 간 곳이 없고 늙고 병든 호호백발 노인이 내 발치에서 허리를 접은 채 누워 있었다. 곧 건장한 남자들이 노파를 안아 들것에 싣고 방을 나갔다. 남편이 들것을 따라 나갔다.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마침내 내게로 다가왔다. 혼란스러움으로 나는 명하니 들것이 나간 방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좀 괜찮으세요?”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된 거냐?”

“감기가 드셨어요. 이를을 꼬박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셨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이틀이나 간호하셨어요. 문어 다리로 연명하시면서요.”

눈앞이 흐려왔다. 봇물 터지듯 눈물이 솟구쳤다. 모든 사람들이 매듭 풀리듯 풀어져 나감을 보았다. 눈물이 볼을 흐를 때마다 눈이 점점 밝아왔다. 사라졌던 볼의 홍조가 다시 살아나고 반백이던 머리가 다시 검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방에 엎디어 어린 아이처럼 울었다.

“어머니…….”

“맞다. 그래이. 숙희야 내 두고 보그래이. 내 니 뒤따라 곧 간대 이.”

“그래 맞다. 작년에 내 아는 친구는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 지금 그 친구도 그기서 신랑 만나 진짜 잘산다 카드라.”

“맞다. 작년에도 내 아는 사람이 미국으로 돈벌려 간다고 했는데 지금 소식은 없지만 아마 돈 벼락 맞아서 즐거워서 아마 연락하는 것도 잊어버렸을 끼다.”

“부럽대이. 부럽대이.”

내일은 캐나다에 간다. 공장 친구들은 부러운 듯 그렇게 제각기 한마디씩 해댔다.

숙희

숙희, 본명 봉영숙, 모두가 그녀를 숙희라고 불렀다.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무용에 대한 꿈을 접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2남 4녀 속에서 둘째로 자란 숙희, 키는 150센티미터, 뚱뚱한 몸매, 그리고 넓은 얼굴에 상기된 얼굴. 그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결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매일 집에 오면 소주에 절어 들어오는 아버지, 가난에 너무 힘겨워하며 날품팔이를 하는 어머니, 날이면 날마다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부족함을 느껴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형제들, 매일 아침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화장실도 식구가 많아 끝내 참고 참아 미싱공장까지 와서야 일을 보면 지난 4년의 생활들, 무용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하던 순간 재떨이를 던진 아버지. 야간중학교 졸업하는 것도 눈물겹게 힘들었던 생활, 그래도 밝은 성격 탓에 제법 친

구들이 많았던 숙희, 아! 이 밤이 가면 그토록 원했던 캐나다에 이민을 간다. 생각하니 그 동안 이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오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년 전 신문광고에서 우연히 않게 ‘캐나다 취업 이민’이라는 가로 3센티의 한 줄 광고에 그 길로 달려가 전화하고 캐나다 이민을 계획했다. 그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던 월급, 모든 것을 털어서 캐나다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다. 캐나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란 역시 캐나다 봉제 공장에 취업하는 일이었다. 가서 뭘 하든 여기 지긋지긋한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를 탈출하고 싶었던 숙희, 게다가 거기 가면 원래 하던 미싱 일을 할 수 있으니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쨌든 말로만 듣던 엄청난 큰 나라 캐나다, 코 크고 키 크고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질 않았다. 밤새도록 뒤척였다. 이제까지 받은 설움을 내일 싣는 비행기 안에서 화 다 날려보내리라 다짐했다. 소개시켜준 사람이 보여준 지도 속에 있던 넓은 땅 캐나다에 가기 만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왜 니 잠 안 오나. 왜 자꾸 뒤척거리노 내도 잠이 안 온대이. 니가 먼 곳으로 간다 카이 맘이 싱숭생숭하대이. 니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니 코 큰 사람들도 니 좋아할 끼다.”

“근데 니 어떻게 꼬부랑 말하노? 니 공부는 좀 했나? 나도 꼬부랑 말씨 들었는디 맹큐 맞다 맹큐하고 오케이 하믄 될 끼다.”

“아니다 무슨 맹큐하고 오케이만 하노? 그럼 배고플 때 밥달라고는 뭐라 카노?”

“글쎄, 그기 문제다. 배고플 때 뭐라 카노?”

“헝그리다.”

숙희는 언니의 고등학교 영어 사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몇 마디는 공부했었다. “헝그리? 맞대이 맞대이.”

“니 벌써 외국 사람 티난대이.”

“캐나다 가서도 우리 잊지 말고, 성공하믄 이 언니랑 엄마 아빠도 불러주그래이.”

“언니. 내 돈 많이 벌어 성공만 하믄 우리 식구 다 부를 테니 걱정 말그래이.”

캐나다 미싱공장

캐나다 밴쿠버에 오는 시간은 무척 길었다. 비행기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에 맘은 한껏 부풀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색색의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내는 꼭 성공할 끼다’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내는 꼭 성공할 끼다.”

공항에는 봉제 공장의 직원으로 보이는 한 코 큰 사람과 한국의 서울 어디 미싱공장에서 온 귀남 언니가 있었다.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반가웠다. 귀남 언니는 동두천 어디 미국인하고 결혼해서 캐나다에 2년 전 이민을 왔다고 이야기했다. 남편이 군인이라는 이야기에 더욱 귀남 언니가 믿음직스러웠다. 이 넓은 나라에 나보다 더 먼저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 언니가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별처럼

부러웠다. 거기다 귀남 언니에게는 한국에서 일명 튀기라 불리는 혼혈아이들 금발머리 아이들 너무나 예쁜 팔 2명이 있었다. 지금 남편은 미국 군인 일 때문에 다시 잠시 미국에 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마음 독하게 먹어. 여기 일도 한국하고 만만치 않아. 그렇지만 여기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되고, 저녁 8시면 다들 퇴근할 수 있어. 한국처럼 늦은 밤까지 미싱일 안 해도 돼. 피곤할 테니 오늘은 이만 쉬어.”

미싱공장의 숙소에서 짐을 풀 숙회는 다음날 오후까지 잠을 잔 후 찾아온 귀남 언니와 함께 미싱공장을 들려보았다.

“여기는 흑인, 아랍인, 중국인들도 참 많아. 백인들도 있고. 판 건 필요없고, 그냥 눈치봐서 따라하면 되고, 낮 12시 되어 밥 먹는 거 같은 분위기면 따라 일어나 손 놓고 밥 먹고 여기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알았지? 나는 다음 달이면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 해. 남편한테 전화 왔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어.”

차르르, 차르르 그렇게 미싱을 돌리는 동안 얼마간의 돈이 모이고, 가끔 부산에 있는 언니와 동생들에게 편지를 쓰고, 숙소에 있는 중국인들과 되지 않는 몸짓 발짓으로 대화를 하며 세월이 흘러갔다. 못 알아듣는 텔레비전도 그냥 생각 없이 쳐다봤고, 텔레비전에서 얼마 전 상영해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감명깊게 본 것 외에 1년 내내 다른 일이 없었고, 여름 휴가도 없었다.

며칠 캐나다 독립일이라며 여름 한철 중국인들과 함께 근교의 공원에 다녀왔을 뿐이었다. 중국인들은 제 나라 말로 서로 막 떠

들고 이야기했다. 싸온 샌드위치를 집어주며 “먹어” 하는 말에 “고마워” 하는 짤막한 영어 대화가 고작 전부였다. 간혹 중국인 여자 누가 계약 위반을 하여 미싱공장에서 도망가다가 잡혀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거나 인도인 여자 누구가 누구와 결혼을 해서 잘산다 하는 이야기가 큰 화젯거리였다.

가끔 밴쿠버 시내에 나가 거리를 거닐거나 레스토랑에 들어가 콜라와 햄버거를 먹거나 차이나타운 한 곳에 들어가 딥섬을 먹거나 했다. 그때 음식을 날라주는 웨이트리스들은 한결같이 높게만 보였다. 그들은 시시콜콜 남자 손님들과 잡담을 하고 떠들었다. 그들이 너무 부러워졌다. 미싱질 안 하고 음식을 만들고 날라오는 모습.

그래도 한국에서는 으레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이고, 수다떨고, 없는 살림이지만 음식 마련하고 공장에서 번 돈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특선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울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정말 삫이 서러워졌다.

‘내 이렇게 외롭자고 여기 온 것 도 아닌데…… 아니다. 내 이렇게 나약하게 맘을 먹으면, 부모님과 언니들이 나를 우습게 알끼다.’

그래도 외로웠다. 겉잡을 수 없는 외로움과 거의 매일 빼곡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 부산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럽게 울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외롭고 고독함이 빼저리게 사무쳤다.

“내는 춤추고 싶었는데…….”

울어도 울어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미싱 일을 평생 되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러웠고, 한스러웠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밤이면 풀벌레 우는 소리에 더욱 처량해지고 눈물은 시도때도 없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있다가 너무 우울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런 일말고 다른 일이라도 하자면 계약기간이 10년인데 도망 가다 잡혀서 다시 한국으로 쫓겨 가느니 차라리 참자 생각도 했다. 차르르 차르르 미싱은 그렇게 2년 반을 넘기고 있었고, 불현듯 다가온 생각이 있었다.

‘도망가자! 그래 여기서 도망치는 기다. 계약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내가 이렇게 살다간 시집도 못 가고 미싱공장 귀신 될 꺼다.’

미싱공장에서 빠져 나올 생각을 하니 마음속 저편에 예전에 있었던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다.

‘영어 못 하믄 어여노 기냥 팽큐, 오케이 하고 죽었다 하믄, 누가 무시할 끼고 어차피 아래도 사는 인생 도망가다 잡히믄 그래, 부산에 돌아가믄 된다. 가서 그냥 옆집 갑동이와 결혼하믄 된다. 뭐, 밀갈 것 없다. 에이, 밀갈 것 하나도 없는 거다. 그래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자. 가자.’

숙희는 동료들의 눈을 피해 며칠간 짐을 쌌다. 몰래몰래 설사 누가 안다고 해도 여기서 자신을 고발할 동료는 아무도 없다. 월급날 다음날이었다. 이윽고 날이 밝아 점심 시간이 되었다. 마음은 바빴지만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동료들과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숙소로 달려왔다. 동료들에게 은행하고 우체국에 간다고 이야기했다. 어제가 월급날이었으니 고향에 돈과 편지를 부쳐야 한다고 이야기해놓았다.

일단 잘 개놓은 옷가지와 도구들을 옮 때 가져온 검정색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너무 비운 자리가 깨끗하지 않게 옷 한두 가지는 놔두고 와야만 했다. 심장박동수는 긴장한 만큼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밥 먹고,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그리고 짐을 싸들고 긴 팔의 검정색 옷으로 갈아입은 초여름날 미리 생각해놓은 문을 통해 잔결음을 통해 걷기 시작했다.

수위에게는 우체국에 고향에 부칠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가짜 봉투도 얼마 전에 써놓은 상태였다. 또한 은행에 들러 한국에 돈도 얼마간 부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장 문을 나선 숙희는 달리기 시작했다. 마구 달려 기차 안에 토론토행으로 몸을 실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무려 기차로 48시간 긴 시간의 여행에 몸을 실었다. 이제 미성질은 끝이 난 것이다.

도망

캐나다 토론토. 얼마나 지났을까. 이른 시간의 새벽에 어렴풋이 눈을 뜬 곳은 이미 토론토였다. 유니온 역에 도착한 숙희는 검정색 가방을 메고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 기차 안에서 제대로 먹지 못한 숙희는 몹시도 허기가 밀려왔다.

이른 아침 한 불빛에서 시내의 한 빵가게가 눈에 보였다. 무작정 왔으니 무작정 짐을 어느 곳에 풀고 살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아직은 문을 열지 않은 한 레스토랑에서 ‘HELP’

WANTED'라는 반가운 문구를 만났다. 문은 곧 열릴 것이며 되든 안 되든 나를 써달라고 애걸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길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대편 길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레스토랑이 문을 열기만 기다렸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자 시내 주변의 모든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열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안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갈색의 가구들과 깔끔히 놓여 있는 테이블 위의 은색 포크와 나이프들, 그 사이로 한 송이씩 꼽혀 있는 붉은색 장미.

“excuse me, excuse me?”

“How can I help you?”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백인이 나왔다.

“음~ 저.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숙희는 그 동안 보고들은 영어를 총 동원해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레스토랑에서 일해본 경험 있어요?”

백인이 물었다.

“아니오”

경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 백인은 미안하지만 숙희를 고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경험도 없고, 영어도 그다지 안 되는 조그만 동양인에게 함부로 일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어디서 왔느냐.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냐 하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숙희는 곧 이야기했다.

“여기서 일만 할 수 있다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먹여주고 잠잘 곳만 좀 마련해 주세요”

숙희는 애원했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인지 그 백인은 잠시 후 “이봐 좋아. 여기서 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돈은 주지 않고 지켜보겠어. 그리고 여기 근처에 모텔이 있으니 일단 거기서 잠을 청하고, 며칠 후 방 하나 렌트해봐. 여기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너무 바쁘니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숙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절을 했다. 오늘부터 다른 웨이트리스들과 함께 나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잘하면 나중에 돈을 줄지도 몰라 생각을 했다. 일단 팁도 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일이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주방장과 요리사가 도착에 점심을 부지런히 준비했다. 먼저 온 한 명의 웨이트리스에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한 영어를 빨리 배워 머릿속에 되뇌었다.

“저기 손님 오셨다.”

갑자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다가갔다.

“How can I help you?”

첫 번째 온 손님은 메뉴를 가리키며 콜라를 시켰다.

“thank you very much.”

손님을 향해 90도로 절을 했다. 처음 오더치고는 OK였다. 젊은 백인 웨이트리스는 숙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집어들었다. 팁도 1불이나 손에 쥐게 되었다. 운이 좋았을까. 눈치로 보낸 하루는 그

럭저럭 훌렸다. 재수좋은 날이었다. 백인 매니저는 숙희를 불렀다.

“이봐, 보기보단 괜찮은걸. 열심히 해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날이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웨이트리스가 된 것이다. 이젠 그 옛날의 미싱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다. 이튿날이었다. 모텔에서 피곤한 몸을 추스리고, 레스토랑에 나갔다. 점심시간이었다. 한 지긋한 나이의 백인 손님과 지긋한 나이의 백인 여자 손님이 메뉴판을 가리키지 않고, 무척 빠른 말로 무언가를 주문했다. ‘Beef’를 주로 오더하기 때문에 숙희는 눈치로 감잡아 소고기요리와 바베큐 소스를 들고 식탁으로 향했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이게 뭐냐고 따지는 순간 숙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치킨을 주문했는데 왜 소고기 요리냐고 물었다. 너무 당황한 숙희는 눈물이 나왔다.

“Sir.”

숙희는 식탁 옆에 무릎 앉음을 하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갈 데 없는 불쌍한 처지인데 어저께 여기 처음 일을 나왔습니다. 전 영어도 잘 못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갈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당황한 숙희의 솔직한 표정에 그 나이 지긋한 백인 노인도 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이 집의 소고기 요리는 일품이지.” 하면서 요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가면서 숙희를 불러 팁도 두둑하게 주어주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소리쳤다.

“이 집에 귀한 보물이 들어왔네. 바로 이 웨이트리스일세.”

그리고 큰소리로 웃으며 나갔다. 감동한 숙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숨죽였던 흐느낌을 마침내 엉엉거리며 크게 토해냈다. 화장실에서는 경쾌한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너무 고마운 그 백인 노인을 숙희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숙희의 사랑

웨이트리스의 생활은 너무 재미있었다. 이제 제법 영어도 능숙해져 손님이 없는 순간이면 다른 웨이트리스와 함께 큰소리로 웃고 떠들 수도 있었다. 일이 능숙해지니 손님들 비위맞추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어느덧 사장에게, 동료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새로 들어온 웨이트리스에게도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까지 했다. 주급도 2주 단위로 얼마씩 받게 되었고, 삶은 나름대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언니들에게

언니들, 잘 있었나? 오랜만에 편지 쓰자. 미안하대이. 그 동안 좀 바빴대이. 이제는 내도 이제 백인들이 사장인 곳에서 식당 종업원—숙희는 식당 종업원이라는 말을 지웠다—응, 레스토랑(여기서는 음식점을 레스토랑이라고 해)에서 매니저—언니들 매니저가 뭔지 아나? 매니저 하게 되었어—숙희는 다시 매니저라는 말을 지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솔직히 쓰기로 마음먹었다.

언니들, 나 여기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어. 미싱공장에서

일하다가 일이 지겨워 토론토로 도망 왔거든. 근데 미싱공장보다는 식당 종업원이 훨씬 즐거운 일 이야. 팁도 받고 (여기서 팁은 그 술집 여자들에게 주는 팁이 아니고, 으레 식당에서는 팁을 줘야 하는 게 일 이야.) 다른 백인 식당 종업원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즐 겁게 지내고 있어.

시내에 방을 하나 얻었는데 가격도 싸고 나 혼자 지내기는 딱 안성 맞춤이지. 언니와 형부들 다 잘 있나? 동생들은 아직도 그래 많이 짜 우나? 내 많이 보고 싶나? 그리고 부모님은 건강하시지? 다들 보고 싶 어. 옆집 미싱공장 미자는 잘 있나? 개 많이 보고 싶어했드라고 전해 주그래이. 선순 언니랑 미숙 언니랑 은자랑 다 보고 싶다. 나는 돈도 벌고 잘 지낸다고 전해주그래이. 언니들, 지난번에 여기로 이민 오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 조금만 기다리래이. 내사 조금 더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할게. 여기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맛있는 중국 음식 식당도 많대이.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국에서 오고 있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오고, 또 한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보다 아이들 교육 잘 키워보려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있어. 이삼 년만 기다리면 내 전부 초대할 끼다. 그럼 잘 있 그래이.

숙희는 하얀 종이를 바쁘게 채워나갔다. 삼단으로 접은 얇은 하얀 종이에 빼곡이 써넣은 편지 그리고 편지 봉투에 침을 발라 정성스레 봉했다.

“부산시 좌천동…….”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눈부신 주말 오후, 아! 인생은 즐거워. 숙희는 즐거워했다. 숙희의 얼굴에는 어느덧 예전의 명랑함과 활발함이 다시 찾아왔다. 발

그레하게 상기된 얼굴, 어쩐지 즐거운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주말 오후, 얼마 전 시내에서 샀던 빨간색 립스틱을 입술에 정성껏 발랐다. 이 두 해만 지나면 가족들을 이민 초청하리라 생각했다.

토론토 시내에는 한국인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숙희도 어느 정도 캐나다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화창한 봄날 숙희는 쇼핑을 갔다가 한 백화점 지하에 커피를 마시고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카키색 옷차림의 또 다른 한국인을 만났다. 그는 잔뜩 불만 섞인 목소리와 약간은 당황한 모습으로 커피가게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커피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듯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숙희는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이 자식이 커피값이 1불이라고 써놓았는데 1불 15센트라잖아요. 그리고 돈을 더 안 남겨 주잖아요.”

순간 숙희는 방긋이 웃음이 나왔다. 여기는 15%를 세금으로 떼요. 그래서 그래요.

“뭐 세금이오. 나 오래 살아봤지만 세금은 이런 커피값에는 안 내봤오. 참내.”

계산을 치르고 나오던 숙희는 그의 순진함과 박력있는 남자다움에 은근한 매력을 느꼈다.

“근데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온 지 3일 되었어요. 여기에 사업차 왔는데 영어며 뭐며 한국에서 생각한 생활하고 별써부터 많이 다르네요. 오늘 커피는 처음 사마셔요.”

“예? 무슨 사업이오.”

“뭐, 별 사업 아니니 크게 묻지 마세요.”

“가게 하시계요?”

“원내,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지 뭡니까? 그래서 도망치다 시피 왔어요. 내 참 뭐 얼마 만나지도 않은 처녀에게 별 소리를 다 하누만. 결혼도 했는데 마누라하고 이혼했어요. 부인도 어떤 놈 만나서 도망갔지요. 사치가 심한 여자였어요. 다행히 애는 아직 없어요. 돈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 사업이 망했다고 여편네까지 도망가다니,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왕년에는 나도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지요. 자가용에 그림 같은 집에 내가 그 일만 시작하지 않았어도……. 아무튼 내 비록 지금 다른 사람 맘 아프게 하고 도망 온 신세지만 곧 돈벌어 다 갚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젠 여기서 이민도 하고, 하나님 친척도 불러들이고 사업도 해야지요.”

“근데 그쪽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남자 또한 발그레한 볼의 숙희에게 본능적인 호감을 느꼈다. 숙희는 아름다웠다. 숙희 또한 별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부도나서 도망왔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는 게 훨씬 인간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숙희에게 여기 캐나다와 토론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이를테면 한인타운의 분위기라든지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교회 다니세요?”

숙희는 그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다.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만 했다. 이것은 어떤 의무인 듯했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가라. 그럼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외로움

도 훨씬 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인타운에서도 거짓말하고 사는 한국 사람도 많았다. 사업실패는 누구나 할 수도 있었고, 또 뭔가 일이 꼬여 도망 온 경우도 많았지만, 서로 경계하듯이 그런 사실을 쉬쉬하면서 숨기는 게 한인타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왕년에는 다들 한국에서 무언가를 엄청난 일을 했었다고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며 어떤 이는 엄청난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숙희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입장들에게서 어떠한 인생도 다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미싱공장에서 지겨움을 탈피하고자 한국에서 도망온 것처럼, 더 이상 미싱일이 지겨워 밴쿠버에서 도망온 것처럼.

하지만 또한 나와 있으면서 소수민족의 동포애를 느끼며 한국 사람들끼리는 같이 외롭기에 서로 정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모였다.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과 마음을 모아 잠시라도 참회생활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다. 서로 모질게 대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정은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하나둘씩 모인 사람들은 누구 사촌으로, 누구의 가족으로 해서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고, 서로 물어뜯듯이 싸우다가도 사업일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면 서로 돋곤 했다. 간혹 부부싸움도 잦아 어느 집 누가 이혼을 또 했네, 누구 부인이랑 누구 남편이랑 눈맞았네 하는 이혼과 갈등이야기가 주로 교회 사람들의 입 담짜리였다.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었고, 하나의 외로움을 달랠 줄 공동체였다.

자식 교육도 문제였다. 부모를 따라 10대에 이민을 온 경우 부모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참 많았다. 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은 조그만 슈퍼나 음식점이나 세탁소, 잘 되면 주유소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곳이나 중앙 정부 캐나다의 요직에서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이민 상담소를 차려 이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돋기도 했다. 같은 동포들끼리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우리 한번 잘해봐요”

여기서 숙희는 그와 함께 같이 살기로 결심했다. 너무나 외로웠던 생활들에 마침내 결별을 선언한 듯이 보였다. 누군가 쟁겨줄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외로운 대지에 촉촉한 비가 스며들 듯 그렇게 찾아왔다. 숙희는 미련없이 그녀가 간직했던 처녀성을 버렸다. 그와의 밤은 뜨거웠다. 그의 입김, 그의 숨결 그와의 사랑, 그와 나누는 은밀한 밤들은 그 동안 잠자고 있었던 스물두 살 처녀의 몸과 마음을 눈뜨게 하기 충분했다.

그는 그녀를 힘껏 안았다. 아! 이건 사랑이야. 이 모든 순간을 평생 같이 할 것만 같았다. 기쁘고 즐거웠다. 몸과 마음이 즐거웠고, 모든 삶의 세포 하나 하나가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행복했다. 그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만 같았다.

사랑은 삶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춥고 긴 겨울도 그와 함께라면 춤지 않았다. 주말 오후 하루종일 눈이 오는 시내

를 걸어다녀도 춥지 않았다. 그런 자신의 삶에 어떠한 고통도 없을 것 같았다. 즐겁게 일을 하는 동안 난민 이민신청을 내어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시민권 딸 날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는 숙희의 도움으로 토론토 한인타운에 조그만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다가 숙희의 몸에 변화가 왔다. 한 달 후 생리가 없어졌다. 임신을 한 것이다. 숙희는 어찌할 줄 몰랐다. 가을이었다.

“나 임실했어.”

“뭐라구? 안 돼. 그 얘기 지워. 미안해 사실 나도 내 애가 한국에 있어. 그 애에게 배다른 형제를 안겨 주는 건 죄악이야.”

“말도 안 되는 억지야. 같이 사랑해놓고, 혼자 책임지라고? 네가 그리고도 사람이야?”

“좋아. 나 그렇게 나약한 여자 아니야. 어디 혼자 한번 잘 살아봐. 당신이 얼마나 이 좁은 한인타운에서 잘사는지 지켜보겠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애를 지우라는 그 말에 숙희는 이제껏 자신이 사랑으로 믿었던 모든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망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외로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텅 빈 방 침대 한켠에 앉아 울어버리자고 결심했다.

눈물은 하염없이 불을 타고 내려왔다. 울어도 울어도 멈출 줄 몰랐다. 같이 일하는 레스토랑의 동료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 보기까지 했다.

숙희는 깨달았다. 이제까지 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그저 외로움

을 같이 할 상대와 즐겼음을. 그러나 이내 결심했다. 아기를 낳기로, 여기는 그것은 죄악이 아니었고, 미혼모에 대한 배려도 너무 잘 되어 있었다. 아기가 있으면 자신의 아기이기 때문에 평생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아기는 외로움의 탈피 대상이었다.

“나 이 아기 낳을꺼야. 걱정 마, 당신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을 테니. 그리고 잘가.”

그와 그렇게 헤어졌다. 레스토랑 일과 함께 그렇게 세월은 흘러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첫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1991년 여름, 어느덧 부산에서 밴쿠버로,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온 지 10여 년이 다 되어간다.

한국 이름은 준, 영어 이름은 존. 생각도 많이 해서 지은 아들 이름이다. 나라에서 싱글 맘(single mom, 미혼모)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세금과 웨이트리스 생활을 하고 열심히 버니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동안 살뜰히 모은 돈을 합하니 은행융자를 받아 조그만 슈퍼마켓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하루 다르게 재롱을 떠는 아들 준을 보니 아빠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들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따뜻이 인사해주고 챙겨주는 캐나다 사람들과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 시간은 날개가 달린 듯 빠르게 지나갔다. 세월은 5년이 더 흘렀고 기회의 땅이라고 믿었던 캐나다에서 가계도 꾸릴수 있게 되어 부산에 있는 언니와 부모님을 초청하였다.

“마미(Mommy), 그럼 그랜맘이랑 그랜파랑 오는 거예요?”

한국말과 영어를 반반 섞어서 이야기하는 준을 데리고 공항에서 부모님과 언니를 기다렸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긴장되고, 초조했고, 화장실도 그새 여러 번이나 다녀왔다.

드디어 대한항공 도착 승강장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한국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where is Grand mom? and Grand fa?”

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세 명의 낯익은 모습이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나타났다.

“에고, 니가 숙희가? 니가 준이가?”

“아이구, 엄마, 아이구 아부지, 아이구 아이구. 언니 잘 왔대이.”

숙희는 그 동안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에 북받치는 설움과 기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래 그래, 잘했대이. 니 보니 기분좋다.”

준이를 얼싸안아 든 숙희의 아버지는 연신 준이의 볼을 비벼댔고, 낯선 반가움에 할아버지라고 안심이 되는지 계속 싱글벙글 웃었다.

“차 가지고 올 테니 잠시 여기서 기다려요.”

숙희는 잰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한다.

“올 숙희, 그렇게 유난하고 뭔가 한다고 결심 많이 하드니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도 부르고, 성공했대이, 성공했대이.”

숙희는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승객 피업 장소로 간다. 차안에 탄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고, 숙희의 미끈한 중형차는 바삐 도로를 빠져 나간다. 모두 집으로 향한다.

‘후욱!’

성난 사탄의 입김같이 후끈한 산타아나 바람이 영미가 운전하고 있는 SUV의 옆구리를 심술궂게 훑고 지나간다. 육중한 SUV가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불안하게 휘청거려 영미는 운전대를 꼬옥 움켜쥔 양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산타아나 원즈.

남 캘리포니아의 산타아나 산맥의 이름이 붙여진 이 거센 바람은 주로 10월 즈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12월을 안팎으로 기승을 부리다가는 2, 3월 즈음에야 그 강풍을 거두어간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유타 근처에 깔려 있는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의 특징은 태풍이 무색하리 만치 무섭게 불어닥치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아작아작 타들어 갈 정도로 후텁지근하고 건조한 공기를 몰고 온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인화성이 높은 마른 풀을 뒤집어쓰고 있는 산등성이를 휩쓸고 지나갈 때면 암전히 잘 서 있던 마른 가지들에게 싸움을 걸어 산불을 놓는 고약을 떨기도 하는데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산타아나 바람은 엘에이 근교의

여러 가을을 태우고 넓은 대지에 흥물스런 검은 화상의 흥터를 남기고 지나갔다.

“와우, 바람 대단하다!”

바람을 뚫고 운전을 하느라 마치 잔뜩 긴장된 초보운전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영미가 혼자서 웅얼거렸다.

옆 좌석의 수잔은 잠이 들었는지 등받이를 눕히고 누워 이마에 손등을 얹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산타아나 바람이 심한 날의 운전이란 결코 수월하지 않았지만 시미밸리를 떠나 내려오는 시미 프리웨이 위의 바람은 오늘 따라 유난히도 거세었다.

제시가 살아 있을 적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와 다시 연락이 된 2년 전의 겨울부터 약 1년 동안을 수잔과 영미는 자주 이 프리웨이를 타고 제시를 만나러 왔었다. 로스엔젤레스 사람치고 바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없다지만 유난히도 바쁘고 빽빽한 일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시를 위해 그녀들은 제시의 집이 있는 시미밸리에 모여 골프를 쳤기 때문이었다.

골프 연습에 쏟을 시간이 없는 제시는 몇 달이 지나도 통 실력이 붙지 않아 공을 잔디에서 굴리고 다니리 만큼 비참한 골퍼였지만 그래도 수잔과 영미는 제시를 데리고 나가기 위해 기꺼이 장거리로 달려오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골프라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제시를 위한 배려였다.

거의 20년 만에 연락이 된 제시의 부부와 상봉하고 보니 그들은 벌써 제법 관록이 붙은 젊은 사업가 부부로 늘 동분서주하며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나이가 나이이니 만큼 체중

도 많이 불어나 있었고 혈색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비만에 대한 변명이라도 늘어놓듯 몇 년 전부터 몇 번이고 시도를 했다가는 자꾸 다른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지속되지 못했다는 골프레슨을 언급한 순간 수잔과 영미는 서로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지긋이 웃었다. 영미와 수잔이 가까운 골프장에서 한 달에 두어 번씩 만나 골프를 친 것이 벌써 서너 해 되어 오기 때문이었다. 마침 제시를 통해 연락처를 얻어낸 옛친구 낸시도 흔쾌히 동의를 하자 네 명의 옛친구들은 격주로 만나 골프를 치는 정규 멤버가 되었다.

두어 달 후, 제시가 그 동안 타고 다니던 렉서스가 아닌 은빛 벤츠 500을 타고 나온 어느 날 수잔과 영미는 그녀들답지 않게 한껏 부러운 티를 내며 제시를 놀려주었고 낸시는 한술 더 떠서 ‘애들아, 자고로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인명은 제차란다. 암! 좋은 차 타고 맹겨야지!’ 하면서 놓짓거리를 했었다. 그러나 제시의 ‘좋은 차’ 은색 벤츠 500은 반대편에서 출면서 운전을 하며 오던 대형 트럭 운전사의 치명적인 실수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마흔다섯의 아까운 나이의 제시를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들었다. 오늘이 그녀를 잃은 지 1년이 되는 기일이었다.

“바람 부는데 운전하기 힘들지?”

옆 좌석에서 잠든 줄로만 알았던 수잔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걸어오더니 윗몸을 일으켜 앉으며 한 손으로 등받이 조절 버튼을 눌렀다. 자동 등받이는 스스로 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천천히 제 위치로 돌아왔고 수잔은 햇빛막이인 바이저를 내려 거울을 보며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영미는 아직도 긴장된 몸의 근육을 풀지 않은 채 결눈으로 흘끔 수잔을 보며 말했다.

“자간…….”

짧은 한숨을 내쉬는 수잔은 온몸의 맥이 다 빠져 나간 듯한 얼굴이었다.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다. ‘You look like you just lost your best friend.’ 지금의 수잔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쓰는 숙어로, ‘찬한 친구라도 죽었나? 얼굴이 왜 그래?’ 하는 투의 염려 반 농담 반이 섞인 말이다. 여느 때 같으면 영미도 수잔에게 바로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영미는 수잔에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제시의 기일이 가까워오자 영미의 남편은 마누라가 우울증의 무서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사십 대로 접어든 이후 영미는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원인 모를 우울증의 늪에 빠져 언제 헤어날 것이라는 기약도 없고 어떻게 탈출을 해야 할지 대책도 없는 무기수같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애물단지로 변해버리곤 했다. 오늘 저녁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계모에게 밥을 얻어먹는 의붓자식마냥 영미의 표정을 읽고 눈치를 보아가며 싱거운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을 남편의 어설픈 연극을 상상하면서 영미는 옆은 미소를 지었다.

“2월이었던가…… 왜, 제시가 늦게 도착해서 우리 티오프 타임

놓친 적 있었잖아.”

“으응.”

생각에 잠겨 있던 영미가 갑작스런 수잔의 질문에 성의없는 대꾸를 했다.

“그 전날 밤 산타아나 바람이 엄청 불어서 담날 우리 공칠 수 있을까 하고 전화하고 그랬었잖아, 기억해?”

“응, 그런 것 같다.”

영미의 석연치 않은 대꾸의 원인이 피차 가물가물 맛이 가기 시작한 기억력에 있다고 단정지은 수잔은 그 전날의 일까지 상기 시켜주었다.

“그날 개미 이야기 했었잖아, 개미, 기억나?”

“그래, 개미와 베짱이.”

“어젯밤에 브리트니 재우면서 베드타임 스토리로 바로 그 우화를 읽어주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 시리얼 껴내면서 보니 주방에 개미들이 또 짹악 깔린 거야. 내가 약을 뿌리려고 했더니 브리트니가 착한 개미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주 혼났네, 내가.”

“하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애 학교 보내놓고 돌아 와서 다 죽였지.”

영미는 늦둥이 딸아이에게 절절매는 수잔의 모습을 상상하며 후후 웃었다.

“벌써부터 애를 이기지 못하니 앞으로 브리트니가 틴에이저가 되면 어쩌나 벌써 걱정이다.”

“참나, 왕년의 그 말발은 다 어쩌시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나?”

영미의 편잔 섞인 밀지 않은 농담에 수잔도 허허 웃었다.

“오늘 제시한테 가는 날인데 아침부터 개미가 득실거리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날 생각이 더 나더라고.”

“그랬겠네…….”

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바삐 움직이며 생산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던 제시가 묘한 푸념을 늘어놓던 그날의 대화를 영미도 물론 잊혀지지 않고 있었다.

* * *

제시의 지각으로 티타임을 놓쳐버린 그녀들은 각자 퍼팅그린과 드라이빙 레인지로 흘어져 연습을 조금 하고는 제시의 집으로 가서 수다를 떨다가 돌아가기로 낙찰을 보았다. 제시가 자기 때문에 골프를 치지 못한 점을 통회하는 의미로 손으로 직접 밀어서 만든 칼국수를 대접하겠다며 그녀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산타아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댄 다음날이라 제시는 가슴속에 마른 모래밭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깔깔한 잔기침을 해댔다. 그녀가 허파 속까지도 바싹 말려 버릴 듯한 산타아나 바람이 지겹다고 하자 너도나도 입을 모아 자기네들도 그렇다면 한마디 씩 거들었었다. 그러다가 이야기는 산타아나 시즌이 올 때마다 집 안으로 스멀거리며 들어오는 개미떼의 습격에 대한 쪽으로 노선이 바뀌어 버렸었다. 유난히 먹을 것 부스러기가 흘어져 있는 것

도 아닌데 용케도 묘한 곳의 틈새를 타고 출출이 열을 지어 주방의 카운터나 캐비닛 안을 점령하여 질겁을 하게 만드는 개미의 침범은 너나 할 것 없이 끔찍해하는 일이었다.

날씨가 너무 건조하니까 개미들이 수분을 찾아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낸시의 말에 영미는 ‘그럼 물만 먹고 가면 되지 개네들은 왜 남의 캐비닛까지 쓰시고 들어오고 난리나’고 하는 통에 모두 우하하 웃었고, 비가 내리는 날은 또 그런 날대로 비를 피해 들어오는 개미들이 주방을 다 뒤집어 놓게 만들어 놓는다는 수잔의 말에 영미는 ‘천하에 중대 없는 놈들 같으니라구!’ 해서 또 한번 모두를 웃겼었다.

그녀들이 어릴 적 읽고 자랐던 이솝우화의 개미들은 한여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성실과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본보기의 인물이었는지 몰라도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내 가정의 영역을 허락 없이 침범하여 우글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다름아닌 ‘적’일 뿐이었다.

인정사정없이 침입자들을 향해 약을 뿌리고 벼둥거리며 죽어간 적의 시체를 닦아 쓰레기통에 처넣어버려야 하는 진절머리나는 투쟁은 그녀들로 하여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약간은 시대에 뒤떨어진 속담을 완결시키는 용감한 주부 투사들로 변신시켜놓곤 했다.

그 전날도 바쁜 아침시간을 개미소탕작전에 소비하느라 진을 뻗 제시는 티오프 약속시간까지 지켜야 하는 그날 아침 또다시 찾아와 주방 카운터 위를 행진하고 있는 개미들을 발견하는 순간 느이들 정말 끈질기다 하는 비명을 삼키며 싱크대 밑에 넣어둔 개미 약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많은 개미들 중에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를 입에 문 개미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다. 아주 바쁘게 열심히 가고 있더라고 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 작은 양식을 입에 물고 앞만 보며 죽을힘을 다해 기어가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보다가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체 모를 연민이 느껴지더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 개미 구경하느라고 티타임을 놓쳤단 말야?”

낸시가 제시를 쥐어박기라도 할 듯한 표정으로 눈을 곱게 흘겼다.

“야, 그게 그렇더라. 갑자기 온몸에 힘이 쏙약 빠져 나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내가 여지껏 뒷 땀에 이리 바쁘게 살았나 싶고…….”

“어이구! 이 아줌마 달거리 할 때 되셨나부네.”

드디어 낸시가 제시의 말을 자르며 등짝을 한 대 후려갈겼다. 기가 막혀 죽겠다는 얼굴이었다.

“아니…… 내 말은…… 나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좀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말야. 일만 아는 그 징글징글한 개미말고 베짱이처럼 놀기도 하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팠거든.”

이번엔 낸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며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제시의 손가락에는 꽤 눈길을 끌 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영미는 제시의 옆모습이 마치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맛있게 뺏아 들이킨 담배연기를 섹시하게 뱉어내던 ‘이브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베티 데이비스 같다고 생각했다. ‘징글징글한 개미’처럼 살아온 대가로 구석구석마다 할리우드의 호화

판 영화 세트처럼 완벽하게 꾸며지고 조화된 인테리어를 갖춘 궁궐 같은 집과 보석을 소유하게 된 제시의 뜬금 없는 발언에 영미는 한마디도 대꾸해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제시의 뼈 빠지는 타령이 계속되기라도 한다면 잘 먹은 칼국수 가락이 뱃속에서 곤두서버릴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며 소리 없이 쓴 입맛을 다셨었다.

“충분히 다르게 살고 있어, 우리는”

아무도 제시의 푸념에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없자 이번에도 낸시가 제시를 상대해주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요즘 마이클 아빠 보면 옛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애. 나는 또 어떻고? 요즘 내가 너희들 만나 조금 인간같이 사는 거다.”

“노우. 달라!”

낸시는 머리를 저으며 강경하게 주장했다.

“너, 너네 회사 사람들에게 좋은 건강보험 혜택 주고 있지?”

“예스”

제시는 자랑스럽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세금보고 제대로 하고 있지? 이중장부 같은 거 만들지 않지?”

그제야 제시는 낸시가 말하는 ‘다름’이 경영인의 양심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여장부답게 하하 웃었다.

그러나 곁에서 잠잠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잔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졌다. 노동법을 어기고 이중장부를 조작하며 탈세행위를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해온 많은 1세 이민교포들의 상실된 윤리와

신용이 계속 뒤를 잊고 있는 새로운 이민 1세들과 더 나아가 1.5 세들과 2세의 한인 비즈니스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한심하고 수치스런 비극의 현실은 절대로 가볍게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교수셨던 수잔은 비교적 비리와 비도덕으로 물든 한 인사회의 일면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교포 사회에 뛰어들어 한인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봉사단체를 통해 무보수 봉사를 한 경력이 있으리 만큼 한인 사회를 향한 애정을 품었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수잔은 낸시와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탈세행위나 노동법을 어기는 일을 일삼지 않고도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1세들을 싸잡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따위의 소위 ‘스테레오 타이핑’이 모든 인종의 인권을 좀먹는 불의의 씨앗이며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오해의 깊은 골을 파는,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임에 대해서 전쟁터에서 쏘이대는 기관총이 무색하리 만큼 장황한 논리를 폄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용케, 아주 용케 수잔은 입을 굳게 닫고 머릿속에서 용 솟음치고 있는 단어들을 잘도 잘근잘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이것도 나이 먹음에서 오는 혜택 중의 하나일까. 특 건드리면 팽하고 튀기 잘하던 탁구공 같던 수잔도 마흔의 중반을 넘어서며 꾸준한 연습 끝에 아주 제대로 잘 맞아야만 똑바로 날아가 주는 묵직한 골프 공으로 진화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영미 역시 두 여인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년간 아버지의 마켓에서 아무런 건강보험 없이 일하던 미겔과 마르타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 그렇게 한다’는 명분 아래 해마다 조작되던 이중 장부의 곡예로 얻어진 아버지의 첫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가던 날의 부끄러운 기억이 은밀하게 뼈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미는 말없이 눈길을 떨구고 테이블 위에 놓여진 트로피컬 아이스 티 잔에 꽂힌 뺨대를 손으로 휘휘 저었다. 유리잔이 아닌 크리스털 잔 속에 가득 들어 있던 얼음조각은 그새 알맞게 녹아 영미의 뺨대가 움직이는 대로 찔랑찔랑 앙증맞은 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오케이! 계속해, 낸시. 또 말해봐! 우리가 1세들하고 다른 점. 또 뭐가 다른데?”

제시는 낸시의 이 칙칙한 발언이 통쾌한 듯 재촉했다. 낸시 역시 자기가 착안해낸 이 게임이 재미가 있는지 미간을 약간 좁히며 머리를 짜는 표정을 지었다.

“음…… 생각났다! 아이들 성적표 사인해줄 때마다 너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백인 놈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세뇌시키는 거…… 이런 거 안 하지?”

낸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시뿐만 아니라 약간 경직되어 있던 수잔과 영미까지도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것처럼 이민 1.5세 자녀들은 1세들로부터 ‘백인 놈들을 이기고 주류사회로 진출해야 한다’라는 말

가 포기하고 와야 했던 빛나는 대학 배지와 그 간판이 지닌 값어치에 대해선 사실상 문외한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부산에서 여고를 다니다가 이민 온 낸시만이 제시가 이루어놓았던 공든 탑을 우러러보며 그녀의 금송아지 타령에 발동이 걸릴 때마다 아깝고 안타까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장단을 맞추어주곤 했다.

대학입시까지 치른 제시가 다시 미국의 C하이스쿨 11학년으로 뒷걸음질을 해 편입하게 된 동기는 그녀 자신의 고집이었는지 그녀 부모님의 권고였는지는 몰라도 그 때문에 제시는 같은 학년 동기들보다도 두 살이나 더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제시와 낸시 그리고 수잔과 영미는 같은 해 C하이스쿨을 졸업한 동창생이 되었다.

그녀가 수잔이나 영미보다도 낸시와 더욱 진한 공감대를 가졌던 이유는 나이 차이라기보다도 낸시의 아직 덜 미국화된 정서가 제시의 한국식 정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교련이니 윤리니 하는 시간표에 맞추어 여고시절을 보냈던 두 소녀들과 겨우 운동장에 쪼그리고 앉아 공기놀이를 하거나 고무줄넘기 놀이를 하며 놀던 흑백 티브이 시절의 한국에서의 추억이 고작인 수잔과 영미와는 정서적으로 천지 차이가 나는 그녀들이었다.

“지난달에 우리 갔었던 곳 있잖아.”

여지껏 묵묵히 하고픈 말을 삼키며 앉아 있던 수잔이 대화의 머리를 돌렸다.

“어디? 한인타운의 그 집?”

“응, 거기. 브리트니 아빠가 그러는데 그 근처에서 총기사건이

자주 난다더라고.”

한글로 된 신문을 읽을 줄 모르는 수잔은 주로 남편을 통해 한인타운의 소식을 접하였다.

“거기만큼 떡볶이 잘하는 집도 없던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문 표정으로 또랑또랑 목청을 높이던 낸시는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만큼 금세 아쉬운 표정이 되었다.

“애는…… 떡볶이 같은 소리 하구 있어. 위험하면 가지 말아야지.”

영미는 낸시를 나무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째 한인타운은 날이 갈수록 요지경 속이 되는 것 같다니.”

낸시는 아직도 아쉬운 기색이 연연했다.

“사실 한인타운은 1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우리 같은 1.5세들은 아무래도 피차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선지 잘 가게 되지도 않고…….”

영미가 말꼬리를 흐렸다.

“참, 지난주에 우리 티나 유럽 역사 프로젝트 자료수집을 도와주다가 발견한 사실인데 말야. 나폴레옹 있지? 프랑스의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원래 코르시카 출생이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프랑스로 와서 공부를 시작한 것이 십 대였더라고?”

“애는…… 한인타운에서 총기사고 나는 이야기 하다가 별안간 무슨 나폴레옹이래?”

제시가 휙등그레진 눈을 끔벅이며 낸시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영미도 수잔도 곧 이어질 낸시의 대꾸를 기다렸다.

“아이구, 이 아줌마들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엄격히 따지자면 우리처럼 1.5세였다는 거야. 언더스탠?”

정신이 나간 사람을 보는 것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의 표정이 더 우스꽝스럽다는 듯 낸시는 미소를 지었다.

“와아우! 그렇네!”

수잔이 드디어 낸시가 듣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말 대단하지?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을 열 몇 살 적에 아버지가 데리고 프랑스로 가서 공부를 시켰다는데 나폴레옹은 당시 불어도 할 줄 몰랐다는 거야. 스무 살이 넘도록 발음도 불완전한 불어로 말을 했다네?”

“너처럼?”

제시가 낸시 말 자루를 자르며 농담을 했다.

“어쭈? 사돈 남 말 하시네!”

낸시도 웃으며 만만치 않게 대들었다.

“1.5세가 장군이 되고 결국 황제가 되었다? 헉! 정말 그거 프랑스라는 나라도 재밌는 나라네.”

단 한번도 나폴레옹을 자기네들과 같은 1.5세라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녀들에게 나폴레옹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이 놀라운 충격이었다.

“재작년 파리에 갔을 때 다들 그 개선문 꼭대기에 올라가 보자고 해서 들어가 보았거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이백 몇 개더라……. 근데, 개선문 위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밤 경치가 말야 정말 대단했어. 나폴레옹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파리의 시가가 팔방으로 펴지는데…… 와아우!”

“프랑스란 나라가 재미있는 거냐, 아님 나폴레옹이 물건인 거냐.”

그녀들은 마치 나폴레옹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그들과의 특유한 이음줄이라도 되는 착각에라도 빠진 듯 홍조 띤 얼굴로 입을 모아 한마디씩 감탄사를 외쳤다.

1769년, 그 나라 언어로 ‘나폴레오네 보나빠르떼’라고 발음되는 이름의 아기가 태어난 코르시카 국가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해 프랑스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당시 젊은 변호사였던 나폴레옹의 아버지 ‘카를로 보나파르떼’는 프랑스인으로의 변신을 발빠르게 시도했다. 그는 큰아들 나폴레옹이 십 대 소년이 되자 프랑스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다. 프랑스 국가를 증오하며 성장기를 보낸 나폴레옹은 조국을 배신한 아버지를 기회주의자 내지는 매국노 취급을 하며 경멸하는 아들이었다고 한다. 1.5세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는지 스무 살이 되던 해 조국이자 프랑스의 식민지인 코르시카로 돌아가 그곳에서의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잔뼈가 굵은 나폴레옹의 1.5세 사고와 정서를 불신한 코르시카의 전통파들은 그를 환영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를 낳아준 조국으로부터 겪은 거부감의 비참한 수모와 뼈저린 상처를 원동력으로 삼아 자신을 키워준 프랑스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드는 목표에 열정을 쏟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라는 이름으로 거듭나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

* * *

낸시와 진수 오빠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오랫동안 좋지 못했었

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새 땅으로 모종되어온 낸시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까지도 새로운 텃밭에 진득하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몸살을 앓는 한 포기의 풀 같곤 했었다.

그런 낸시는 15년이 넘게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마흔이 되던 해 박사학위에 도전하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었다. 박봉인 대신에 긴 여름방학을 누릴 수 있는 혜택 때문에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던 낸시는 그녀가 가르치고 있던 1.5세나 동양인 부모를 가진 2세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교사였다. 유난히도 미국에서의 적응이 더디고 힘들었던 성장기를 지낸 낸시였기에 힘겨운 고비를 넘긴 경험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능한 나침반 노릇을 해준 결과였다.

한국에서 군 병역을 마치고 오느라 낸시보다도 일 년이 넘게 늦게 미국으로 왔던 진수 오빠가 쉽게 적응되지 않는 미국문화 속에서의 심한 방황과 함께 저지른 말썽 때문에 낸시네 가족이 갈기 갈기 찢어지는 파탄에 이르기까지 했으니 낸시는 부모님의 이민 결정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자라온 딸이었다.

줄지에 나폴레옹을 같은 1.5세 동지로 만들어버린 그녀들은 약간은 흥분된 어조로 누군가가 한인 사회를 대표할 만한 이렇다 할 건축물 유적 하나 없는 이곳에 1.5세들의 개선문을 짓는 아이디어도 기발하지 않느냐는 운을 띠웠다.

“아야, 제시카. 니가 하나 세우면 되겠네. 니 억수로 돈 벌어 가고 다 머 할 끼고?”

낸시의 입에서 안 쓰던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올 때는 그만큼

기분이 좋다는 신호였다.

“그래? 그럴까? 낸시야, 니하고 내하고 골프 100을 깨는 날이 오면 개선문 하나 짓는 거다!”

제시도 흥에 젖어 큰소리를 치며 허풍을 펼었다.

“하이고! 그 개선문 보긴 다 글렀네!”

영미가 촉새처럼 끼여들어 대꾸를 하며 자자러지게 웃자 낸시는 오히려 제시를 향해 곱게 눈을 흘기며 잘 나가다가 거기에 골프는 왜 끌고 들어가냐고 볼멘소리를 했었다.

* * *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갈 시간 있지?”

영미가 운전하고 있는 SUV는 어느새 수잔의 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딸애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도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이리 만큼 영미는 딸애가 집에 올 시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 이유는 굳이 심리분석을 해주는 전문가를 찾아가 진단을 받지 않아도 쉽게 스스로 분석할 수 있으리 만큼 자신의 가슴 깊숙이에 맺힌 응어리 때문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교정 앞에서 ‘해브 어 굿데이!’라는 부모의 사랑스런 인사말을 받아가며 유유히 차에서 내리는 미국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그녀로 하여금 얼마나 지독하게 유치한 질투심을 낳게 하는 아침의식이었는지 영미는 단 한번도 그 누구에게 언급해본 적이 없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등교를 하고 ‘다녀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한국에서의 포근한 나날들을 잊어버린 것은 영미 혼자만의 상실이 아니었다. 빙집에서 등교를 하고 스스로 열쇠를 따고 빙집으로 귀가를 하는 수많은 1.5세의 ‘랫치 키 킷츠’처럼 영미 역시 꿋꿋하고 씩씩하게 적응해가며 올 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과정은 이민을 선택한 부모님들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당연히 감수해야 했던 자녀들의 몫이었다.

그녀가 아침에 눈을 뜨기도 전에 마켓의 문을 열기 위해 새벽 같이 출근을 해버린 영미의 부모님은 저녁 아홉 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고 귀가를 하곤 하셨지만 단 한번도 영미에게 마켓의 일을 도울 것을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 점에서 영미는 상당히 복된 행운아였다. 거의 매일 계슴츠레한 눈동자로 등교를 하곤 해서 ‘동태눈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제임스 킴은 분명 마리화나를 피우는 상습범이라는 오해를 받아 카운셀러의 방에 불려가기도 했었는데 심문한 결과 제임스는 거의 매일 밤 아버지가 운영하는 리커스토어의 카운터를 지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노동법에 걸리는 문제가 된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리커스토어를 지키다 권총강도를 만나기도 했다는 제임스 킴은 대학이고 뭐고 그저 잠이나 실컷 잘 수 있게 얼른 의무교육인 고등학교나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다.

제임스 킴말고도 영미는 한국에서 갓 편입해온 동수라는 학생이 밤마다 제 형과 함께 빌딩 청소를 다닌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도 있었다. 그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아니라 그 돈으로 온 가족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 렌터

비를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지불하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든 이민 1세 가족의 일원이었다. 똑같이 빙점을 나와 빙점으로 돌아갈망정 아무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전념하면 되는 영미는 주위의 1.5세 학생들에 비하면 공주였거늘 감히 어디에 대고 와롭고 혀전하다는 염치없는 엄살을 부린다는 말인가.

영미가 작문의 세계로 몰입해 차차 그녀의 내면으로부터 흐르는 신음소리를 창작의 열매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무의식중에도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아의 강인한 의지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그녀가 작은 소도시의 이름 없는 마을신문의 편집 일 정도를 거드는 프리랜서에 만족하며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고 남편과 딸의 철저한 내조인으로 머물게 된 심리적인 배경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녀가 깊숙이 품고 있던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 필요했던 필수적인 요소,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홀로서기를 강요당한 그녀에게 사랑이란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 내 손으로 운전해서 ‘해브 어 굿 데이!’라는 인사말과 함께 아이를 학교에 떨구어주고 방과후의 아이들을 기다려 직접 태워 가지고 오는 작업이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함께 있어주는 행위였기에 영미는 하루도 빼지 않고 아이의 학업을 거르지 않는 엄마로서 지난날의 공허함을 보상받으며 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양증맞게 장식된 수잔의 리빙룸은 소파 앞

에 놓여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도 카펫 위에도 브리트니의 그림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수잔은 어질러진 집안의 물건을 조금 창피해하였고 애 키우는 집이란 다 이런 것이라고 영미는 대꾸 하며 수잔이 뽑아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요즘 소설 잘 써져?”

“아! 소설…… 아니, 요새는 별로 못 쓰고 있어. 개들이 요샌 나에게 말을 안 걸어오네. 잠잠하네.”

영미가 틈틈이 쓰고 있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개네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잔은 뛰이나 재미있어했다.

“나가 하도 관심을 안 보이니까 개들이 빼쳤나부다.”

수잔도 영미의 말투를 흉내내어 농담을 했다.

“하하…… 그런가? 그런데 개네들 참 웃겨. 꼭 내가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말을 걸어오곤 한단 말야.”

“아니, 하루종일 컴퓨터에 붙어사는 글쟁이가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은 또 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이라던가…….”

“하하…… 가끔 변태 아냐?”

“하하하…… 그런가부다.”

영미와 수잔은 눈가에 열은 주름을 지으며 활짝 웃었다.

* * *

빠끔히 열려 있는 브리트니의 방문 사이로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의 소중한 재산인 바비 인형 드림하우스와 알록달록한

색상의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저 여자가 과연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에 파묻혀 지내던 수잔이 울먹이며 영미에게 전화를 걸어온 날이 벌써 오 년 전의 일이었다.

아침결에 깜빡 잊고 화단에 물 주는 일을 지나친 것을 기억해낸 영미가 정원 한 모퉁이에 둘둘 말려 있는 호스를 풀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였다. 리빙룸으로부터 어렵잖이 들려오는 전화소리에 허겁지겁 수돗물을 잠그고 집안으로 달려오느라 숨이 턱에 받힌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었다.

“헬로?”

“…….”

“헬로?”

“……영미?”

“예스?”

“나야, 수잔.”

“오! 헬로, 수잔! 근데 왜 전화를 걸어놓고 말을 안 해?”

“네 목소리가 이상해서 잘못 걸린 줄 알았어.”

“아— 지금 꽃밭에 물을 주려고 나갔다가…….”

영미는 숨이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야 했던 사연을 설명하려다가 수화기 저쪽에서 훌쩍하고 콧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문득 하던 말을 멈추었다. 아니나 다를까 수잔은 울고 있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넘겨짚은 영미는 리빙룸에 흐르고 있던 음악의 볼륨을 낮추고 소파에 앉았다. 앞으로 적어도 20분 정도는 수잔이 늘어놓는 푸념을 들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의 자세였다. 자칫하면 곧 종천으로 떠오를 햇살에 꽃밭이 바싹 마르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체념을 하며 영미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계 바늘은 오전 열한 시 이십 분을 지나 가고 있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함께 나온 수잔과 영미이지만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영미와 법대로 진학을 하고 변호사로 자리를 잡느라 늦은 결혼을 하고 뒤늦게야 아기를 가진 수잔의 사이에는 그렇다 할 공통 대화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가 수잔에게 문제가 생길 적마다 귀를 빌려주어야 하는 단골손님의 영예를 얻은 이유는 간단했다. 같은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남편 제프리와 수잔의 주변에는 똑같이 바쁘게 살고 있는 변호사 친구들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돈인 변호사의 사정을 서로간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들 사이에는 누구나 한창 바쁠 근무시간에 한가하게 개인적인 푸념이나 불평불만을 널어놓으며 민폐를 끼치기가 미안했기 때문이었다. 전업주부라고 하면 흔히 하루종일 집에서 둥글며 티브이나 보면서 한가하게 놀고 있는 여자들이라고 간주해버리듯이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함 역시 인정받아야 할 위대한 여권행사의 하나’라고 외치는 수잔마저도 영미의 ‘한가한’ 생활을 평계로 그녀의 귀를 빌리는 일에 대해 별로 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방금 마틸다에게 전화가 왔어.”

마틸다는 수잔의 아기 브리트니를 보아주는 보모였다.

“왜? 브리트니에게 무슨 일이 있어? 애가 아프대?”

수잔은 대답 대신 콧물을 들이켰다.

“방금 브리트니가 첫 걸음마를 했대. 나도 없는데…… 마미도 없는데…….”

수잔은 목이 메이는 듯 말을 못하더니 이내 수화기 저쪽에서 패앵 하고 코를 푸는 소리가 났다.

영미는 이럴 땐 무어라 적절한 말로 위로를 해야 하나 하고 할 말을 찾느라 등줄에서 진땀이 나는 것 같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 엄마가 되었다는 이유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가 커리어우먼 동자들에게 얼마나 차명적인 약점을 잡히는 일인가를 외치던 수잔이었지만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수잔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브리트니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라는 토를 달고 임시 사퇴를 하겠노라는 결심을 한 것이었다.

수잔과 남편 제프리는 살고 있던 타운하우스를 팔고 영미네가 살고 있는 작은 섭얼브로 집을 사서 이사를 왔고 뜻밖에 수잔은 행복한 주부로서의 털바꿈을 잘 해나가고 있었다. 애초부터 주부라는 타이틀에 자신이 없던 수잔이 ‘임시’라는 단어에 유난히 힘을 주고 시작한 생활이었지만 대견하게도 수잔은 날이 갈수록 가정을 지키는 여인들의 삶에 대해 좀더 성숙하고 숙연한 존경심을 갖게 된 모양이었다.

“수잔, 너는 행복해?”

조금은 새삼스런 질문이라는 며쓱함이 없지 않았지만 웬지 오늘 같은 날에는 꼭 한번 묻고 지나가야 할 것만 같은 질문이기도

했기에 영미는 수잔에게 물었다.

“실은 말야…… 두어 달 전에 우리 브리트니 동생이 생겼었는데, 자연유산이 되었어.”

영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오 마이갓! 그런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해?”

“그냥……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필요했어.”

“아…… 수잔……!”

영미는 수잔을 끌어안고 포옹하며 그녀의 등을 다독거렸다. 브리트니를 가질 적에도 어렵게 임신이 되었던 수잔이 마흔셋에 둘째를 가진 것은 대단히 큰 경사였음이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채 나누지도 못한 채 유산의 슬픔을 삼켰어야 했을 수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다. 이것이 남의 사생활에 서로 깊숙이 얹히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미국식의 정서에 물들어버린 1.5세들의 외로운 현실일지도 몰랐다.

“제프리하고 나 말야, 입양을 할 것 같아. 한국 내에서 입양되지 못하는 아기들도 많다고 하고, 요즘에는 해외 입양이 좀 어려워졌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쉬울 거라는 말도 있거든. 올 여름에 찾아가 볼 한국의 복지원과 연락을 해놓았어.”

오늘 따라 여려진 감정 때문일까, 제시나 낸시와는 달리 삼십년도 전에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 땅에서 잔뼈가 굽은 수잔의 입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라는 말을 듣는 영미의 콧등이 갑작스레 찡해왔다.

피곤한 하루였다. 거센 산타아나 바람 속에서 제멋대로 틀어대는 운전대와 씨름을 좀 했다고 중년부인의 팔뚝과 허리의 근육이 빠근한 신호를 보내왔다.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할까보다고 생각하며 들어서는 현관 앞에서 단잠에서 깨어난 고양이 코코가 혀바닥을 길게 빼고 하품을 하면서 안주인을 반겼다. 느릿느릿 발치로 다가와 제 털을 비비적거리는 코코를 한손으로 올려안은 영미가 우편함에서 꺼내온 우편물을 뒤적거리는데 가방 속에서 디지털 음악이 울렸다.

바로 어젯저녁 딸아이가 까불거리며 새 링톤을 다운로드 해주겠다고 가져가더니 입력해 놓은 새 음악이었다. 겨울을 상징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인형이었다. 사계절을 모르는 딸아이에게는 후끈한 산타아나 바람을 불러오는 12월일지언정 12월은 ‘겨울’인 것이었다.

“헬로우?”

“마미, 오늘 방과후 학창부 연습이 있는 것을 깜빡했어. 아마 여섯 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제니퍼. 여섯 시까지 학교 주차장으로 테리러 갈께.”

“땡스 맘. 러브 유.”

손에 든 셀폰의 뚜껑을 닫으며 영미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겨울 콘서트 7:30 p.m.’이라는 메모가 내일 날짜가 담겨 있는 네모상자 안에 적혀 있었다. 25라는 숫자가 빨강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네모상자 안에는 제

니퍼의 솜씨로 초록색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다음 칸에는 그녀의 가족이 삼박사일로 떠나는 스키 여행을 표기한 ‘스키트립’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달력의 마지막 칸인 31일이 되면 영미의 단출한 세 식구는 졸린 눈을 베텅겨 가며 훼밀리룸에 있는 조그마한 벽난로에 불을 지피면서 맨해튼 타임 스쿠웨어에 모여 환성을 지르는 젊은이들의 카운트다운 중계방송을 티브이로 보면서 새해의 첫 시간을 맞이할 것이다.

영미는 가만히 달력을 들추어 지나간 페이지들을 눈으로 훑었다. 소도시 작은 마을의 시시콜콜한 이벤트와 이야기거리를 모아 마을신문사의 지면을 메우는 이름 없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제니퍼의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지나갔던 한 해의 자취가 빼곡하게 달력을 메우고 있었다.

두어 주 후에 바로 이 자리에 걸려질 새 달력도 딸애의 학교 모임과 기사 마감일들과 남편의 출장 날짜 등으로 메워질 것이다. 성공한 1.5세의 사업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다가 가버린 제시의 기일도 잊지 않고 옮겨 적혀질 것이고 늦깎이 엄마 수잔이 둘째아기를 입양하는 경사스러운 날도 새 달력의 한 칸을 장식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해에는 논문을 제출한다면 낸시가 박사님의 호칭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의 기쁨도 자랑스럽게 달력의 한 칸을 차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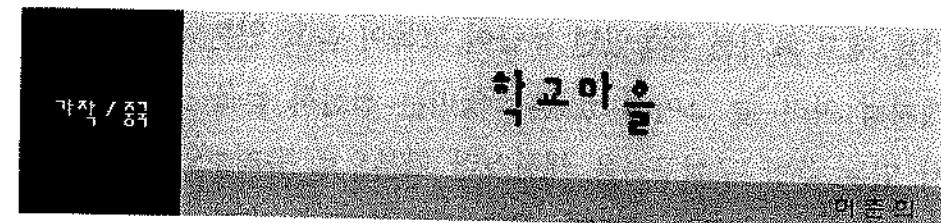
벌써부터 이 해와 작별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된 듯 영미는 지난 주 크리스마스 쇼핑을 나갔다가 집어온 내년의 달력을 어디에 두었더라 하고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달력이 걸려 있는 바닐라 색의 벽에는 제니퍼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부터 틈틈이 세워놓고

카를 재고 표시를 해놓았던 눈금이 고목이 품고 있는 수많은 나이 테처럼 여러 줄 그어져 있었다. 영미는 천천히 눈을 들어 그녀가 서 있는 주방 구석구석을 새삼스런 기분으로 둘러보았다. 이곳이 바로 작지만 소중한 추억을 심고 희망의 꽃을 피워가며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던 그녀의 보금자리이자 개선문이었다.

수잔도 낸시도 그리고 제시까지도 그녀들은 하나같이 어린 시절 조국을 떠나 새 터전에서 힘겹게 뿌리를 내렸지마는 패배보다는 더 많은 승리를, 잃었던 것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승자들이었다.

문득 영미는 싱크대 앞으로 다가서서 그새 개미떼가 들어오지 않았나 카운터 위를 훑어보며 피식 웃었다. 길 밖이 보이는 창문의 저편에는 밤새 극성을 부리던 바람 때문에 알몸이 된 나무들이 앙상한 손가락 같은 가지들을 하늘로 뻗고 서 있었다. 조금 전만 해도 기승을 부리던 산타아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사라져 버렸고 고요해진 골목길에는 가쁜한 차림을 한 젊은 새댁 한 명이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영미는 가방에 넣었던 셀폰을 꺼내어 남편의 셀폰 번호를 짹는다.
“헬로오? 허니? 내일 저녁 일곱 시 반, 제니퍼의 합창단 콘서트
잊지 말아요.”



팔락팔락……, 팔락팔락…….

마을 입구에 솟아 있는 솟대 끝에서 작은 깃발이 잠들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팔락인다. 한 아이가 솟대 밑에 홀로 앉아 날이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고개를 뒤로 꺾고 솟대 끝 부분에 달려 있는 작은 폐쪽을 끝없이 쳐다보고 있다. 폐쪽에 새겨져 있는 ‘학교마을’이라는 네 글자가 달빛에 알릴 듯 말듯 한데 아이는 잔뜩 뒤로 젖힌 고개를 자꾸만 더 뒤로 젖히며 그 글자를 똑똑히 보려고 애쓴다. 마치 고개를 더 뒤로 젖힐수록 그 글자가 더 잘 보이기라도 하듯이. 그 바람에 숫구멍이 잔등에 닿고 아래턱이 하늘 공중을 향해 뾰족하니 쳐들려 있다. 쟁반 같은 등근 달이 그러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더 환한 빛을 뿐려주려고 애쓰기라도 하듯이 오래오래 솟대 끝에 머물러 있다. 아이의 두 눈에 등근 달님의 빛을 맑은 한 쌍의 맑은 빛이 또렷이 담겨져 있는데 눈 귀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 없는 눈물에 온 얼굴이 외로움으로 가득 젖어 있다.

장백산 아래 두만강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만들어낸 한 폭의 밤풍경이다.

그 풍경의 남쪽 변두리로 중국과 조선 두 나라 국경선이 되어 흐르고 있는 두만강이 바로 아이의 눈앞에서 흐르고 있는데 잠들지 못하고 홀로 눈물짓고 있는 밤 아이를 달래주려는 듯 쉴 새 없이 온몸을 출렁거린다.

출렁거리는 두만강의 물소리가 솟대 끝에서 팔락이는 작은 깃발의 소리와 한데 어울려 절주 있게 들려온다.

팔락팔락……, 출렁출렁…….

아이는 저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 등에 업혀 자라며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서부터 할머니께서 울기 좋아하는 자기를 달래며 해오신 옛말 같은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중걸아, 울지 말고 조용히 들어볼래, 팔락파알락, 출렁추울렁……, 들리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어? ‘팔락파알락’은 솟대 숨쉬는 소리구, ‘출렁추울렁’은 두만강이 숨쉬는 소리거든. 우는 아이가 있으면 저 솟대랑 두만강이랑 숨쉬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 울지 말고 잘 들어야 해. 알겠지?”

그러면 중걸이는 금세 터뜨리던 울음도 그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가 들리면 들었노라고 좋아서 할머니 등에서 짹자꿍을 치곤 했었다.

그렇게 솟대소리, 두만강물소리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란 중걸이는 나이 열세 살이 되는 지금까지 별로 큰소리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밤만은 영영 소리 내며 큰소리로 마구 울어 젖하고 싶다. 그러나 그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를 통째로 삼킨 채 중걸이는 너무나도 고요히 석상마냥 까딱 않고 솟대 밑에 굳어

저 솟대만 끝없이 쳐다보고 있다. 오늘 따라 할머니의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두만강물소리, 솟대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겁난다.

머리 들어 사면팔방을 다 둘러봐도 높이 걸려 있는 한 장의 하늘과 어깨 견고 묵묵히 줄지어 서 있는 산들 그리고 한 줄기의 강물뿐인 변강산골에서 중걸이를 동무해주고 위로해주는 건 그 소리뿐인데 그 소리마저 안 들리면 정말이지 너무너무 외로워 죽을 것만 같으니까.

중걸이는 이 밤, 마을에 남은 유일한 조선족 학생이다.

어제까지 마을의 애들은 이불 짐을 꿁쳐 가지고 향소재지에 있는 ‘민족연합학교(조선족 학생과 한족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로 다 가고 없다. 교장선생님은 조선족 학생이 너무 적어진 원인으로 조선족 소학교인 마을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폐교 이유를 너무도 간단히 말했다.

아이들은 학교 문을 닫는다니 기가 막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엄청난 일을 두고 이유는 그렇게도 간단하고 적은지.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좀더 많은 말씀을 좀더 알아듣기 어렵게, 좀더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 짧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서운한 것 같았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 향에서 출생한 조선족 아이가 모두 3명 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촌에는 2년째 새로 태어난 조선족 아이가 없습니다.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회갑잔치는 해마다 있어도 어린아이 돌 생일잔치는 몇 년 가야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내원이 적어져서 학교를 꾸려가기 어렵게 되었

습니다. 향중학교도 명년에 한족 중학교와 합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젠 더는 순 조선족 학생들만 다니는 조선족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한족 학생들과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연합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문득 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둘러보셨다. 오늘 따라 은회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자줏빛 넥타이를 맨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달리 깔끔하고 정중한 감을 주었다. 교장선생님은 교원절과 개학식 날을 제외하고는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없으시다. 그래서 어쩌다 매는 넥타이라 제대로 매는 때가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쁘게 잘 매셨다.

문득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셨다. 그리고 어지간히 격동된 듯 많이 떨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연합학교에 가서 꼬—옥 최선을 다해서 뒤지지 말고 꼬—옥 우리 민족을 위해 기개를 떨치며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을 조선족 소학교의 마지막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유일한 당부이고 소망입니다. 꼬—옥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 커서 시집장가들면 아들딸 많이 낳으시고 조선족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은 철부지 소학생들 앞에서 시집장가에 아들딸 낳는 문제까지 꼭 정색해서 말했다. 이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키득거릴 애들이 그냥 폐교 소식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석상마냥 굳어져 있다가 교장선생님의 정중한 눈길을 쳐다보며 술한

당부를 듣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나는 듯 끌꺽거리기 시작했다.

교실이며 복도며 책상이며 걸상이며 흙판이며 운동장이며 어디에나 자기들의 발자국과 손때가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정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자기들만의 낙원인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니 서운하기 그지없게 된 것이다.

둘러보면 눈덩이처럼 새하얀 교실 벽은 개학 일주일을 앞두고 중걸이네가 삽을 메고 마을 뒤의 석회 골에 들어가 석회를 파다가 알뜰히 칠한 것이고 칠흑같이 까아만 색의 흙판은 아래 학급 애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다 쓰고 남은 전지약을 얹어다 터뜨려서 그 안의 내용물을 이용하여 정성들여 칠한 것이다.

드넓은 운동장을 초병같이 빙 둘러싸고 하늘을 향해 무성한 가지를 펼치고 우뚝우뚝 서 있는 백양나무들은 중걸이네 학급에서 입학 기념으로 심은 것이고 교문에 궁전으로 들어가는 궁형 문같이 소나무아지로 등그런 솟을 문을 만들고 나팔꽃넝쿨이 기어올라 울긋불긋 나팔꽃을 피워 학교에 오는 애들을 반기며 띠띠 따따 나팔 불 듯한 것도, 교실 앞에 기다란 화단을 만들고 코스모스, 백일홍, 나리꽃, 진달래꽃,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게 한 것도, 드넓은 운동장에 두만강변의 노오란 금모래를 펴다 반듯하게 펴놓은 것도 다 마을학교 애들이었다.

산골 애들은 뭐든 자기 손으로 하다 보니 어느 곳에나 자기들의 정이 묻어 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정다운 자취들이 이제 문을 닫은 학교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아이들은 너무도 서운해서 눈물만 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 현실을 돌려놓을 순 없었다. 그래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정든 학교를 떠나 서먹한 감이 앞서는 연합학교로 가야 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이튿날부터 아이들의 서운한 마음은 더 큰 향소재지 학교로 간다는 사실에 어지간히 위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나름대로 들떠서 저마다 기숙 생활 준비를 하느라 어른들과 같이 바빴다.

그런데 중걸이는 도무지 마을학교에서 떠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네가 정성들여 가꾸던 학교를 자기들이 없으면 누가 아무렇게나 망가뜨릴까봐 걱정되었다.

그것은 그저께 운동장에 말뚝을 박던 왕 촌장을 보고 난 다음부터 더욱 그랬다.

(학교운동장에 말뚝을 박다니…….)

중걸이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달려가 금방 박은 말뚝을 하나 씩 뽑아버리기 시작했다. 왕 촌장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더니 금방 중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미안한 기색을 지으며 제가 박은 말뚝을 제 손으로 뽑아버려 주고 다시는 여기에 말뚝을 박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해주기도 했다.

그래도 중걸이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교실에 뛰어 들어가 하얀색 분필을 한 움큼 쥐고 나와 학교 건물의 불그스름한 벽돌 벽에다 ‘운동장에 말뚝을 박지 못하고 소를 매지 못함 — 김 중걸’이라고 커다랗게 써놓았다. 그 글발이 시위를 벌이듯 눈에 환하게 띵어서 조금은 시름이 놓이기도 했지만 중걸이는 온종일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학교 운동장을 떠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지키고 운동장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중걸이는 업간체조를 할 때 선생님이 올라서는 높은 대우에 뛰

어울라가 두 다리를 떡 벼티고 서서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운동장을 휘휘 둘러보았다. 마치 변방초소를 지켜선 초병마냥. 언제 왔는지 중걸이네 집 황등이가 중걸이와 함께 높은 대우에 뛰어올라가 초조한 듯 쉴 새 없이 꼬리를 휘저으며 중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중걸이는 한참이나 눈을 커다랗게 뜨고 운동장을 휘휘 둘러보며 두 다리를 벼티고 서 있었다. 황등이는 꼬마주인의 괴로운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꽁꽁 신음소리를 내며 자꾸만 중걸의 옷섶에 매달렸다. 중걸이는 그런 황등이가 분명히 자기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다. 이 시각 중걸의 곁에서 중걸이를 동무 해주고 위로해 주는 건 황등이뿐이었다.

중걸이는 손을 내밀어 황등이의 잔등을 어루쓸어 주고 나서 황등이와 함께 그 자리에 자리잡고 앉았다. 그리고 황등이 목을 그려안고 황등이와 함께 학교를 지키고 운동장을 지키노라고 해질 녘까지 까딱 않고 있었다. 옹근 반나절이나 쟁쟁 내리쬐는 햇빛 아래 움직일세라 그런 듯이 있는 중걸의 그 모습은 마치도 동으로 부어 만든 동상을 방불케 했다.

그동안 중걸이는 마음속으로 황등이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모른다.

‘황등이야, 내가 간 다음 학교를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누가 말뚝을 박으면 무조건 뛰어가 ‘멍멍멍’ 하고 큰 소리로 짖어대고 무조건 쫓아버려야 돼…….’

중걸이는 황등이가 자기 말을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황등이는 꼬마주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중걸의 곁에 붙

어 앉아 까딱 않고 갈 념이 없었다. 그리고 어디서 기척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두리번거리곤 했다. 그런 활동이가 고마워 중걸이는 연신 활동이 잔등을 다독여주었다.

저녁 어스름이 운동장에 내려앉을 때에야 집으로 돌아온 중걸이는 습관처럼 솟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때 문득 누군가 솟대도 뽑아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를 스쳤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엄청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학교가 폐교되면 이 마을은 더는 학교마을이 아닌데, 그러면 솟대에 달아놓은 ‘학교마을’ 패쪽도 떼버리려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저 솟대도 뽑아버리려 하는 게 아닐까? 안돼, 학교가 없어져도 솟대는 없어져선 안돼.)

중걸이는 솟대 없는 마을을 상상할 수가 없었으며 솟대가 없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왕 촌장에게 자기가 떠나간 다음에라도 솟대만은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더 받아내야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왕 촌장을 찾았는데 왕 촌장이 갑자기 향으로 일 보러 가고 있어 부탁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중걸이는 또 솟대를 지켜야 했다. 저녁술은 드는 등 마는 등 하고 온 밤 솟대 결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중걸이다. 왕 촌장이 오늘밤에는 돌아온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는 꼭 만나서 약속을 받아내고 잘 당부하고야 떠나리라고 중걸이는 생각했다.

왕 촌장은 순 조선족 세대만 사는 조선족 마을이던 동네에 한 족 세대가 반수 이상으로 늘어나고 조선족이라곤 출국돈벌이와 시가지 진출로 늙은이와 철부지 애들밖에 남지 않은 바람에 동네

역사에서 처음으로 뽑힌 한족 촌장인데 중걸이네 바로 옆집에 살면서 중걸이네와 꽤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중걸이는 왕 촌장이 꼭 자기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꼭 들어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큰소리로 울어젖히며 발버둥질치며 새 학교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다.

그래도 중걸이는 시름이 놓이지 않아 할머니에게 자기가 간 후 꼭 운동장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걸 잊지 않았다. 할머니가 늙은데다가 한족 말도 몰라 지켜낼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할머니에게밖에 부탁할 만한 데가 없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홀로 솟대 옆에 앉아 학교마을 패쪽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중걸이는 오늘 따라 할머니로부터 수없이 들어오던 솟대 옛말이 다시 다시 듣고 싶다.

“우리 민족은 옛날에 과거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에 솟대를 세우는 풍속이 있었느니라. ‘솟대’란 과거한 사람을 위하여 마을 입구에 높이 세우는 나무인데 시뻘겋게 칠한 장대 끝에 나무로 만들어 푸른 칠을 한 용을 붙여놓는 거란다. ‘과거’란 급이 높은 사람을 뽑을 때 너희들 공부시험 치르는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거란다.

우리 마을의 저 솟대는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가족을 거느리고 마을 앞의 저 두만강을 건너와 이곳에 밭을 일구고 집을 지어 마을을 만든 후 학교를 세운 날 ‘이 마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과거급제 할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으로 세운 거야. 마을만 있고 학교가 없으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그때 ‘학교마을’이라는 조선 글자를 커다랗게 새긴 패쪽을 만들어 솟대 끝 쪽에 단단히 박아놓았단다.

그때부터 우리 마을은 ‘학교마을’이라 불렸고 인근 6개 마을의 애들이 이 마을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여섯 동네의 큰 행사, 작은 행사는 다 우리 마을 학교에서 진행했단다. 얼마나 흥성하고 사는 것 같았는지 몰라.

그 후에 언젠가 너의 할아버지가 향정부에서 한자를 같이 쓰라고 한다면서 ‘학교마을’ 아래에 ‘學校村’이라는 중국 글자를 덧붙여 새긴 새 패쪽을 만들어 바꿔 달았어.

나는 저 솟대가 좋아서 시집가라는 것도 못 가고 너의 할아버지께 시집 와서 그냥 이 마을에 살게 되었는지도 몰라. 어쩐지 저 솟대만 보면 온 마을이 다 멋있어 보이고 힘들다가도 새 힘이 나고 마음이 든든했거든. 그런데 문화대혁명 때 솟대 세우는 습관이 낡은 습관이라면서 솟대를 뽑아버리니 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원래는 솟대 양옆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글발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는 남여장군의 모습을 한 목조품 형상이 보초병마냥 우뚝하니 세워져 있었는데 문화대혁명 때 다 뽑아버리고 패버렸어.

그 후에 문화대혁명의 유독을 숙청하는 때에 다시 마을에 솟대를 세웠는데 그때 난 너무 좋아 밤잠도 못 잤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처 생각질 못했는지 솟대만 다시 세우고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은 다시 세우질 않았지 뭐야……. 그래도 솟대가 있으니까 난 좋아. 중걸아, 너도 솟대가 멋있지…….”

정말이지 중걸이도 솟대가 멋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아스라이 높고 곧은 이깔나무를 세워서 만든 솟대는 끝머리에 장백산 피나무로 만들었다는 목조품 용을 달고

용머리에 빨간 깃발을 멋스럽게 꽂고 있는데 그것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군인들이 전장에서 용감히 싸워 고지를 점령했을 때 고지에 꽂은 깃발 같았다. 그래서 중걸이는 개구장이 친구들과 전투놀음을 놀아도 붉은 넥타이를 먼저 솟대에 매놓기를 하는 고지 점령전을 놀기 좋아했었다. 솟대 끝 부분에는 ‘학교마을’이라는 우리 글과 함께 ‘학교촌(學校村)’이라는 한자가 한데 새겨져 있는 목판이 마을 폐쪽처럼 높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올림픽경기장에 나간 선수들이 가슴에 국기가 달린 운동복을 차려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 같아 보였다. 할아버지는 솟대가 흔들릴까봐 중걸의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로 이깔나무 네 대를 솟대 사면에 박아 둘레를 치고 솟대를 중간에 두고 밧줄로 한데 꽁꽁 묶어 솟대를 든든히 잡아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아무리 센바람이 불어도 솟대는 흔들릴 줄 몰랐고 다만 솟대 끝의 작은 깃발만 바람에 힘차게 나부끼곤 하였다.

중걸이네 집은 바로 솟대 옆에 있는데 중걸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솟대를 쳐다보아야 사름이 놓이고 솟대를 쳐다보며 솟대소리, 두만강물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든든했다.

필락필락……, 출렁출렁…….

이중주를 연주하듯 언제나 함께 하는 솟대소리, 두만강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중걸이는 그 무슨 명곡을 듣기라도 하듯 마음이 즐겁고 편했다.

그랬다. 중걸이는 늘 그 소리를 명곡이라고 생각했다. 음악시간에 선생님이 녹음기로 들려준 세계 유명한 음악가라는 베토벤의 교향악 어느 한 멋진 대목에는 분명히 두만강의 물소리를 닮은 곳

이 있다고 중걸이는 생각했으며 베토벤은 두만강의 물소리를 본
따서 멋진 교향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보기도 했다.

칠썩, 쳐얼썩, 이따금씩 어리광을 부리듯 강 변두리를 부딪쳐
소리를 내보다가는 유유히 흐르는 물결을 자랑하며 조용히 미끄
러지듯 달려와서는 마을 앞 강 둑을 얼싸 안아주며 반가운 듯 출
렁거리곤 하는 두만강물소리는 정말이지 누가 두만강물결을 타고
피아노건반을 통이며 미리 연습해둔 베토벤의 명곡을 연주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솟대 끝의 작은 깃발은 언제나 잰걸음으로 힘차게 나부끼다가
는 문득 한가로이 사알랑, 사알랑 하느작거리기도 하였는데 어쩌
면 그 소리가 학교의 소고대와 대고대가 박자를 맞춰가며 귀맛 좋
게 울려주던 북소리와 비슷했다. 때로는 누가 솟대 끝에 올라가서
북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머리를 들어 쳐다보면 빨강 기폭
만 바람에 나부끼고 있으면서 그 부드럽고 얇은 기폭으로 멋진 북
소리를 내고 있었다. 뒷집 동오 형으로부터 브레멘음악대의 이야
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늘 브레멘음악대가 마을에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중걸이는 좋았다.

뒷집 동오 형은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인데다 시가지에 있는 도
서관에 다니는 친척이 있어서 별의 별 책을 다 빌려다 읽었다. 도
서관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산골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솟대
밑에서 뒷집 동오 형으로부터 『서유기』『삼국연의』『수호전』은
물론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쇠파리』『아라비안나이트』
『브레멘음악대』『임꺽정』『홍길동전』 등 별의별 고금중외의 재미
있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솟대 주변은 마을 애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장이 되고 동오 형은 자연히 마을 애들의 이야기 왕이자 제일 따르고 승배하는 형이 되었다.

고요한 밤, 달빛 아래에 솟대소리, 두만강물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어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마을 애들과 함께 솟대 밑에 모여앉아 밤 가는 줄 모르고 동오 형이 들려주는 구수한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면 정말이지 달나라, 별나라의 작은 신선이 된 기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중걸이는 자기도, 애들도, 마을도 ‘학교마을’ 마크를 가슴에 달고 높이 솟아 있는 솟대와 함께 온통 하늘나라 선경 속에 봉 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따금씩 즐겁게 터지는 애들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을 즐거운 세상으로 만들고 그 웃음소리가 그냥 마을 상공을 지나 달님이랑 있는 저 높은 하늘에까지 올라가 메아리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멋진 마을이 또 있을까 싶어서 한없이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손잡고 솟대를 빙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솟대를 쳐다보며 노래 부르며 놀 때면 솟대 꼭대기에 있는 목조품 용이 아이들 중간에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 두발로 ‘학교마을’ 패쪽을 단단히 잡고 머리에 리본같이 꽂혀 있는 작은 깃발을 팔락이며 북소리 높이 올리며 하늘을 날아예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중걸이는 그런 재주를 자기도 부려보고 싶었다. 그래서 꿈을 꾸어도 늘 자기가 솟대 꼭대기에 올라가 작은 용을 잡아타고 작은 깃발을 팔락이며 브레멘음악대의 북소리와 두만강이 들려주는 베토벤의 교향악 속에서 하늘을 날아예는 꿈을 꾸었고 때로는 아예

자기가 용이 되어 작은 깃발을 제 머리에 꽂고 ‘학교마을’을 자랑하며 온 우주를 날아예는 꿈을 꾸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중절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달빛은 여전히 마을을 대낮같이 환히 비추고 두만강물소리, 솟대소리는 여전한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동오 형의 부드러운 이야기소리와 까르륵, 까르륵 재밌다고 웃어주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전에 쟁쟁히 들리는 듯한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중절이는 자꾸만 눈물이 난다.

동오 형이 그립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운 동오 형이 오늘밤은 더구나 못 견디게 그립다. 동오 형을 생각하면 눈물이 더 솟구친다. 공부도 전교 으뜸이고 소선대 대대장 노릇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서 학교의 영예와 자랑을 독차지하던 형인데, 그토록 훌륭해서 그토록 애들이 좋아하던 형인데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다.

형은 일 년 전에 두 손에 차디찬 수쇠를 차고 연길감옥으로 갔다. 형이 잡혀가던 날 애들은 죄다 올었다. 봉고차에 오르면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말하고 싶은 듯 입귀를 실룩거리던 형의 그 모습을 중절이는 영원히 잊을 것 같질 못하다.

그러던 형이 열흘 전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중절아, 잘 있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겠지?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너도 중학생이 되겠구나. 나,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뒷집 동오 형 이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켜보면 가슴만 쥐어뜯게 되는구나.

후회막급이라는 말의 참뜻을 처음으로 알 것 같다. 넌 절대로 나처럼 되지 말아라. 아니, 나처럼 돼선 안돼. 여기가 어떤 세상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춥고 차고 와롭고 고되고…… 힘든 걸 묘사하는 모든 단어들을 다 모아놓아 보아도 내 힘든 걸 묘사하기엔 너무도 부족해. 따뜻한 교실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사치한 생활이 세상에 없다는 걸 여기에 들어와서야 뼈저리게 느꼈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공부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아. 나 자신을 욕하고 또 욕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 된 내 과거는 돌려놓을 수 없으니 가슴만 찢어지듯 아픈 거야.

중걸아, 부모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절로 공부를 잘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절로 잘하고 자기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너네 부모는 가짜 이혼이라니 넌 나랑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엄마가 한국 간 건 다를 바가 없어. 난 그때 갑자기 부모사랑을 잃었을 때 집을 잃은 두만강변의 물새마냥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 향소재지 초중에 올라와 기숙사에 있으면서 고민 많은 사춘기를 겪는데다 갑자기 엄마, 아빠까지 이혼해 집이 없어지고 내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지니 한꺼번에 고독이 무뎌기로 덮쳐들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 그래서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모든 일에 마음을 불이지 못하고 전자유희청을 떠돌며 내 고독을 풀어주며 함께 놀아주는 친구면 다 좋은 친구라고 여기고 그런 애들과 결의형제를 맺고 의리를 위해 내 주먹 날리기를 영웅의 행세하듯 하다 보니 결국 이 신세가 되었어.

몸도 마음도 다 추운데 너도 알지만 늦잠 자기 좋아하면 내가 늦잠도 못 자고 강노동판에 몸을 내던질 때면 정말이지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그런데 그처럼 내가 목숨 걸고 의리를 지키며 부모 이상으로 믿던 그 많은 친구들이 내가 이곳에 온 후 보러 온 아이가 한 사람밖에 없어. 넌 꼭 친구 잘 사귀고 공부 잘하고 할머니께 걱정 끼쳐드리지 마. 내 말을 꼭 기억해둬야 돼.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 혼날 줄 알아. 약속 했어? 자, 지금 우리 같이 손가락을 내들어보는 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너 손가락을 내들었지? 나 지금 여기서 손가락을 내들고 너에게 약속하고 있어. 꼭 자신을 잘 뉘우치고 인생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출옥할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못 한 공부 꼭 다시 할 거야. 두고 봐. 지금 여기서 짬짬이 교과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미 5년에서 장려로 1년을 감면받았어. 그러나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나가서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아, 솟대 밑에서 마을 애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이야기 왕이 되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구나…….

— 동오 형 보냄.

편지를 보면서 중걸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형이 보였다. 손가락을 내들고 있는 형의 모습이 중걸의 눈에 보였다. 형은 절절한 빛이 가득 어린 두 눈으로 중걸이를 똑바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중걸이는 형이 시키는 대로 실제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의 눈으로는 너무나 똑똑히 보이고 있는 형의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고 무슨 굉장한 식을 치르기라도 하듯이 약속을 했다. 그리고 있는 중걸이 마음에 학교에서 국기게양식을 하던 때처럼 정중한 기분이 갈마들었다.

“형,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형의 길을 걷지 않

을게! 꼭 자기절로 자기를 잘 지킬 거야…….”

맹세하듯 속으로 숱한 약속을 하고 또 하고 난 중걸이는 편지 맨 끝에 ‘동오 형 보냄’이라고 쓴 서명 옆의 빈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색 크레파스로 동오 형과 자기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다지고 있는 그림을 정중히 그려 넣었다.

중걸이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애들에게는 보이고 싶었지만 그러면 할머니가 알게 되고 할머니가 알게 되면 감옥 간 ‘나쁜 형’의 편지를 받아본다고 걱정하실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중걸이는 그 편지를 정말로 소중히 보관해두고 싶었다. 그런데 어디에다 보관해두면 좋을지 몰라 웅근 반나절이나 궁리했다. 나중에 문득 솟대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 솟대가 있어, 거기야.’

중걸이는 편지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주머니를 찾아 그 안에 편지를 넣은 후 무슨 귀중한 보물을 싸듯 여남은 겹도 더 되게 비닐 천으로 싸고 또 싼 다음 또 투명반창고로 단단히 봉했다. 그리고 남들이 알까봐 이튿날, 온 마을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동오 형의 편지와 함께 미리 찾아놓은 손칼을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솟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

중걸이는 먼저 손칼로 사다리높이와 중걸이 키가 닳는 곳에다 ‘김중걸, 이동오’라는 이름자를 새겨놓았다. 그리고 마치 제 가슴에 편지를 꼭 품듯이 이름자 위에 편지를 꼭 대고 비닐 끈으로 꽁꽁 동여매 놓은 후 편지가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뒤 뺨 남짓 할머니가 손으로 삼실을 앗아서 엮은 탄탄한 노끈을 촘촘히 감아놓았

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표식같이 붉은 넥타이를 꼭 매놓았다.

편지 밑 솟대에 중걸이가 손칼로 새겨놓은 ‘김중걸, 이동오’라는 이름자가 확실하게 새겨져 있고 편지 속에 중걸이와 동오 형의 약속이 분명히 씌어 있으며 동오 형과 자기가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새끼손가락을 단단히 걸고 엄지손가락을 힘 있게 맞붙이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음은 누구도 모른다. 그것은 중걸이와 솟대 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다. 솟대 속에 중걸이가 있고 중걸이 속에 솟대가 솟아 있고 중걸이와 동오 형 사이에 굳은 약속이 다져 있음을 중걸이와 솟대만 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솟대를, 그처럼 좋아하는 솟대를 마을학교 폐교로 누군가 뽑아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 중걸이는 얼마나 숨이 막히는 것 같은지 모른다.

‘누구든 솟대를 뽑아 없애지 못함—김중걸’이라는 글발이 또 어느새 학교 교실 벽에 써놓은 표어같이 솟대에도 씌어 있다. 그래도 중걸이는 여전히 불안하고 서글픈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

내일이 개학날이니 내일은 더 미루지 말고 새벽같이 떠나야 한다.

중걸이는 하루라도 더 정든 마을학교를 보고 싶고 솟대를 더 지키고 싶고 아픈 할머니를 더 시중들어 주고 싶어 오늘까지 새 학교로 떠나지 못했다. 학교를 떠나고 솟대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기막히는 일인데 할머니와 갈라지는 것 또한 얼마나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

할머니를 홀로 두고 가는 것이 그냥 마음에 걸린다.

이럴 때면 중걸이는 엄마가 더구나 보고 싶다. 정말이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늘

그랬듯이 중걸이는 저도 몰래 마을 앞을 훌려 지나는 두만강 건너를 내다본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엎어져도 금방 코끌이 가 닿을 듯한 조선의 강변마을이 달빛에 어렵잖이 보이는데 마을 여기저기서 불빛 몇 개가 별빛처럼 빤히 보이고 그 사이로 조선의 개짖는 소리가 이파금씩 들려온다.

그다지 넓지도 깊지도 않은 두만강은 그냥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첨병첨병 뛰어 건너도 눈 깜박할 사이에 건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너에 있는 조선의 남쪽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저 강을 건너고 저 조선마을을 지나 계속 남쪽으로 가면 한국에 닿아 어머니를 볼 수도 있다는데 저 강이 마음대로 넘을 수 없는 국경선이어서 그러지 못하고 조선에 간다 해도 3.8 선이라는 국경선이 가로 막혀 있고 한국과 조선의 군인들이 총칼을 꼬나들고 지키고 있어 그러지 못한다니 중걸이는 국경선의 위엄을 무섭게 느낀다.

국경선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네 나라, 내 나라 사람으로 갈라놓고 한 지구 위에 살면서 서로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지 중걸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오 형이 들려준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신선 등이라는 것이 정말로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의 국경선부터 없애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보고 싶다.

국경선이라는 엄엄한 이름을 띠고 출렁거리며 흐르는 두만강을 내다보고 있는 중걸의 눈에 엄마의 얼굴이 오련히 보인다. 그런데 뒤미처 귓전에 들리는 건 아빠의 욕설소리다.

“위장결혼은 무슨 놈의 위장결혼이야? 법적 수속을 다 거쳐 나

하고 이혼하고 그쪽하고 결혼했으면 한 거지, 쌍 지랄 같은 위장? 누가 그걸 믿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구실하는 세월에 뭐 가짜결혼? 한국바람이 났으면 거저 났다고 해라. 돈벌려 갔다는 년이 돈도 안 부쳐 보내면서 돈벌이를 갔어? 뭐 자식 위해, 가정 위해? 노래면 듣기나 좋지, 그런 데에 속을 사람은 아직 세상에 나지도 않았어…….”

어머니는 처음엔 달마다 아빠께 돈을 부쳐오셨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시가지에 있는 이모를 통해 할머니께 생활비만 보내오고 아빠께 돈을 보내지 않으셨다.

“남자들 돈이 있으면 마누라가 피땀으로 번 돈인 줄 모르고 딴 여자들에게 눈을 팔기 마련이야요. 형부도 마찬지야요. 그래서 언니보고 돈을 부쳐주지 말랬어요…….”

이모가 할머니께 한 말이다.

증걸이는 이모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한국으로 위장결혼을 간 다음부터 아버지가 딴 사람으로 변해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었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더구나 달라지는 것 같았다.

“내 그럴 줄 알았더니까, 개떡 같은 가짜결혼? 이젠 한국 국적까지 가져서 한국 사람이 다 됐으니 거기서 쪽 살아래라. 난 뭐 머저린 줄 아니?”

“형부, 왜 이러세요? 한국 국적을 가지면 돈 벌기 쉽고 웠다 갔다 하기가 편리해서 그런 건데, 형부는 뭐 알기나 하구 그러세요?”

이모는 늘 엄마 편이었다.

그래도 아빠는 쪽하면 할머니가 애써 차려놓은 밥상마저 마구 뒤엎어버리며 집안을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중걸이는 할머니 품에 기여들어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무서워 오돌오돌 떨곤 했다. 할머니는 한숨이 늘고 푸념 질이 늘고

“어휴…… 그 비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자구 한국 국적이라니? 넓은 중국 땅의 편편한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어찌고? 옛날 중조할아버지랑 저 앞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을 찾아와 이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동네를 만들고 여태까지 한 가족이 헤어짐이 없이 살아왔는데……. 어이휴……, 돈이 뭐길래? 돈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울고불고 하니 원, 사는 꼴이 왜 이러냐? 살자구 사는 건지 어쩌자구 사는 건지……. 어이쿠, 내 가슴이야, 어이쿠…….”

아픈 데라곤 모르시던 할머니는 그 무렵부터 가슴앓이를 시작했다.

“우리 중걸인 어미, 애빌 닳지 마라. 넌 할아버지가 넓은 중국 땅에서 호걸이 되라고 ‘중걸(中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느니라, 그걸 잊지 마라,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느니라. 한국 가면 목돈이 절로 생긴다더냐, 별의별 고생을 다 한다던데. 네 어민 그 약한 몸으로 어떻게 빼쳐내는지, 원. 어이휴 내 가슴이야. 사는 게 왜 이런지? 쯧쯧…….”

중걸이는 할머니의 말뜻을 알 것 같았다. 그리하여 커서 꼭 넓은 나라 중국 땅에서 큰일 하는 큰 사람이 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커서 장가들면 꼭 아들딸 많이 낳고 한 가족이 헤어짐이 없이 언제나 함께 살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

리리라 생각했다.

중걸의 시선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국경선 두만강을 지나 조선의 마을을 거쳐 먼 남쪽 끝의 밤하늘에 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중걸이는 이렇게 남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 중걸이는 입속으로 조용히 어머니를 불러보았다. 이 밤, 자기의 모든 마음을 어머니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마을학교 폐교와 마을 애들이 연합학교에 가는 일을 어머니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중걸이는 모른다. 그러나 중걸이는 어머니가 모른다 해도 괜찮았다. 중걸이는 꼭 잘할 수 있으니까.

머리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둥근 달님이 그냥 솟대 끝에 걸려서 떠나질 않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 저 둥근 달님은 저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서 양쪽에 갈라져 있는 자기와 어머니를 동시에 다 내려다보고 있으련만 이 밤의 자기 모습과 자기 마음을 저쪽 하늘 아래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저 달님은 저렇게 거울처럼 환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어 서로가 쳐다볼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아니, 커서 과학자가 되면 그런 달님을 커다랗게 만들어 하늘에 척 걸어놓으리라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운 사람들이 쳐다보며 서로가 그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하늘거울을…….

“쿨룩쿨룩, 중걸아……, 쿨룩쿨룩…….”

문득, 할머니의 기침소리와 부름 소리가 들린다. 중걸이는 저도 몰래 솟대 밑에서 벌떡 일어섰다. 온밤 솟대 밑에 있고 싶지만 아

픈 할머니가 걱정되어 그럴 수가 없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니다, 어서 자거라. 내일 일찍 가야지.”

할머니 곁에 조용히 누운 중걸이는 자기가 그냥 솟대 밑에 있는 것만 같았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치락거리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혼곤히 꿈나라에 빠져들었는데 꿈에 글쎄 국경선 두만강을 침병침병 뛰어 건너고 3·8선을 한걸음에 넘어서 엄마를 만나러 한국으로 갔다. 3·8선이라는 게 어쩌면 마을 애들과 유희를 놀 때 운동장에 나뭇가지로 그어놓았던 금 같아서 한걸음에 넘어섰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국경선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이상해서 자꾸만 돌아보았다. 언제 오셨는지 엄마가 그 국경선이고 3·8선이라는 금 옆에 와 계셨다. 그런데 금방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앓음 소리가 들린다.

“어휴, 가슴이야, 어휴— 탕탕…….”

할머니가 가슴 치는 소리에 중걸이는 어느새 꿈에서 깨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습관적으로 전등을 켜고 정통편(正痛片) 한 알과 물 한 사발을 들고 할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정통편 드세요 아— 아— 하음—.”

긴 하품을 함께 쏟아내는 중걸의 두 눈에 잠이 가득 달라붙어 눈까풀이 반도 들리지 못한 채로다. 너무 졸려 자꾸만 고개가 꾸벅꾸벅 아래로 떨어지려 하는데 할머니가 약 드실 물 사발만은 기울어질세라 똑바로 들려 있다. 마치 무술을 잘하는 소림사(少林寺) 도사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면서도 손에 든 술 사발만은 기울어짐이 없이 취중무술(醉拳)을 표연하고 있는 모습 같다.

한창 잠이 모자랄 개구쟁이 13세이건만 할머니의 인기척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렇게 오밤중이라도 기계처럼 벌떡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나 시중을 들어왔다. 다행히 할머니는 정통편 한 알만 드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앓음 소리도 푸념질도 안 하시고 풀풀 입김을 부시며 편히 주무신다. 정통편은 할머니에겐 만병통치약이다. 허리, 다리, 머리, 가슴 어디가 아프든 정통편만 잡수시면 80 고령을 바라보는 노인 같질 않게 아픈 줄을 모르시고 집안일 바깥 일 쉴 새 없이 하신다.

“에그, 그 정통편이 없으면 못살아.”

할머니는 정통편을 받아서 꾸룩 소리 나게 넘기셨다. 그런데 오늘 따라 그 정통편이 무효다. 그것이 지나도록 그냥 주무시질 못하고 자꾸만 뒤척거리며 쉴 새 없이 푸념질이시다.

“어이휴, 어떻하노. 어린것이 어떻게 집을 떠나 숙사에 가 있을 텐데 어떻게 세운 학교인데 없어지다니? 어이휴, 내 가슴이야.”

할머니 푸념질에 중걸이도 잠이 짹 가벼워 잠들 수가 없다.

“할머니, 나 내일 안 가면 안 돼요? 공부는 교과서를 보면서 나절로 할 수 있어요. 나, 가면 할머니 혼자 어떻게 있어요. 밤에 정통편과 물을 누가 갖다드리고…….”

중걸의 제일 큰 걱정이다.

“그런 소린 하지두 마. 할미 걱정 말고 폭 자고 내일은 일찍이 향 연합학교로 가는 거야. 다른 애들 다 갔는데 너만 못 가고 있으면 할미 가슴통이 더해 이것아. 에그 불쌍할꼬 아비라는 건 어디 가 있는지? 애 이불 짐이라도 들어다주면 좋으련만. 셋집을 옮겨서 찾지 못한다니 어디 가서 밥이나 제때에 먹으며 사는지. 시

가지에 가면 덕대에 엎어놓은 돈이 뭉치로 생기는 건지. 그 농사 재간을 썩이지 말고 집에 돌아와 농사나 잘 지으면 좀 좋겠느냐. 내일 왕 촌장이 같이 가줄 거다. 고맙다고 인사 잘 하거라. 어이 휴, 어이 휴, 탕탕…….”

할머니는 이불깃을 껴당겨 눈구석을 쳐으시고 중걸이 손을 당겨 꼭 잡으시며 주무실 염이 없이 부탁이 태산 같다.

“가서 공부 잘하고 별일 없어야 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할민 못살아. 이것아, 응? 어이 휴, 내 가슴이야…….”

“할머니, 근심 마세요. 나 잘할 거야요, 꼬옥, 정말 잘할 거야요…….”

그 다음 말을 중걸이는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뭘 근심하는지 중걸이가 잘 알고 있고 중걸이가 뭘 어떻게 잘 하겠다는 건지 할머니도 잘 아시니까…….

이튿날 아침, 할머니가 여느 때보다 정성들여 차려놓은 아침을 중걸이는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아 먹는 등 마는 등했다.

“쫑제, 떠우쭐뻬이호우러마? 까이추파리바(중걸아, 준비가 다 됐어? 떠나야지).”

어느새 왕 촌장이 문을 열며 들어선다.

“나이나이, 춘리더깐즈부빠. 쌍장숴라. 나쓰초우샌주이민리쓰원 우쭝더이거, 부넝빠. 귀지텐유지저라이쪼우쌍, 바깐즈쪼우팬파보 위초우샌주이민리쓰쭈쌍. 량밴하이쭈거텐샤따쟝쥔, 띠싸뉴쟝쥔(할머니, 마을의 솟대를 뽑아버리지 않아요. 향장이 말했어요. 저건 조선족 이민역사에 남는 문물 중의 하나라고 뽑을 수 없대요. 며칠 후 기자가 와서 솟대를 사진 찍어 조선족이민사 책에 낸대요. 솟대 양쪽에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장군도 세운대요.”

왕 촌장이 할머니가 잘 듣지 못할까봐 목소리를 높여가며 말한다.

“찐데? 나머, 바워먼쉐쏠후에파이쪼우허깐즈쪼우팬이치파보위
쓰쌍예싱바?(정말이야요? 그럼, 우리 학교도 사진 찍어 솟대 사진과 같
이 책에 내도 되겠네요?)”

“쓰아, 쓰요우나양더(그래, 그러기로 했어).”

“찐데(정말)! 할머니!”

어느 결에 할머니의 목에 매달려 어지간히 좋아하고 있는 중걸
이 얼굴에 오래간만에 엷은 웃음기가 피어올랐다. .

“그럼 그렇겠지! 고마우이, 왕 촌장. 이 늙은이 부탁을 듣고 향
장을 만나러 갔다오느라 수고했수다. 고마우이.”

중걸이의 통역을 듣고 할머니는 기뻐서 팔소매 끝으로 눈구석
을 찍으셨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벌써 왕촌장에게 중걸이가 하고
싶던 부탁을 해둔 것이었다.

왕 촌장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서는 중걸의 마음이 지난밤보다
加倍 가벼워졌다. 그러나 할머니 손을 잡은 순간, 중걸이는 목소리
가 나올 틈이 없이 목이 꼭 메여 아무 말도 못했다. 목이 메여 목
구멍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눈물이 되어 눈구멍으로 자꾸만 흘러
나왔다.

“사내자식이 눈물은? 길을 떠날 때 올면 못써 솟대야, 우리 중
걸이 공부하러 간다. 과거급제하고 올 때까지 그 깃발을 힘차게
날리거라.”

할머니가 지난밤보다 많이 씩씩해져서 중걸이는 다행스러웠다.

“거거, 짜이잰(오빠 잘 가).”

왕촌장의 여섯 살짜리 딸 슈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생글거린다.

“나이나이, 거거썬며쓰호우짜이라이(할머니, 오빠 언제 오나?)”

슈란이가 할머니 팔을 흔들며 묻는데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해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까 슈란이가 더구나 할머니 팔을 세게 흔들며 자꾸 묻는다.

“에그, 요 한족 계집애야. 할미 네 말 알아들으면 좀 좋겠느냐. 어이휴, 세월은 별나게두 변한게, 옛날에는 한족들이 조선말을 배우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기 바빠했건만 지금은 조선족들이 한족 말을 배우지 않으면 살기 바쁘니 원, 70이 넘은 할미가 코흘리개 너한테서 한족 말을 배워야 쓰다니?”

할머니는 꽤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슈란의 이마를 쓸어주신다. 슈란이와 할머니가 한족 말을 배워주고 배우기로 약속하며 손가락걸이를 하는 걸 보고 중걸이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다소 위안을 느끼기도 했다.

개학날이라 아침 상학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해야 했으므로 중걸이네는 걸음을 다그쳐 부랴부랴 마을 뒷산 첫 고개에 올라섰다. 첫 고개는 두만강으로부터 대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있는 첫 고개라는 데서 첫 고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거기에 올라서면 마을이며 두만강이며 조선이 눈앞에 펼쳐놓은 그림책을 보듯 한눈에 안겨온다.

개학 첫날이라 웃고 떠들며 즐겁게 등교하는 애들로 범석 끓어야 할 마을학교 운동장이 훙하니 텅 비어 있다. 이전 같으면 학교 방송에서 한창 우리 민족의 민요 ‘아리랑’, ‘도라지’와 ‘나의 살던 고향’ 등 우리말 어린이노래가 힘차게 울리고 애들이 깡충거리며

웃고 떠들며 서로 반가워할 시간인데, 그래서 온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교 방송에서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즐겁게 밭일을 나가고 집에 있는 늙은이와 애들은 아예 운동장 주변에 주렁주렁 나와 서서 큰 구경거리를 보기라도 하듯이 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과 이제 곧 있게 될 멋진 개학식을 구경하려고 할 때인데, 지어 마을의 닭, 개, 짐승들마저 나래를 펴덕이며 깽충거리며 온 마을이 경사를 치르듯 개학날을 축하하며 흥겨움에 들끓고 있을 때인데 운동장도, 학교도, 마을도 쥐죽은 듯 고요하다. 온 마을이 다 텅 빈 것 같다. 이따금씩 울리는 소들의 영각소리가 마을의 고요함에 더욱 적절한 기운을 더해준다.

이른 아침이라 두만강에서 피어난 얄포름한 물안개가 고요한 마을을 살포시 감싸주고 있는데 하얀 물안개가 조용히 흐르는 마을은 여전히 꿈에 본 하늘나라 선경같이 아름답다. 솟대 옆에 서 있는 할머니의 하얀 저고리와 하얀 머리가 지붕을 감돌고 있는 하얀 물안개에 어우러져 더욱 하얗게 보이고 슈란의 머리에 쓰고 있는 파란모자가 하나의 파란 점이 되어 할머니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중에서 소소리 높이 솟아 있는 솟대가 제일 유포하게 눈에 뜨이는데 솟대 끝에 단 뺨간 깃발이 하얀 물안개 위에 더욱 뺨간빛을 발산하며 바람에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 솟대 중간에 꼬옥 매여 놓은 중걸의 붉은 넥타이가 솟대 끝의 깃발 밑으로 팔랑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알린다.

팔락팔락……, 출렁출렁……, 팔랑팔랑…….

학교마을에서 솟대 숨쉬는 소리, 두만강 물 숨쉬는 소리, 붉은 넥타이 숨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온다.

수필부문

대상 | 출

우수상 | 마들렌 뱅이 있는 풍경

기작 | 김나무 잎사

기상 | 졸짜의 미리

고려 | 금십이

기작 | 아버지의 노년 사진기

기작 | 동백꽃

려 옛기름을 뿐리고 가마 뚜껑을 꼭 덮어둔다. 지나치면 쉬고 덜 하면 걸리지지 않는 죽물이 맞춤하게 삭았다 싶으면 밭이 성긴 보자기로 걸러서 다시 가마에 넣고 느긋한 불에 몇십 시간을 졸인다. 그렇게 졸인 농축액이 바로 옛이다. 정성을 어느 만큼 들였는가에 따라 옛이 옛으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성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조작방법이 품과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어머니는 망질이 시작되고부터 다 된 옛을 가마에서 펴낼 때 까지 몇 날밤을 부엌에서 쪽잠을 자는지 모른다.

옛졸임이 끝나면 뒤이어 깨나 쌀, 콩 따위를 튀겨 여러 가지 옛 강정을 만든다. 옛붙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대충 다 끝내면 대개 설달 스무닷새가 되는데 그 다음의 스케줄을 어머니는 미리 손을 꼽아 빈틈없이 잡아놓곤 했다. 스무이렛날은 이불빨래를 하고 여드렛날은 다듬이질을 해서 이불을 꿰매고 아흐렛날은 떡국과 시루떡을 만들고 그믐날 아침엔 증편을 짠다. 김이 꽉 서린 정주에서 짜낸 증편 위에 빨간 잉크, 파랑 잉크로 꽃무늬까지 찍는 일 이 끝나야 어머니는 비로소 허리를 편다.

그 다음 옛이며 옛과자며 만든 떡 가지를 바리바리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이우고 들려서 큰아버지네 집으로 떠난다. 큰아버지네는 우리 동네에서 3여 리 상거한 곳에 있었는데 아주 큰 한족 동네였다. 큰아버지는 거기서 작은 진료소를 꾸리고 있었다. 큰아버지의 의술이 팬찮은데다 큰어머니는 갓난아기를 받아내는 접산부 일을 하려 다녀 ‘박의사네’라면 원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교통 도구래야 말마차밖에 없던 세월, 한밤중에라도 아기를 낳으려는 산모가 생기면 그 가족들은 말마차를 몰고 와 큰어머니

를 모셔가곤 했다. 한번은 어느 곳에 몹시 위급한 상황의 임산부가 생겼는데 농토 길이어서 말마차가 몹시 들추기만 하고 빠르지 못하다며 큰어머니는 마차에서 말 한 필을 벗겨내어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30리 길을 밤도와 달려가 접산을 했다고 한다.

큰어머니는 술도 잘했다. 접산부 노릇을 시작해서 무가내로 배운 것이라고 했다. 애 받는 일이 끝난 후 손과 몸에 밴 비릿한 피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술 이상이 없다고 했다. 큰어머닌 술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음식솜씨가 또한 뛰어났다. 한족들 속에 섞여 살면서 배운 것이어서 한족들이 즐겨먹는 볶음채를 만드는 솜씨는 한족 사람 뺨칠 정도였다.

그중에서도 죠즈(물만두) 빙는 솜씨가 일류였다. 밀가루를 소금물에 반죽하여 반 시간 가량 숙성시키는 동안 죠즈소를 만드는데 죠즈소에 쓰이는 돼지고기를 텡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벽돌장 크기만한 묵직한 중국식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나눠 들고 도마 위에 놓인 살코기를 통탕통탕 가락맞게 찍어대는 그 모습은 우리 어머니가 빨래한 이불 안을 침석 위에 돌려놓고 다듬이질하는 모습과 신통히도 똑같았다.

다른 점이라면 우리 어머니는 구들목에 다리를 포개고 앉은 맵시로 일을 했고 큰어머니는 두 다리를 뻗치고 선 맵시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죠즈소는 각자 입맛에 따라 만드는 재료가 다를 수 있는데 텡친 고기에 나름대로의 남새를 반반으로 섞고 바싹 달군 콩기름과 짙은 고기국물을 조금 넣은 후 파며 간장이며 소금파워 여러 가지 양념을 곁들여 고루 버무리면 죠즈소가 완성된다. 숙성시킨 떡반죽은 먼저 가래떡처럼 굴려서 새알만큼씩의 크기로

썰어야 하는데 남들은 칼로 베는 이 작업을 큰어머니는 칼 대신 맨손으로 해치웠다.

그러나 뜯어놓은 떡의 크기는 남들이 칼로 벤 것보다도 더 일 매겼다. 그 다음은 뜯은 세알 떡반죽을 손바닥으로 작고 놀러 모양을 낸 후 밀대로 얇게 밀어내는 절차다. 한 손으론 한 뺨 크기의 밀대를 굴리고 다른 한 손으론 떡반죽을, 그것도 두장을 겹쳐 쥐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밀어낸다. 컴퍼스로 돌린 것때문에 동그랗게 나온 떡반죽 위에 이번엔 준비한 소를 한 숟가락 올려놓고 쌈을 싸듯 두 손아귀를 한번 꼭 오므렸다 퍼면 예쁘고 앙증맞은 죄즈 하나가 탄생된다.

중국 사람들은 설달그믐날 저녁엔 꼭 이렇게 빚은 죄즈를 먹는 철칙 같은 풍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면 큰어머닌 만사를 젖혀놓고 죄즈를 빚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죄즈는 배도 불릴 수 있고 술안주로도 제격이라며 아버지는 어머니가 만들어간 음식보다도 큰어머니가 만든 음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나 담백한 것을 선호하는 큰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만든 알록달록한 증편에 수저를 더 많이 보내셨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대개 초하룻날 차례 제상 위에 많이 올랐다. 떡이며 옛과자 파워를 키 높게 고인 차랫상은 풍성하고도 호함져 보기에도 좋았다. 온 집안 식구가 한복 같은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다듬은 후 차례제를 지낸 뒤에야 초하룻날 아침 조반이 시작되는데 식사를 끝냈다 하면 큰어머니는 입었던 옷을 벗어 팽개치고 설거지 같은 뒷일을 어머니에게 전탁한 후 윗방에 올라가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잠이 들어버린다. 자시는 음식도 가진

성격도 일하는 품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적합했을 법한 큰어머니는 대인관계가 좋아 친구도 많고 처세술에도 능했다.

큰아버지네 집은 설 인사를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설 인사를 오는 그 대부분이 한족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절대 빈손으로 설 인사를 오는 법이 없었다. 생꿩, 노루고기, 메, 돼지고기, 닭, 닭알, 절인게사니알, 버섯, 잣, 개암씨, 해바라기씨 등의 자지방 방물이 있는가하면 심지어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만든 찰옥수수송편이나 언두부모까지 아니 들고 오는 음식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큰아버지에게서 병을 고쳤거나 큰어머니가 접생을 해준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몇 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은덕에 감사할 줄 아는 솟접은 시골 사람들이었다.

“애가 얼와즈요? 엊그저께 텃줄을 끊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컷 구만. 얘 아버지도 내가 받았다니까. 얼와즈, 너도 빨리 장가가거라. 이 할미가 네 아들까진 받아주고 죽어야 할 텐데.”

큰어머니는 인사차 온 설 손님들을 일일이 이렇게 반겨주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우리는 사촌들을 따라 동네 마실을 돌곤 했다. 조선족과 달리 한족 사람들은 초하룻날 손님이 여자라도 꺼리지 않고 환대를 해주어 무관없었다. 인사법도 우리처럼 엎드려 절을 하는 대신 ‘꿔낸호우!’(설 잘 쉿습니까!) 하는 식의 단마디로 주손의 인사 수작이 끝나버려 어딘가 싱겁기도 했지만.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세도 자못 열정적이었다. 볶은 해바라기씨를 내여 놓고 오차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손님의 성별 여하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네들이 피우던 긴 장죽에 앞담배를 가득 담아 건네준다. 좀더 친절을 배풀 것 같으면 그 장죽에 손수

불까지 붙여주는데 성냥을 그어 장죽 끝에 있는 대통에 가져다대고, 칫솔질을 하지 않아 이똥이 꽉 박힌 입으로 빼꼼빼꼼 뺄아 불이 달리면 그대로 손님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손님으로 간 사람에게 해주는 덕담 같은 것은 별로 없고 보통 손님을 주패놀이에 극진히 청한다. 그럼과 문자로 어우러진 주패장은 우리의 화투장 두장을 세로 이어놓은 크기만한 것인데 주패장을 한 장씩 바꾸는 과정을 통하여 누가 남 먼저 꽂을 다 맞추는 가에 따라 승부가 나는 놀음이었다. 맞돈내기를 하는 주패놀이는 우리처럼 또래별로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은 가장 엄엄한 사이에도 무림없이 진행되는 게 야릇하기까지 했다.

끼니때가 닥치면 주인은 손님을 식탁에 청해 함께 식사하기를 권장하는데 식사를 거절하면 결례가 된다고 사촌들은 별 사양 없이 식사에 응했다. 주인은 육속 자기의 젓가락으로 손님에게 음식을 날리다주어 무척 난감했다. 들여온 음식상엔 온통 돼지고기 요리뿐이었다. 그들은 설이 되면 집집이 일년 내내 기른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 엎질러놓고 정월 한 달을 돼지고기 요리로 산다고 했다. 그러다가 음력 2월 2일이 되어 마감으로 돼지머리고기를 먹어 치우면 그 이튿날부터는 옥수수가루로 구운 빵에 파 한 줌, 된장 한 그릇이 일년 내내 계속되는 음식의 전부라고 했다.

초사흘날이 되면 어머니는 드디어 일가 솔반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초승에는 여자들의 마실돌이가 거의 금지된 상황이고 또 집에 찾아오는 첫손이 남자이길 바라는 마을의 규칙 같은 풍속에 어머니는 우리 여자애들의 바깥출입을 엄단했다. 초나흘날 쯤해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놀러 와서 콩나물 같은 값싼 반찬에 배갈 한

잔씩들을 마시고도 흥이 도도해 박바가지를 물양푼 위에 엎어놓고 젓가락으로 바가지 등을 두드리면서 밤새 즐기곤 했다.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옆집이나 친구 집으로 뛰어가서 놀곤 했는데 텔레비전 따위가 없던 때라 언 옆을 녹이며 아랫목에 편 이불 밑에 발을 묻고 앉아 귀신이야기 같은 걸로 날을 새기도 했다.

애들이 기다리는 건 이웃 한족 동네에서 오는 양걸춤꾼들이었다. 용의 허리처럼 긴 대열을 만들어 대고 와 새납소리에 맞춰 두 발 전진 한 발 후퇴의 보법으로 추는 양걸춤은 중국사람들의 태평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끈기있는, 매사에 근신하는 생활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민속문화행사였다. 화려한 색상의 수건이나 붉은 색 이불거죽을 허리에 비꼬러매고 그 두 끝을 호접처럼 펄럭이는 춤꾼들의 얼굴은 나타상처럼 소름끼치는 화장법도 있고 배꼽을 잡고 웃어보도록 익살스러운 화장법도 있었으며 치마 속에 두 다리를 감추고 난쟁이질을 하는 무대랑(『수호전』 속의 인물)의 화신도 있었고 가뜩이나 큰 키에 한발이나 되는 나무다리를 끼여 짚고 서서 몸을 흔들어대는 기린 같은 위인도 있어서 구경꾼들의 흥미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동네 골목골목을 이 잡듯 누비며 한나절씩 춤을 추었는데 그쯤 하면 술이 거나하게 된 동네 남정네들은 춤 대열에 끼여들어 한판씩 놀아주기도 했고 동네 아낙들은 부녀회장의 동원하에 집집에서 만들어두었던 옷을 각출해서 춤꾼들을 호로하기도 했다. 부식품이 흔치 않던 세월에 달콤하고 노긋노긋한 옛을 처음 먹어보는 춤꾼들은 그때마다 엄지손가락을 빼어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 사라미 땅호우와.” (조선사람은 참 좋습니다.)

이렇듯 내 기억 속의 설은 마냥 똑같은 기대와 설렘의 연속이었고 생세지락이 있는 즐거운 날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설은 그런 설렘과 기대가 없이 빨리도 찾아온다.

어느덧 칠순에 나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설이 오는지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올해 몇입교?” 하는 물음을 받으면 “마흔둘.” 하는 식의 어기찬 대답을 해버리는 치매를 앓는 몸이 되었고 말을 타고 밤 별판을 주름잡았던 큰어머니의 얼굴에도 거미줄 같은 세파의 도장이 깊숙이 자리내려 버린 지금 설은 더 이상의 기다림도 아니고 설렘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다. 옛이고 떡이고 고기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문전까지 배달이 되어 포장지를 터뜨려 가마에 넣기만 하면 되는 요즘의 설은 너무나 습습하게 들렸다가 무척 조용히 떠나가는 과객 같은 설이 되어 섭섭하기까지 하다.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왕씨 댁과 장씨 댁에서는 빨간 종이에 복과 재운과 안녕을 비는 내용의 주련을 사다 문설주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액을 쫓는다고 거금을 들여 폭죽을 사다 듣그렵게 터뜨리는가 하면 죠즈를 빚느라고 통탕통탕 도마질을 하며 복적이는 데 유독 우리집만은 한적하다. 큰아버지가 작고한 뒤를 이어 아버지도 타계를 한데다가 사촌들은 일본이다, 프랑스다, 한국이다 하며 저마다 돈벌이를 떠나가 버리니 가문은 넓어도 올 이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올 사람이 없으니 기대가 없고 기다림이 없으니 설렘도 없다.

죠즈 삶는 가마에서 서려 오르는 김 때문에 한산하던 정주에 화기가 돌 즈음 학교에서 사감 일을 맡아보고 있는 남편이 웬 낯선 처녀애를 앞세우고 들어섰다. 방학이 돌아오고 설이 되어도 집

이 없어 오갈 데 없이 된 처지가 딱해 데려온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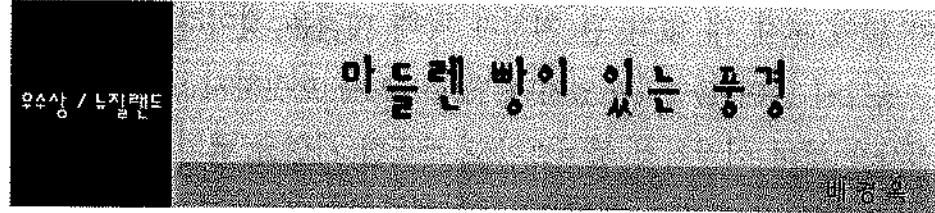
생각지 않던 불청객이었지만 밥상머리가 호젓하지 않아 좋았다. 식사를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아도 똑똑한 사연을 뺐지 않고 두 눈에 눈물만 핑 돌리는 처녀애는 설 기간에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하는 식당이 없느냐고 자꾸 물어왔다.

“설이 싫어요……. 설이 올까봐 겁나요……. 돈이 있으면 뭘 해요? 방학을 해도 돌아갈 집이 없어요……. 벌써 3년째 저는 바깥에서 설을 혼자 쇠었어요.”

처녀애는 끝내 눈물을 멀구어버렸다.

아버지가 돈 벌려 한국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어머니 몰래 딴살림을 차린 것이 들통나 어머니도 거금을 들여 일본으로 ‘시집’을 가버리다니 두 곳에서 가끔 돈은 부쳐주나 자기는 오갈 데 없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명절을 맞아 환담 대신 부서진 가정 때문에 준축된 처녀애의 심충을 듣는 내 가슴은 치연하기만 했다. 365일을 밖에서 돌아가도 그믐날 저녁만은 한집안이 환좌해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으로 묵은해를 충화하고 새해를 전망하며 생활과 마음에 활력소를 주입해야 할 설이 언제부터 우리에겐 이렇게 쓸쓸한 날로 되었을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되 가정이란 전 살 수 없거늘 바라전대 돌아오는 설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기쁨과 화합이 있는 설 같은 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1 어느 계을 오후

그가 한 손에 자그마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다.

그날은 마침 내가 감기로 드러누워 있을 때였다. ‘육신이 흐느
적거리도록 곤할 때 정신은 은화처럼 맑소’라는 이상의 글 구절을
떠올리며 반쯤 누워 바라보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머
리맡에는 프로스트의 책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다.

미열이 있었지만 크게 앓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 감정의 사차를
즐기기에 충분했다. 읽고 있던 책 속에서는 프로스트가 마들렌이
라는 프랑스 빵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고 있었고, 나는
작자와 함께 속 기억 저편의 일들을 하나씩 헤고 있었다.

마들렌……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사람 이름이라면 금
발에 깊고 푸른 눈을 가진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의 소녀일 것도
같고, 또한 빵이라면 입에 넣는 즉시 사르르 녹으면서 현재의 시
간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만들 것 같
은 그런.

주문에 걸린 듯 책 내용에 빠져들어 버린 나는 ‘마들렌 빵이 있

다면 나도 과거를 여행할 수 있을 텐데, 꼭 한 쪽만 먹어봤으면……’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문득 나를 찾은 그가 들고 온 봉지 속에는 거짓말처럼 그 마들렌 빵이 들어 있었다.

사실, 나는 아직도 그것이 진짜 마들렌 빵인지 아닌지 모른다. 책 속에 나오는 그 빵의 원래 모양과 맛이 어떤지도 알 바 없으니 그저 결봉에 마들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간절하게 한 입만 먹어 봤으면 하고 바라던 순간 한 남자가, 내 애인이 그것을 들고 날 찾았다는 것이 의미 있을 뿐이었다.

#2 저녁녘의 대학 도서관

그는 시험 일정이 사범대학보다 더 길고 빽빽한 공과 대학생. 일찍 시험을 끝낸 그녀는 내일 아침 1교시에 있을 시험 준비로 한참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공대생 옆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춘희」였던가 「마농레스코」였던가. 아니면 또 다른 소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간 어느 부분에 ‘포도사탕’을 먹으며 오페라를 관람하는 귀부인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 구절에서 철없는 그녀, 나는 또 불현듯 포도사탕 생각이 간절했다. 그것이 번역의 실수인지, 제대로 된 과자 이름인지 따질 것도 없었다.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소설 구절의 ‘포도사탕’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됐다.

조용한 도서관 한 구석에서 주위의 눈치를 살펴가며 그 소설 구절을 읽어졌다. 그리곤 덧붙였다. 이거랑 꼭 같은 것이 먹고 싶다고.

그러자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봐야 할 시험도 아랑곳 않고 즉시 일어나는 공대생. 난 다시 소설 속에 파묻혔고 그 동안 꽤 시간이 흘렀던가 보다. 어둑하던 바깥이 완전한 까만 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반 시간쯤이 지났을까?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비슷한 걸 찾느라 한참 걸렸다면 그가 내놓은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상표명 ‘청포알 사탕.’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고맙다’는 간단한 말치레조차 필요없는. 또 그때는 그럴 줄로만 믿었다. 이 남자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라면 늘 그런 포도사탕이 마술처럼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나 ‘사랑은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그는 감상에 빠진다거나 낭만을 찾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죄악시한다고까지 해야겠다. 그러므로 우연히 내가 먹고 싶었던 마들렌 빵을 사들고 온 것이나 학교 주위의 상점을 모조리 뒤져 ‘포도사탕’ 비슷한 ‘청포알 사탕’을 사온 것도 낭만을 찾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낭만이 없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야겠다.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그에게는 낭만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적인 의미의 낭만을 기대하는 보통 사람인 나와는 달리 그에게 ‘최고의

낭만'은 '최고의 실용'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예컨대, 마들렌 빵을 통한 우리의 텔레파시에 감격하고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무심히 김치통을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다. 포기째 들어있던 김치가 먹기 좋은 크기로 가지런히 썰어져 담겨 있었다. 그 뿐인가? 김치 맛이 달아 나지 않도록 배추의 푸른잎을 펼쳐 썰어 놓은 김치를 잘 덮어 두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먼저 출근하는 그가, 아이와 함께 동동거릴 내 출근 시간을 위해서 해놓은 배려, 이것이 바로 그의 낭만일 뿐이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끌렸노라 하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정의 유희를 즐기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시에 나는 그의 지나친 합리주의 혹은 실용주의에 질리곤 한다.

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연애 시절에조차 멋진 실내장식보다는 음식이 푸짐한 식당에서 밥을 사줄 때나, 문득 낭만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일에 열중해 있는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다정한 눈길이 아닌, 아무 일도 없으면서 왜 시간낭비를 하느냐고 묻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볼 때도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절절한 눈빛으로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소설 속의 구절을 떠올리며 '내가 도대체 눈이 멀어 있는 것일까 이렇게 다른 줄 알면서도 왜 이 남자와 나는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일까?' 자꾸자꾸 되물으면서도 나조차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습관처럼 매일같이 만나곤 하는 것이었다. 긴 연애 기간 끝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온 세상에 공표한 것 역시 습관처럼 당연한 일이었음은 물론.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에게 달라

진 전 하나도 없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이만 들고 철은 들지 않은 나는 여전히 하루종일 낭만만 부르짖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찌감치 철이 들어 있던 그가 여전히 실용과 합리를 부르짖는 생활은 변함없었다. 두 사람이 의견 차이를 보일 기회도 많아졌고 언성을 높일 기회도 늘어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애를 할 때는 각자의 집으로 가느라 잠깐씩 헤어져 서로의 의견 차이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젠 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한국생활을 할 때는 그럭저럭 지나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 박자가 늦게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쉬엄쉬엄 진행되는 한가한 나라, 반면에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라 남녀 간의 애정 표현에 스스럼이 없는 키위들이 사는 뉴질랜드로 옮기면서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다.

즉, 별로 예쁜 것 같지도 않은 자기 아내나 애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며 연방 뾰뽀를 해대는 키위 남자들을 볼 때마다, 자기 남편이 맨날 장미만 사다 날라서 따분하다며 어떻게 남자가 낭만도 없이 한 가지 메뉴밖에 모르느냐고 턱도 없는 투정을 부리는 옆집 트리샤를 볼 때마다 난 약이 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장미를 사다 바치는 남편더러 낭만이 없다고?

뚜렷하게 해야 할 일이 없었던 이민 초기, 다니던 직장 대신 하루종일을 집에서 지내게 된 실용파 그와 낭만파 그녀, 집 안 구석 구석 손질하느라 바쁜 남편과 그걸 바라봐야 했던 나. 한국에서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내게 됨으로써 그의 실용성은 더욱 돋보이고 그럴 때마다 내 속은 더욱 끓어올랐으며 당연히 서로의 갈등은 한층 더 두드러졌다.

거실 한켠에서 윤기 나는 양복차림으로 웃고 있는 가족사진 속의 그와 늘 청바지 차림으로 바쁜 그의 모습이 주는 묘한 대조로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데, 앞으로 먹고 살 길 뚫어 보느라 얼마나 힘이 들까……’ 하면서도 말이다.

#3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계올

늦게 일어난 탓에 허둥대다가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어느 점심 시간, 회사 근처 빵가게를 들렸다. 뭔가 색다른 걸 한번 골라 볼까 하며 진열대 앞에서 서성대던 나는 불현듯 색색깔의 종이에 싸여 달콤한 향기를 내고 있는 작고 예쁜 과자를 발견했다.

그건 바로…… 마들렌이었다. 그 놀라움과 반가움이라니…….

나만이 가진 마들렌 빵의 추억. 이번엔 나도 프로스트처럼 그 마들렌 빵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제대로 더듬고 있었다.

그가 마들렌 빵을 안고 나를 찾았던 비 내리던 오후, 사흘 일정에 쫓기던 공대생이 귀하디 귀한 공부 시간을 투자한 후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레 내밀던 그 ‘포도사탕’……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

그때 그는 마음 편치 않았던 흘어머니의 장남,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두신 유산으로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유산이긴 했지만 그와 남동생 학비를 대느라 ‘곶감 빼먹듯 통장의 돈을 빼 써야 했던’ 시어머니에게는 큰아들의 연애에 협력할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낭만을 찾지 않는 것은 혹 그럴 만한 여유 — 딱히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정신

적으로도—가 없어서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늘 혜영에 차 있는 여자친구, 일찌감치 집안을 떠맡아야 했던 그와는 정반대로 철딱서니 없는 막내로 자란 그녀에게 잘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여전이 아니어서였지는 않았을까. 정말 낭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날 저녁녘 도서관에서 내일 아침 일찍 있을 시험도 마다하고 기꺼이 반시간을 헤매 포도사탕을 구해온 것은, 멋진 음악과 실내장식의 분위기 있는 식당보다는 양이 푸짐한 밥집에서 만날 때마다 느꼈던 미안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비록 돈으로는 쉽게 해줄 수 없지만 자신의 수고로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기 위한.

—이십여 년 만에 마들렌 빵을 다시 발견한 그날, 마치 섬광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자각이 머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늘 그렇듯 뒤늦은 후회로 나는 또 스스로를 부끄러워 하고 있었다. 그렇다. 이민으로 인해 어깨는 더 좁아지고 져야 할 짐은 한층 더 무거워진 그가 아닌가…….

하여, 감정의 기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고프지 않으니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고 말하는 그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그 오후의 마들렌 빵과 포도사탕을 떠올린다. 그저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감수했을 온갖 수고스러움을 생각하면 내 독선과 부덕함, 이기심을 반성하게 되고, 서운함보다는 그를 향한 고마움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라는 바쁘지 않은 나라로 우리를 보낸 것은, 이제껏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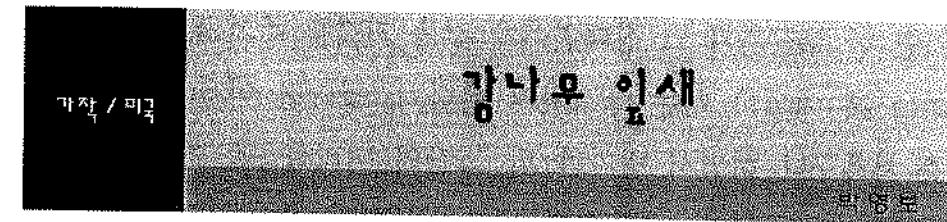
기만 한 누군가가 그 상대편에게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한 신의 배려는 혹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내가 줄 차례구나 하면서 반기만 한 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곤 한다. 문제는 그 반성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 늘 마음먹었을 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부부에겐 그런 마들렌 빵의 추억이 없을 것인가.

어떤 남자인들 자기 연인을 위해 포도사탕 구하는 것을 마다했을 것인가.

맨 처음 혼인서약을 할 때 마주했던 것처럼 늘 서로의 눈동자만 쳐다보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문득 이게 아닌데 하고 느낄 때, 오래 전 가슴 한구석에 걸어둔 마들렌 빵의 풍경을 기억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

장마가 겨울에 오는 곳, 뉴질랜드
오늘로 꼭 사흘째 겨울비가 내린다.
지친 그의 얼굴이 이 긴 겨울비 때문만은 아닌데, 언제쯤이면
나도 마들렌 빵을 안고 그를 찾을 것인가.



가을꽃 냄새가 풍기는 산사(山寺)의 주변은 노랑과 빨간색 단풍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내가 삼십 년이 훨씬 넘도록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을의 색깔로 물들어 있던 그곳의 아름다운 경관 때문만이 아니리라. 무뎌져 있던 마음속에 작은 파장을 일으켜 주었던 조그만 나무잎새 한 장 때문일 게다. 아니 나무 잎새라기보다는 그 잎새를 내 손에 쥐어준 장모님의 손길이랄까, 그 때의 잔잔하게 술렁이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기도 하다.

충청북도의 어느 산사, 그곳에서는 좀 요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느지막한 시월의 산 속에서 내가 지금의 아내와 맞선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삼십여 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내 위로는 현재 나이 육십대 후반에서 칠십대 중반이 되는 형님들과 누님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모두가 소위 연애를 하다가 이루어지는 결혼을 했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훨씬 젊은 나이였다. 요샛말로 ‘신세대’ 부류에 속해 있었다고도 볼 수

도 있었을 게다. 그런데도 나이 삼십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던 나는 촌스럽게도 선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깊은 산 속의 절간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맞선을 본다면 대개는 모양새를 갖춘 레스토랑이나 찻집 같은 데서 만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하필 산 속의 절간에서 만나야 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을 게다. 읍(邑) 소재지의 작은 시골에서 식당이나 찻집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금방 소문이 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었을 게다. 게다가 우리를 알아 볼 만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좁은 바닥에서 소문부터 나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짚신도 짹이 있다’고 하지만 서른을 넘기고 있던 나는 그때까지도 그런 짹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가 보다. 그러기에 양가 부모님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마련된 소위 ‘매치 메이킹(Match Making)’, 즉 선을 보는 자리에 끌려가듯 따라 나섰던 것이었다.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게 되었다. 선을 본다는 것,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어색하고 거북한 자리가 또 있을까싶다.

시월도 하순에 접어든 산 속의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주지스님의 배려로 마련해준 따뜻한 온돌방에 안내되었다. 양 당사자와 양가의 부모님들, 그리고 양가의 몇몇 친인척까지 합하여 대여섯 명이 들어서니 그리 넓지도 않은 방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통상적인 인사의 나눔이 있은 다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없어 서먹한 분위기였다. 생면부지의 사람끼리 만난 이런 자리가 편할 리야

없었겠지만 좁다란 방을 빼곡이 채운 자리에서 별스런 대화도 없이 멀거니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선을 보는 자리에서는 많은 경우 양가의 소개와 인사가 있고 일상적인 몇 마디씩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의 할 이야기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그럴 때쯤엔 당사자 두 사람만을 남겨두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주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장소도 장소였지만 여느 도시에서 선을 보는 것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 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다.

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가 있을 만한 적당한 장소도 없었다. 읍에서 택시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의 산 속에 와 있으니 별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러니 이 만남이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는 싫던 좋던 모두가 행동을 같이 해야만 했다.

이때 누군가가 “너희들 둘이 방에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 우리는 밖에 나가 있을 텐이니……”라는 것이었다. 젊은이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연로한 분들이 밖에 나가 쌀쌀한 시월의 산 속에서 떨면서 기다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나는 즉시 “아닙니다. 저희가 나갔다 오겠으니 안에서 말씀들 나누시죠” 하며 자리를 일어섰다. 우리 두 사람이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마음으로도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다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방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밖에 나오긴 했지만 나눌 말도 별로 없었다. 대수롭지도 않고 의미도 별로 없는 몇 마디씩을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시간에 방안에서 우리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어른들에게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그녀의 입술은 추운 날씨 탓에 새파래져 있었고 내심 나 자신도 빨리 이런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서로의 연락처나 나눈 후 몇 분 후 방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왜 벌써 들어와?”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거 받아요.”

그 절간을 떠나기에 앞서 후일에 장모님이 되실 분께서 전네주시는 것이었다. 법당 앞마당에 나뒹굴고 있는 낙엽들 중에서 찾아낸 잎새, 유난히도 붉게 물든 감나무 잎새였다. 뜻밖이었다. 다른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전네주시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받는 데는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뜻하지도 않았고 갑작스럽기도 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그 머뭇거림의 시간 속에는 이 잎새 안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무슨 뜻 같은 것을 생각해보는 일이 포함돼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칠십이 가까워 오는 시골의 부인에게 무슨 시심(詩心) 같은 게 담겨 있었을까 싶기도 했었다.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잎새를 책갈피에 넣어 간직해왔다. 가끔 꺼내서 만지작거리며 바라보기도 했다. 처음의 강렬했던 빨간 색깔이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랐으나 마르고 나니 보통의 여느 낙엽처럼 짙은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잎의 아래쪽에 까만 마커 펜으로 우리가 만났던

날짜를 써놓기도 했다. 이날을, 그리고 무언가 장모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그 잎새를 오래도록 간직하며 기억하고 싶어서였다. 우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한글 사전 속에 보관이 잘 돼 있었다. 그런데 이 귀한 잎새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민보따리를 싸는 도중에 분실된 것 같았다. 안타까웠다. 내가 이 잎새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모님에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으나 장모님께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기도 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간직해오던 그 잎새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도 생긴다. 감나무 잎새에 담겨 있었을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볼 걸 그랬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감나무를 볼 때마다, 특히 잎새가 빨갛게 물이 드는 가을철이 되면 다소곳하던 장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생존해 계실 때 나도 새빨갛게 물든 감나무 잎새 하나를 찾아 장모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난다. 장모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 하나를 남기고 가셨다. 평소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시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깊은 의미를 담아두고 계셨던 것 같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그 조그만 잎새 하나에 담으셨던가 보다. 그것을 보잘것없는 미래의 사위에게 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산 속의 절간에서 선을 본다는 자체가 풍딴지같고 별 희한한 선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도심의 찻집이나 식당 같은 데서 만나게 되었다면 삼십년도 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종류의 추억이 남아 있을까 생

각해보게 된다. 감나무 잎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어디서 어떻게 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지만 이런 방식을 생각해낸 분들의 발상이 그야말로 기발했다는 생각이 든다.

맞선이라는 자리에서 단 한번을 만나고 나서 결혼에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른다. 나는 가끔 그때의 감나무 잎새가 아니었더라도 우리의 결혼이 성사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감나무 잎새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올 가을에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대신할 만한 잎새 하나를 골라 두어야겠다. 가장 빨갛고 크거나 모양이 그때의 그 잎새와 가장 닮은꼴의 것으로 장모님께서 그리 하셨을 것처럼 나도 내 속에 간직돼 있던 마음의 전부를 그 잎새에 담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때처럼 잎새의 오른편 맨 아래쪽에 우리가 만났던 날짜도 다시 써 놓아야겠다. <1972. 10. 20>라고.

오늘 오랜만에 중국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며칠 후면 한국에 유학 온 남편이 박사학위논문 발표를 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해드렸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사뭇 기뻐하시면서도 말끝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험이나 졸업 때면 우리에게 늘 손수 치신 찰떡을 먹이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리 할 수 없고 아드님의 졸업에 이젠 어떤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게 마냥 서운하신 것이다.

나의 시어머님은 자식의 공부에 정성이 유별하신 분이다. 어린 시절 나의 남편이 노름에 힘하여 공부에 열심하지 않자 홀연히 아홉 살 나는 자식을 십 리 넘어 떨어진 시누이 집에 보내서 몇 년 간 공부를 하게 하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한다. 그 일을 남편한테서 듣고 나는 시어머님의 결단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 매양 학교를 졸업하거나 시험을 볼 때면 어김 없이 행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손수 찰떡을 치는 일이었다. 그것도 일년 농사가 마무리될 때면 꼭 새로 지은 창쌀을 잘 쟁겨두셨다가 시험을 보거나 입학할 때, 졸업할 때에만 꺼내어 찰

떡을 치시곤 했다.

아들에 대한 찰떡 정성은 대학을 거쳐 석사졸업에 이어졌고 시집을 온 이 며느리에게도 예외 없이 향했다. 지금도 가슴 깊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내가 대학원 입학시험을 볼 때 그 엄동설한 새벽에 일어나 손수 떡을 치시고 닭곰까지 해서 화룡에서 한 시간 반 버스를 타고 연길까지 달려오신 시어머님의 모습이다. 이른 아침에 하얀 서리를 머리에 이고 떡보자기를 들고 들어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때 몸도 편찮으신 시어머님은 내가 시험 보는 며칠간 내내 마중을 나오시더니 마지막 날엔 끝내 몸져누우셨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이를 후에야 발견했는데 내 외투 안쪽에 웬 아기 옷고름이 매어져 있는 것이었다. 시험 볼 때 남자아이 첫 배냇저고리고름을 달아주면 담을 키워주신다며 나 몰래 달아놓은 것이란다. 지금은 농촌에 장가가는 총각이 적어서 아이들이 적고 그것도 남자아이를 찾다보니 무려 일곱 집을 다녀서 겨우 얻어 오신 거란다. 나는 시어머님의 지극한 정성과 신념에 그만 머리가 숙여지고 말았다. 시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다.

내가 석사논문 발표하는 날에도 찰떡을 치셨다. 시장에 가면 지금은 여러 가지 찰떡이 많아 웬만하면 그냥 사다주셔도 될 텐데 여의치 않는 몸으로 무더운 여름날 아파트에서 절구공이로 찰떡을 치신 것이다. 이런 찰떡은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이 담겨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님의 신념으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님이 손수 차신 찰떡은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떡보다도 맛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찰떡을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마음도 든든하여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어디든 잘 볼 는다는 찰떡의 속성 때문에 먹는 떡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식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시는 시부모님의 찰떡같은 신념과 사랑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한결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집집마다 경사가 있을 적마다 찰떡을 치던 정경이 생각난다. 생일에는 물론 아기 첫돌, 그리고 결혼이나 회갑상 차릴 때면 어김없이 상에 오르는 것이 찰떡이다. 이때는 먼저 찹쌀을 맵쌀 하나 없이 가려서 더운물에 담가 날마다 물갈기를 4~5일 한 후에 건져 무르녹게 찐다. 쪄서 치기를 무수히 하여야 좋다고 했다. 처음 쌀 끓기를 옥같이 하고, 씻기를 또 수십 번 해야 한다고 했다. 온 동네가 함께 먹으려면 힘센 장정들이 여러 사람 모여서 반나절 땅명 떡 메질을 해서야 비로소 하얀 김이 몰몰 나는 하르르한 찰떡 몇 함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동네 솜씨 있는 아줌마가 밤새워 만든 팥고물에 정갈하게 칼로 베어낸 찰떡 한 점을 뚝 찍어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어서 혀까지 꿀깍 삼켜버릴 지경이었다. 또한 잔칫집이나 회갑집이나 모두 음식접대가 끝나면 찰떡 한 사발 정도 큼직하게 떼어서 보내주는 게 상례였고 덕분에 나는 잔칫집 다녀온 할머니한테서 찰떡을 잘도 받아먹었다.

찰떡은 우렁찬 떡메소리가 나서 만들어지는 떡이므로 동네 이웃과 늘 함께 먹는 음식이었다. 할아버지 생일상에 올릴 찰떡을

치면 나는 찰떡 심부름을 무던히도 잘 다녔는데 가져간 사발에 돌 아올 때에는 입쌀 같은 것을 들팔 담아오기도 했다. 그래서 찰떡은 고향마을 사람들의 친선화목과 끗끗한 인정으로 내 소녀 시절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기도 하다.

우리 중국 조선족은 백여 년의 이주사를 가지고 있다. 그 옛날 쪽박을 차고 두만강 건너 중국 땅에 와서 눈물겨운 삶의 투쟁을 거쳐 지금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냈고 지금은 중국에서 그 어느 민족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사이 불리한 삶의 여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서기까지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을 겪었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폭풍의 세월을 감내하고 삶의 승자로 의젓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대학생이 제일 많이 배출된 것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대학입시 때면 대학교 정문 곳곳에 붙어 있는 찰떡, 그것은 우리 조선족만이 행하는 유별난 모습이다. 거기에는 언제든 변하지 않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들로 이어지는 끈질긴 상향정신과 소망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여 년 세월 속에 여러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다양한 음식문화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찰떡은 의연히 변하지 않는 음식문화 중의 하나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민족의 식생활 습속은 그 민족이 형성되던 때에 기점을 두고 장구한 여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천을 거듭하면서 형성된다. 우리 민족의 기본 식품은 곡물이고 음식풍속에는 농경민의 공동의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으면서 가족들의 심신의 건강관리에도 깊이 연유한 음식이다. 그리하여 상고시대부터

조상을 섬기고 제를 지낼 때 쓰던 술과 시루떡 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이어지고 딸에게로 머느리에게로 전승되면서 그 혈맥을 이어오듯이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고, 세월의 변천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어진 것이다. 그 속에는 어린이 생일이면 수수팥떡을 해주어야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승되어 오는 풍속 등 모두가 조상을 섬기고, 후손의 행복을 빌고 가운이 길하기를 기원하는 인간의 진정이 어려 있고 백의민족의 혼과 얼이 숨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찰떡이라고 하는 떡은 한국에서는 흔히 인절미라 불리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절식 풍속에 의하면 설날에 흰 떡국과 인절미 등 백미를 위주로 한 음식에다 육미음식을 주로 즐긴 후 정월 대보름에는 잡곡밥과 각종 채소음식을 절식으로 했다고 한다. 우리 민속에서 떡 음식에는 색과 수를 중시하는 기복관이 담겨 있다. 그리하여 새해 첫날에 찰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조상님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특히 음양의 조화를 잘 나타내는 떡의 모양과 고임새에는 우리 민족의 인생철학이 어려 있는 것이다.

우선 찰떡은 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되었고 정월에 흰떡을 먹는 것은 지난해의 낡고 쇠퇴해진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알다시피 백색은 태양광명의 상징이고 순결, 명랑, 엄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양승배민족은 백색을 신성한 색으로 승상한다.

정초의 흰떡, 어린이 돌떡 등 그 원유를 찾으면 성스럽고 귀한 것으로 또는 생명의 근원이나 부활로 여기는 생각과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백발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서 장수와 길상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찰떡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과 신성함 및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우리 민족의 심리에 깊이 낙인되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찰떡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붉은 팔 또는 콩으로 만든 떡고물이다. 옛날부터 우리 민속에서 팔과 콩은 결혼 같은 의식 때에 정화의례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붉은 팔으로 말하면 그 색상부터 묘한 조화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붉은 색이라면 우리는 원초적인 것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데 신비스러운 활력을 지니고 있는 붉은 혈액을 연상하는데 이 혈액은 생명의 근원으로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붉은 색은 또한 불의 상징이고 음양에서 양을 의미한다. 양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고대의 신앙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하얀 찰떡과 붉은 팔고물이 지니는 음양의 묘한 이치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은 자연과 친근하고 자연에 투철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 온 민족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광풍폭우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왔으며 어느 민족보다 강한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우리 어머님같이 외유내강의 미덕을 키워왔으며 언제 어디에 가든 백의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국타향에 홀로 살아도 항상 마당 앞을 깨끗이 청소하며 어려운 세월에도 백의민족의 절개를 지키지 않았던가. 우리 민족은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고유의 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답다. 중국 조선족도 그래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무엇보다 자식의 교육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다. 허리띠 졸라매도 자식만은 공부시킨다는 그 의지와 용기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고추는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매운 맛을 잊지 않고 찰떡은 치면 칠수록 더 단단하게 응결된다. 우리 조선족은 언제 어디에 살든 백의민족의 꿈과 사명을 안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이 있는 곳에는 늘 찰떡이 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에 통과의례를 거칠 때마다 찰떡이 있음은 바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혼이 살아 있음이고 이것은 타민족이 추종할 수 없는 미감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록 고향 멀리 떨어져 시어머님의 그 정성어린 찰떡을 먹을 수 없을지라도 그 찰떡을 해주시는 마음과 정성을 깊이 헤아리며 고국에서의 학업에 더 정진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좌절과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보석 같은 정신을 지켜가고 싶다.

하늘이 어두워진다 했더니 그새 후두둑 굽은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고,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안개 군단은 군화발의 먼지처럼 피어올라 차선을 삼킨다. 나는 흐릿한 시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앞 차의 불빛을 따라 가고 있었다. 뭔가 퍼뜩 차창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운전을 서둘렀다.

시애틀은 날씨를 분별할 수 없는 날이 많다. 처음 상공에서 내려다본 이곳은 안개의 도시였다. 도시 한복판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낮은 지붕을 삼키고 큰 나무들을 휘감아 도시를 온통 제 손안에 움켜쥐고 있는 듯했다. 그 해 겨울에 도착한 이민 생활은 계절의 이름만으로도 추위를 느끼게 하는데 정작 한기를 더한 것은 복병처럼 숨어 있는 안개였다. 동네엔 적요가 감돌고 소리는 모두 안개 속에 파묻혀 버린 듯했다.

한국 마켓에 들려 열무와 단배추를 사서 돌아 나오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반가운 마음에 열무를 집다가 언뜻 친정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는 듯해서다.

“때 이른 열무는 풋내가 나는 기라. 단배추랑 섞어서 담거라.”

뒤늦게 이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땅에 들어선 지도 한참이 지났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삶을 머뭇거리게 한다. 오늘처럼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에는 더욱 그렇다. 예전엔 이런 날을 이기지 못해 한참을 달려나가서 만나던 태평양 한 자락, 그 바다 너머 있을 고국을 불러보곤 했다. 그러나 막상 바닷가엔 하얀 포말을 만드는 내 고장의 것과는 달리 속살을 드러내지 않는 시퍼런 물색이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는 듯해서 다가가기가 두려웠다. 해풍을 막아낸다고는 하나 늘 힘에 부쳐 보이던 키 작은 해송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정겨운 바닷가, 모래밭을 쓸어 내던 부서진 파도들이 차츰 기억 속의 풍경이 되어 갔다. 그래서인지 이때쯤 바다도 시들해져 가고 있었다.

비는 좀체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초저녁의 어둠까지 함께 불러 들여 사위를 어둡게 하고 있었다. 나는 벼룩처럼 창가에 다가가 마냥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날의 가슴속엔 고국의 말이 필요했다. 모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어를 부동켜안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는 듯했다.

비는 추억이 많다. 그때 나는 장마에 갇힌 채 하릴없이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뛰어나갔더니 그는 경주행 고속버스 표 두장을 쥐고 능청스럽게 서 있었다. 날씨가 좋으니 놀러나 가잔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비가 내리더니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비가 그쳤다. 추녀 끝에 대룡대룡 매달린 빗방울이 오색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경내를 돌고 있을 때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씨비였다. 비는 좀체 멎지 않았고 우리는 모처럼의 나들이를

마냥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우산이 없었다. 그러자 그가 바싹 내 곁에 다가섰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는 천연덕스러웠다. 어느 사이 그가 내 어깨에 팔을 얹었다. 슬며시 뿌리치는 내게 그는 비 때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옥신각실했으나 별 수 없었다. 장마비가 우리를 우산 속에 가둬놓았듯이 그의 팔이 내 마음을 가둬버렸다. 나는 아련한 옛 기억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물체가 어렴풋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곤 했다. 뭔가 재빠른 동물 같기도 하고 후딱 날아가 버리는 새 같기도 하고 어쩜 지느러미를 펼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같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 아까 차창 앞에서도 살핏 본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나는 안개거니 하고 생각했으나 움직이는 동작으로 보아 그건 아닌 성싶었다. 네발 달린 동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은 위치였으며 새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낮은 높이였다. 그러나 물고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황당했다. 살핏 언젠가 들었던 황금 비늘을 지닌 금선어가 생각났다. 안개 속에서만 산다는 물고기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내게 고국은 빗속에서나 느낄 수 있는 곳이 됐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들의 정겨운 숨결이 있고 낯익은 언어와 공감을 지닌 땅이지만 이제는 이곳의 생활에 더 익숙하다. 고국의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결정보다 이곳의 휘발유 값에 더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는 자신을 발견한다.

마켓에 진열된 수많은 종류의 품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낼 때마다 겪어야 했던 낭패감과 돋보기 너머 보이는 영어 단어들은 또 얼마나 날 외롭게 했던가. 좌회전 신호등에 그려지는

붉은 화살표를 따라 출발을 서둘다 멈칫거렸던 일,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어색함 때문에 사우나실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던 일, 혹시나 내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하는 긴장감으로 사람들과 눈 맞추기가 겁나던 일, 그러나 그런 낯선 일들에 점차 길들여질 때마다 나는 오랜 기억 하나씩을 떨어내는 느낌을 가졌다.

어제는 사우나실에서 흑인 여성과 단둘이 있었는데 그녀가 온 몸에 크림을 잔뜩 바르고는 열심히 문질러대는 것이었다. 아무리 문질러봐야 시커먼 피부가 더 밝아질 것도 아닌 성싶은데 그녀는 정성스레 손질을 하고 있었다. 둘이 마주보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려니 멋쩍기도 해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씩 웃으며 밖으로 나가 아예 1갈론짜리 크림을 통째로 들고 들어와서 내미는 것 이었다. 당황해서 조금만 부어 달랬더니 글쎄 한 주먹 가득 붓고는 온몸에 바르라는 시늉을 하며 내일 아침엔 피부가 훨씬 예뻐져 있을 거라며 웃는다. 한 아름을 훨씬 넘는 불룩한 아랫배와 엉덩이가 마름모꼴을 닮아 우스꽝스런 몸집이지만 그녀의 두툼한 입술에 번지는 넉넉한 미소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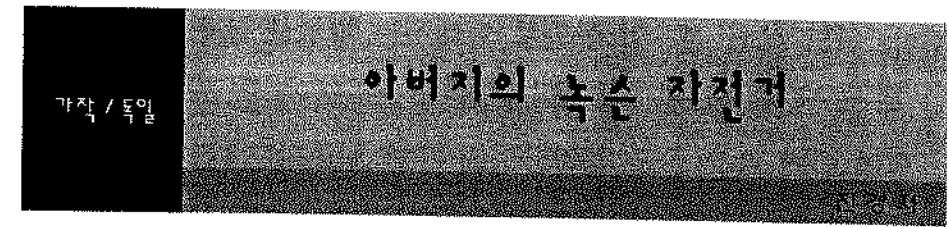
물에 닿으면 그대로 먹물이 퍼져 나올 것 같은 흑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정이 간다. 어쩌면 그들 역시 이민자의 후예라는 생각에 공감을 느꼈는지 모를 일이다. 백인들의 산뜻하고 청결해 보이는 하얀 피부색도 좋지만 까만 피부색에서는 들히한 심성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흑인 영자가 가슴을 올리는 공명을 갖는 것도 그들의 까만 피부 속에 재여 있는 속마음 탓인지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딴청을 부릴 줄도 알게 됐다. 환율을 비교하며 움츠러들던 손도 이때쯤은 쓰임에 익숙해

졌다. 어느 사이 적응이 동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느끼게 했다. 내가 금선어를 만난 건 바로 이때였다.

뿌연 안개 속은 온통 물바다인지 모를 일이다. 그건 지느러미를 허우적거리며 느긋하게 해엄을 치다가 때때로 재주를 부린다. 나는 얼른 팔아이를 불렀지만 팔아이는 코방귀를 펼 뿐이었다. 내 눈에는 훤히 드러나는 희뿌연 물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팔아이의 자신에 찬 말을 들으며 어쩜 그건 내 눈에만 보이는 허상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설핏 두려움이 일었다. 그러다가 혹 그것이 잊혀져 가는 모국어의 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유할 것도 없는 이 땅에서 가슴속에만 살아 있기에 너무 숨막혀 이렇듯 문득 문득 살아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믿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믿는 만큼씩만 살아난다는 전설 속의 물고기처럼 말이다. 그리고 보니 그건 어머니의 음성이었고 고국의 언어였음을 깨닫는다.

비가 그치려는지 내 상념도 걷히기 시작한다. 창 밖에서 맴돌던 안개도 슬며시 꼬리를 튼다. 나는 망연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안개가 모서리를 돌아 나가기 전에 뭔가를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금선어의 황금 비늘조각, 아니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모국어의 낱말들을 주워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아이고, 아버지, 아 버 지 이—!”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파랑색 쪽문을 따고 앞장서 들어간 오빠가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앞으로 가더니 아버지의 자전거를 불잡고 가슴을 찢는 통곡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장례를 서울에서 모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우리 형제들은 삼우제까지 지낸 다음 부모님이 사시던 강경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오빠를 뒤따라 마당에 들어선 우리 형제들도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낡고 녹이 슨 자전거로 우르르 몰려갔다. 자전거는 먼지를 뿐옇게 뒤집어쓰고 서 있었다.

우리들은 자전거가 마치 아버지의 팔 다리라도 되는 것처럼 안장과 손잡이를 붙잡고 저마다 아버지를 목 메이게 불렀다. 오월의 눈부신 햇살도 무색하게 하는 우리 형제들의 애절한 통곡 소리가 양철 지붕을 울리고 시멘트 담을 넘어 골목으로 퍼져 나가자 한동네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오랜동안 함께 이웃해 사시던 분들이 하나 둘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으嗟, 지난달에 서울 아들집에 가셨는디 워째 요리 시상을 벼

리신데유.”

“증말로 허망허네 잉, 그려두 구십 가끼이 사셨승께 호상여 호상!”

“아자씨는 복 많은 분이시당께, 이 분토꼴에 아자씨같이 수(壽)하신 분이 워디 혼칸다.”

“살 만큼 사시고 아들 메누리 손에 가셨는디 더 바랠 거 뭐 있겠어?”

“날두 더운디 이러다가 늙은 상체들 지쳐서 씨러지겄네, 구만들 울어 그만 하면 원 읍시 사시다 가셨승께.”

이웃 사촌이라고 하더니 모여든 이웃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구겨진 종잇장같이 쪼글쪼글한 얼굴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며칠을 두고 울어서 기운이 다 빠져버린 나는 자전거에서 물러나 꽃밭 모퉁이에 놓인 작은 돌 위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오래 손길이 가지 않은 작은 꽃밭에는 철 지나 빛이 바랜 주홍색 철쭉 몇 송이가 잡초 사이로 초라하게 작은 얼굴을 내밀고 있고 주먹만한 하얀 핑크꽃은 무거운 머리를 힘겹게 받하고 서서 저희들끼리 몸을 비비며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지난해 부모님을 뵈러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꽃밭 옆 양지바른 장독대 한쪽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를 부르며 대문을 들어서는 나를 보더니 허겁지겁 일어나 굽은 허리를 펴시고 달려와 침침한 눈을 끔뻑이시면서 “누구여, 아이구 내 새끼. 우리 둘째 따님이구나!” 하시면서 옹이가 박힌 뺏뺏한 두 손으로

내 손을 움켜잡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와 마지막이 되고 말다니, 참으로 허망하고 기가 막혔다.

아버지가 떠나가신 빈 마당에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아픈 상처의 파편들만 질펀하게 깔려서 남아 있는 식구들의 가슴을 사정 없이 후벼팠다. 내가 세 살 때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셨는데 내 나이 이제 환갑을 넘겼다. 헤아려 보니 부모님께서 반세기를 넘겨 사신 집이다. 나의 잔뼈가 이 집에서 굽었고 부모님 슬하에서 우리 형제들이 살을 맞대고 오손도순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가난했어도 웃음이 담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가던 집이었다.

없는 살림에 우리 오 남매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때도 건너뛰며 허리가 휘도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졸지에 떠나 보내고 나니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혔다. 집안 구석구석 눈길 가는 곳마다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험하고 고달팠던 아버지의 지난날을 구비 구비 되새김질하는 형제들의 애끓는 사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속에 어지럽게 뒤섞이고 있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나는 부모님 생신 때도 한번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다. 외국에서 고생하며 산다고 늘 가슴 아파하시던 부모님께 기쁨보다는 짐이 되어 온 이 불효의 무게를 감당 할 길 없어 몸부림치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때는 햇볕이 넘쳐나는 오월이건마는 부모님이 떠나가신 빈 집안에는 찬바람만 휘휘 돌고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옥양목처럼 희디흰 애꽃은 합박꽃을 마구 쥐어뜯었다.

언제 어디서 구입을 하셨는지 아버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다. 많은 집을 실어도 꼬딱없게 생긴 굽고
실한 두 바퀴와 안장 뒤에 네모난 짐 바지가 달려 있는 투박한 이
자전거는 아버지의 자가용이었다. 자전거는 아버지가 밖에 볼일이
있으실 때마다 함께 나갔고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면 늘 혀간 앞
에 서서 다음 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전거가 서 있는 혀간 앞
은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아버지는 합석으로 지붕에
잇대어 쳐마를 제법 넓게 이어 달아 놓고 애지중지 자전거를 아끼
셨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시오리 밖에 있는 논에 물고도 보러
가시고 우체국에 편지도 부치러 가고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시장
도 보러 가고 손녀 딸 피아노 학원에도 데려다 주는 등 볼일 보러
가시는 용도가 다양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자전거 폐달을 제일
신나게 돌릴 때는 아마도 어머니를 뒤에 태우고 닷새마다 서는 장
에 가실 때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자전거 짐 바지 위에 두툼한 방석을 얹은 다음 어머
니를 그 위에 태우고 다니셨다. 우리 집에서 시장까지는 대략 1킬
로미터쯤 되는데 근처에 구멍가게도 없어 두부 한 모 생선 한 마
리를 사더라도 그 시장까지 가야만 했다. 시장에 나가신 어머니는
이것저것 눈에 띠는 것을 사 들게 되는데 몸집이 작고 기운이 없
는 어머니는 힘이 부쳐 집에 오시는 길엔 늘 비척비척 옆 걸음을
치셨다. 자전거가 생긴 뒤부터 어머니가 시장 보러 가실 때에는
아버지는 으레 자전거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뒷자리에 방석을
올려놓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지 성(형) 만나 본다구 오는 공일(일요일)에 광양 애들하구 서울

희승이네 애들이 땅겨 간다는데, 가들 오면 으슬피지 않게 장을
좀 봐다 놓아야 하지 안남유, 오늘 쟁경장(5일 마다 서는 강경 장)인
디 나가 볼까유?”

내가 한국에 휴가 나가면 광양 사는 동생과 서울에 사는 막내동
생은 부모님도 찾아 본 겸 나를 만나러 강경 친정 집으로 모였다.

“허어, 가들 들이닥치면 또 시끌벅적허겄구만 그랴, 장에 가서
골구루 많이 사다가 놓자구, 자전거 밖에 내 놀께 지엄마는 찬찬
히 챙기구 나와.”

시장 볼 채비를 마치고 어머니가 마당으로 내려서실 때까지는
한참씩 걸렸다. 댓글에 내려선 어머니는 하얀 마스크까지 하고 나
오셨다. 입춘이 지났다 하나 날씨는 여전히 쌀쌀해서 아버지가 숨
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담배연기처럼 기늘게 피어올랐다. 아버
지는 어머니를 번쩍 안아서 자전거 뒤에 옮겨 앉혔다. 아버지는
키가 작고 몸이 빈약하신 어머니를 늘 아기 취급하시듯이 하셨다.
논산 강경에서는 메리야스를 못 살 정도로 6척이 넘는 거구의 아
버지 뒤에 앉은 어머니는 마치 미루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 같았
다. 하지만 그토록 왜소한 체구로 어디서 그런 파워가 나오는지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늘 아버지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힘을 행사
하셨다. 집안의 모든 지시는 어머니 입에서 나오게 되고 아버지는
번번이 “지엄마 말이 지당혀” 하시면서 신하처럼 고분고분 어머
니가 하자는 대로 하셨다.

모처럼 만에 고향집에 온 나는 오늘이 마침 강경 장이니 아버
지가 좋아하시는 순대 안주에 약주도 한잔 받아 드리고 어머니 앙

고라 스웨터도 하나 사 드리고 싶어서 장에 가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사 드리는 한잔 술에도 너무 흐뭇해하고 행복해하셨다.

아버지는 안장에 올라앉으시려다 말고 걸어가는 나와 보조를 맞추려고 어머니를 태운 자전거를 천천히 끌고 가셨다. 자전거에 올라앉아 있는 어머니는 원쪽에는 아버지, 오른쪽엔 서독 딸(독일에 살고 있는 나를 부모님은 그렇게 불렀다)을 대동하고 가니까 기분이 좋은지 검버섯 핀 얼굴에 연신 웃음꽃이 피어났다.

“술(설) 지낭께 짐치(김치)가 셔 꼬부라져 부렸는디, 곁절이라두 혀야 것슈.”

시장 입구에 들어선 어머니가 신 김치 싫어하는 동생들을 생각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속이 놀놀한 얼갈이 배추를 한 단 사서 자전거에 싣고 육간에 들려 쇠고기 안심살도 두 근 산 다음 생선전 까지 들려 좁은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돌았다. 살 것을 다 사고 아버지가 큰길에 나오셨을 때는 자전거 손잡이 양쪽으로 비닐 봉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비닐봉지들은 자전거 바퀴가 돌 때마다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셋째와 막내딸 내외와 외손자들까지 와서 법석을 떨고 간 후 어머니는 몸살이 났는지 진지도 안 드시고 이불 속에 누워만 계셨다.

“아이구, 추운디 아자씨 일찍 나오셨어유, 근디 웬째 오늘은 혼자세유?”

자전거 뒷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생선상회 아줌마가 물었다.

“아 예, 집사람은 몸살 감기가 왔는가베유, 어제부터 아랫목에

서 나을 생각을 안 허네유. 물 좋은 것으로 동태나 둑 마리 싸줘 유.”

“날씨도 찬디 아줌니가 누워 기시면 아자씨 고생 되시겄슈. 얼른 일어나시야 할 텐디, 감기 몸살에는 얼큰허게 국 끓여 먹구 땀을 푸욱 내는 게 젤여유.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물이 좋구먼유.”

“안녕하세요?”

“아이구, 서울 큰파님이시쥬? 아줌니 편찮으신디 마침 잘 오셨네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나를 언니로 착각했다. 내 눈에는 언니와 내가 하나도 닮은 것 같지 않은데 가끔 보는 사람들은 언니와 나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

“나는 서독 딸여유, 엊그제 휴가차 나왔구만유.”

독일이 통일된 지 여러 해가 흘렀어도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서독 딸이라고 부르셨다.

“그려유, 으메 먼 디서 오셨네유.”

생선 집 아주머니는 날렵한 손놀림으로 아가미가 벌건 동태를 손질해서 신문지에 싼 다음 배가 불룩한 노란 조기 두 마리도 덤으로 같이 싸서 비닐 봉지에 넣어 아버지께 내밀었다.

“이거 쪽그만혀두 알 실었는가 베유, 아줌니 궤 드리세유.”

“이러시면 안 되는디, 미안시려워서 워谮데유, 고마워유.”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고향 사투리와 인심 좋은 충청도 시골 정경이 물씬 풍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아버지는 돈을 내려는 나를 기어코 밀어내시고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장을 꺼내어 손바닥으로 펴서 값을 치른 다음에도 몇 번이나 고맙다

고 말씀하셨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생선 가게를 오래 단골로 다니시니까 주인은 어머니의 식성까지도 대충 알고 있는가 보았다. 아버지는 생선 꾸리미를 자전거 손잡이에 건 다음 황토 흙이 아직도 묻어 있는 통통한 조선무와 수염이 허연 대파도 사서 자전거 손잡이 양쪽에 걸었다.

시장에 갈 때 아버지는 자전거를 끌고 가셨는데 돌아올 때는 어머니 대신 싫다는 나를 기어코 자전거 뒷자리에 앉히고 안장에 오르셨다. 나는 아버지 허리를 두 팔로 바짝 껴안고 얼굴을 아버지 등에 착 붙였다. 아버지는 나를 서너 살이 넘었을 때까지도 업어주셨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버지 등은 여전히 넓고 편안했다. 아버지의 국방색 넓은 잠바에서 텁텁한 담배 냄새가 물씬 났다. 이른 아침 집을 향하는 아버지 자전거의 폐달이 쟁쟁 바람을 가르며 더 신나게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다시 기운을 되찾고 일어나시자 아버지는 미루어 왔던 작은 집 병 문안을 서두르셨다.

“지 엄마, 냐두 왔구, 대전 지수 씨가 병이 짚은가본디 어지간 허면 같이 갈 수 있겄어? 엊그제 즌화에 인수가 한 숨만 올려 쉬고 내려 쉬고 허잖여.”

설거지를 마치고 손에 물기를 훔치며 들어서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아버지는 필터 밑에까지 다 타 들어간 담배를 입에서 떼더니 말을 껴냈다.

이튿날 서둘러서 아침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먼저 자전거를 문밖으로 끌어내 대문에 기대 놓으셨다. 아버지는 기차나 버스로 하루 치기 출타를 하시게 되는 날은 언제나 떠나시기 전에 자전거

를 문밖 대문에 기대놓고 가셨다. 내가 멀리 가지 않았다 하는 무언의 표현이었다. 집이 빈 것을 알면 둉네 손 거친 아이들이 들어와서 금붙이며 저금통을 들어가고 집안을 뒤지기 때문이었다.

지난봄에도 하루 집을 비우고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오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눈치 챘 아이들이 어머니 경대 서랍에 들어 있던 금목걸이와 벽장을 뒤져서 옷 사이에 감춰 둔 돈 까지 가져 간 일이 있었다 한다. 그 후 부모님이 출타하시게 되는 날에는 자전거는 아침부터 파란 대문에 기대서서 아버지가 돌아와 다시 헛간 앞으로 옮길 때까지 서 있어야만 했다. 비라도 내리는 날은 더욱 처량한 몰골로 아버지를 기다렸다. 골목으로 오가는 아이들을 구경하며 무료함을 달래고 지나가던 개가 한쪽 다리를 치켜들고 누런 오줌을 바퀴에 찍 갈기고 가도 찍 소리 못하고 온 종일 아버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전거도 쇠잔해 가는 아버지와 함께 노인 얼굴에 편 겸버섯처럼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오랜 세월 아버지의 발이 되어 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동행하던 아버지의 자가용이던 녹슨 자전거, 이제는 주인을 잃고 허구한 날 헛간 앞에만 서 있게 되었다. 가끔 우리들이 와서 쓰다듬어 주기만을 기다리며 긴긴 세월을 두고 시나브로 삭아 내리게 되겠지.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자전거가 아무리 녹슬고 고물이 되었어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집에 올 때마다 자전거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구비구비 되새기면서 남겨놓고 가신 아버지의 정을 가슴에 두고두고 새길 것이다.

왜 동백꽃을 생각하면 진홍빛 선혈을 연상하게 될까.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 고창 선운사 참당암 정갈한 뜰에 뚝뚝 떨어진 동백꽃 봉오리를 바라보다가, 차마 하산을 하지 못하고 마냥 퍼질러앉았던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다.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는 내 원손의 동맥 언저리에 있는 상흔을 보며, 다시 동백꽃의 전생은 선홍빛 피였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 해, 겨울 설악산 등산 중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추락하며 손에 들었던 스키스톡에 찢긴 상처가 보기 싫은 흉터로 아문 자리를 새삼 본다. 손목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가 하얀 눈 위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며 꺽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느긋한 마음으로 하얀 눈 속으로 번져 들어가는 동백꽃 닳은 펫방울을 보고 있었던 한심함이라니. 그때 도 선운사 참당암 동백꽃을 생각했었다.

이제, 등 기대어 살던 내 나라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공연히 마음이 바빴던 때였다. 낯설고 물 선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며, 그 긴 과정의 시간 동안 나는 살가운 내 나라 땅을 더 보고, 걷고, 만

져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기 전 만난 동백꽃이었다.

고창 선운사 일주문을 지나 추사(秋思) 김정희(金正喜)가 쓴 백파선사부도(白波禪土浮屠)를 들면 유형문화재인 동백 상림 숲이 있다. 숲의 나이가 무려 오백 년이나 되었다고 했다. 일찍부터 이 동백 숲이 유명해서인지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노래했다. 들머리 시비로 서 있는 서정주 시인의 ‘선운사 골짜기 동백꽃은 상기 일려 아니피고’도 그렇거니와 추사와 백파의 눈 속에 편 동백꽃 같은 인연 또한 그려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 지어 편 동백 숲의 꽃 잔치보다, 어느 하루 바쁜 산행을 마치며 하산 길에 들른 참당암에서 본 동백꽃은 파격이었다. 방금 쓸어낸 것같이 빗자국이 선명했던 암자의 정갈한 마당 한쪽에, 꽃대궁 채로 쌍둑 잘린 듯 떨어져 있던 동백.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그 꽃말이에요’라는 노래 가사가 오버랩되어 해거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동백과의 살 떨리던 만남.

그러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데스칸소 가든에서 동백꽃 축제가 시작되었다는 신문을 보는 순간, 주위 살필 것 없이 그리로 차를 몰았다. 손목의 상흔보다 더 뚜렷이 머릿속에 각인된 참당암 동백꽃과의 만남은, 별써 사 년이 흘렀다.

데스칸소 공원은 한인타운에서 불과 20여 킬로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공원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동백꽃들이 무수히 등불 밝혀 어서 오라는 듯 이방인을 맞이했다. 전 세계에서 수집

한 800여 종의 동백들이, 더러는 지고 더러는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다.

노랑 하양 분홍 등 여러 빛깔의 동백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었다. 과연 동백꽃 나라였다. 이 공원은, 세계 카멜리아 소사이어티가 뽑은 ‘세계 최고의 동백꽃 가든’이라고 했다. 눈에 익은 동백꽃에 둘러싸여 가슴이 저리면서도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선 듯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그 협회의 심사위원들은 한국 고창 선운사를, 거제도 해금강을, 울산의 춘도(椿島)를 가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이들의 심미안이 동양의 것과 다른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 공원의 조성 연대가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도 ‘세계 최고’가 되기엔 연륜이 짧았다. 그날은, 이벤트 좋아하는 나라답게 그 동백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라 진 선 미의 호칭을 붙여 주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었다. 동백은 선홍빛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다투어 유혹하는 다른 빛깔의 꽃들을 무시하고 자연히 붉은 동백 쪽으로만 내 발길을 유도했다.

미국에서는 처음 대면하지만 낫 익은 동백꽃 그늘에서 가만히 꽃들을 본다. 가끔 대궁 채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꽃비 소리가 정적을 깨트린다. 동백꽃 잎은 붉은 눈(雪)도 되는지, 난분분 내려 동백나무 아래는 이미 꽂다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후두둑 본체 이탈을 거듭하고 있는, 동백 꽃대궁의 아픈 단절의 사연 만 동백나무는 가지에 담고 있는 건 아니었다. 앞서 활짝 핀 꽃이 지는 것에 무심한 듯, 맺히어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본다. 꽃 눈 살며시 떠, 이제 진홍빛 꽃잎을 펼칠 세상을 엿보는 무수한 아

기 봉오리들.

내 삶의 흔적이 주름처럼 접힌, 울산광역시 온산면 방도리에 있는 작은 섬 춘도(椿島) 생각을 했다. 동백의 다른 이름이 춘(椿)이라서 이름마저 춘도(椿島)라던가. 지금 춘도에도 이곳처럼 동백이 제철일 것이다. 동백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걸어도 몇십 분 걸리지 않을 손바닥만한 작은 섬 춘도 상수리 나무와 어울려 늘 푸른 춘도에는 각혈 같은 선홍 빛깔의 동백 꽃쌈 잔치가 지금 한창이겠다. 선운사와 침당암과 춘도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동백꽃은 짚어야 된다는 등식은 재미교포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이곳 오페라하우스에서 몇 주 전에 보았던 ‘라트라비아타’ 역시 동백은 핏빛이라는 것의 재확인이었다. 춘희(椿姪)로 더 많이 알려진, 알렉산드르 뒤마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그것이다. 소설가 뒤마가 1848년 이 작품을 발표할 때 원래 제목은 ‘동백꽃을 들고 있는 부인’이었다. 동백꽃 여자 ‘춘희’는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의 별명이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한 후 동백꽃을 들고 극장이나 사교계에 나타나 언제나 귀부인처럼 행동한다. 그 경제적 바탕은 그녀가 몸을 판 대가였다. 양가(良家)의 자제인 순진한 청년 ‘아르망 뒤발’과 사랑이 시작되나, 결국 신파조 파경으로 끝난다.

소설의 이야기는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으므로 뒤마는 이것을 5 막의 회곡으로 각색했다. 이 작품을 피아베라는 시인이, 남자 주

연을 알프레드 제르몽으로, 춘희 역은 비올레타로 개명하여 작시(作詩)를 했다. 베르디의 작곡에 의해 오페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서양판 이수일과 심순애인 라트라비아타였다.

이젠 제법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고 바삐 사느라 한국에서는 찾지 못했던 오페라를 즐길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럼에도 한인타운에서 발간되는 한글 신문에서 읽은 동백꽃이라는 단어에, 왜 나는 화들짝 놀라는지 모른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로 자리매김한 라 트라비아타를 보며 한국의 신파연극 이수일과 심순애를 떠올리는지 모른다.

그때, 이민을 계획하며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선운사에서 들었던가. 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봄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백에 대한 새삼스런 애정으로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무엇이 동백에 대하여 선연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가. 동백 꽃말 때문인지도 모른다. 꽃말은, 특히 붉은 동백 꽃말은 ‘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했다. 멀고 먼 태평양 건너 서쪽에 있을, 그리운 나라에 대한 사랑을 동백꽃은 떠올리게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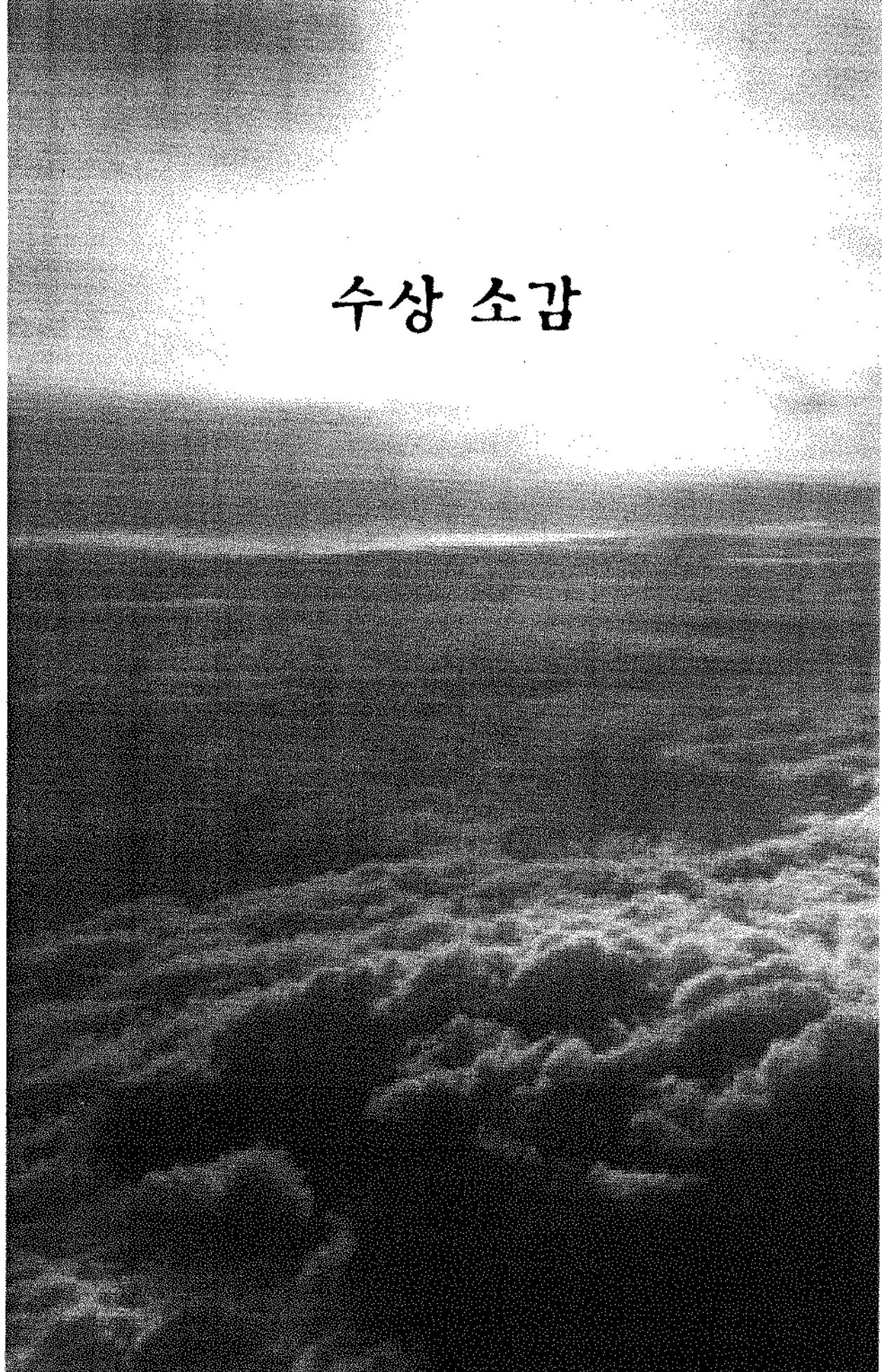
한국말로 싸우고 웃고, 마시고 운다는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는 각성에 외로울 수도 있었다. 닮은꼴들이 모여 산다는 것,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울었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운 일이 된다는 걸 이제 안다.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한인타운이 아니므로 더 그렇다. 누구나 마음 한켠에 덮어놓은 쓸쓸함 또는 외로움은 있는 법이다. 그렇게 기억보다 추억은 아름답다.

사실적 기억을, 추억은 순차시켜 그리움으로 피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각인된 기억을 꺼내 추억하는 일은 아득한 그리움을 꺼내 보는 일도 되는 것이다.

데스칸소 공원에서 후두둑 지고 있는 선홍빛 동백꽃을 보며 추억은 간단히 태평양을 건넌다. 그리고 보면 정말 동백꽃은 붉어야 한다. 폐병으로 각혈을 하다 쓰러져 간 춘희의 이미지도 선홍빛이 있고, 절규하듯 ‘비올레타’를 부르던 테너의 아리아도 소쩍새 울음 같은 핏빛이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울었다’는, 가수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도 곰곰 생각하면 붉은 색깔이다. 동백꽃처럼 선홍빛 각혈 끝에 죽어 가는 심순애를 그리며 부른 테너 이수일의 아리아가, 눈과 귀에 즐거웠던 감동이었다면 데스칸소 동백 구경은, 눈에 밟혀 사무치는 핏빛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동백기름 바르며 머리 빗던 누님에 대한 기억이었고, 지금 한창 낙화를 시작할 참당암 올 동백꽃이 있는 풍경 속으로의 침잠이었다.

수상 소감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번호 대신 U.N.K.N.O.W.N.이라는 단어가 입력된다.

나의 상상력은 빠르게 달려간다. 도대체 이 핸드폰이 감지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곳이란 얼마나 먼 곳일까, 전화를 받으려다 말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태평양을 건너온 전화 속의 목소리는 밝고 맑았다.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이라는 수상 소식은 이렇듯 먼 곳에서 온 낯선 손님처럼 내게 찾아왔다. 놀라움과, 반가움과, 설렘과 감사함이 함께 엉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안을 오랫동안 자꾸 서성거리게 만들었다.

그랬다. 이사하기 얼마 전에 짐을 싸다 말고 5편의 작품을 골라 재외동포재단에 보냈었다.

하와이는 모든 게 풍요로웠다. 주눅 들 정도로 눈부신 햇살과 수없이 많은 색깔로 다가오는 형용할 수 없는 바다 물빛. 지천에서 있는 야자수나무, 바람에 묻어오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꽃 향기. 꿈꾸듯 아름다웠다. 글을 쓰거나 사색에 잠기기보다는 차라리 이 선명한 자연의 빛깔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마 조금은 더 쉬웠으리라.

어떻게 시와 내가 만났는지 기억이 없다. 다만 다른 어떤 표현 수단보다 시를 통한 내적 대화가 나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 것만은

확실하다. 자극히 나의 개인적인 일상이 시로 표현되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과 ‘공감’을 이룰 때 가장 가슴이 따뜻해왔다. 교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사치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하와이 문학동인회의 모임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한다. ‘이민’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문학’이라는 힘든 진주를 캐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소중하게 써온 작품들을 나누는 그 시간이 내겐 더할 나위 없는 ‘배움’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한다. 선해주신 심사위원들과 재외동포재단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나는 적막하기만 한 프리웨이를 달린다.

동물원으로 향하던 길에, 나는 문득 집채만한 광고판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순간 울컥, 뜨거운 것이 내 안으로 밀려들었다.

나는 동물원에서 일전에 동네 어느 집 올타리 안으로 보이던 낯선 짐승이 ‘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낙타와 양을닮은 라마의 슬픈 눈과 마주쳤을 때 다시 한 번 그 광고문구가 스쳐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복잡한 상념에 사로잡힐 때면 동물원을 찾아가곤 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눈동자를 한동안 응시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곤 했다. 그 눈빛은 때론 슬퍼 보이고, 때론 경계심을 띠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나에게 위로 감을 안겨주곤 하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이도 자유롭게 감정들이 오가는 때, 나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동물원으로 달려가곤 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올타리 안에 있는 건 라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이다.

수상의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 드리고, 늘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화초에 물이라도 주어야겠다.

상을 탐내 시작한 일이지만 정작 입선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각은 심장의 박동이 뚝 멎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할 뿐인 아마추어의 몸으로 감내하기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17개국 133명 응모자 중 무명소졸에 불과한 저의 머리에 아름찬 계관을 얹어준다니 정말로 꿈만 같습니다.

교포 3세의 신분은 고국과 조국이라는 개념 앞에서 가끔 혼란을 느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국의 민족정책 덕분에 한글을 남부럽잖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이 시각 이처럼 다행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학공부랍시고 품놓고 해본 적은 없고 국내외 문학작품을 열독하는 와중에 글쓰기 예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애착이 이번 응모에 선뜻 나서도록 내 등을 밀어준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 급속도로 붕괴되어가는 조선족의 집단촌락과 농경문화, 그리고 부서지는 가정들을 바라보며 어떤 이는 재중국 교포들의 운명을 두고 개탄도 하더군요. 물질상으로 부족을 겪었지만 정신상으로 그렇다 할 부족의 불편을 못 느끼고 지나온 우리의 지난날은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연령의 모든 조선족들에겐 아마 추억의 에덴동산일지도 모릅니다.

해외에 나가 돈을 억수로 벌고도 뭔가 그냥 부족한 느낌을 가진 요즘 사람들, 돈 때문에 망가진 주변의 가정과 돈 때문에 흘어지는 주변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뭔가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민으로 건너와 낯선 땅에 정착해 낯모르는 사람들 속에 끼어 군식구처럼 더불어 살면서도 설이라는 민속명절만은 당당히 내 습관대로, 내 풍속대로 맞이하고 즐겨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한 발 앞서가는 민족으로 시샘과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한족들과 어우러져 어지러운 시국의 갖은 풍랑을 다 겪으면서도 끈끈히 버텨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생활양상이 요즘 들어 이상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과히 슬프고 알알이 아픔이 되어 갈마듭니다. 저의 「설」이 푸념 같은 넋두리로 끝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중국 땅에서 재도약을 가하는 데 쓸모 있는 한 알의 비타민화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글을 예쁘게 봐주시고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제6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

2004년 9월 20일 인쇄

2004년 9월 28일 발행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발행인 / 이광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외교센터 6층)

전화 / (02) 3463-6500

팩스 / (02) 3463-2555

<http://www.korean.net>

제작 / (주) 도서출판 삶과꿈(02-756-0109)

비매품

본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은 재외동포재단에 있으며
본 재단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전재를 금합니다.

시

작품을 선정하는 동안 문학성이나, 주제나의 척도를 정하기 어려웠으나 이민의 체험과 문학의 진정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학적인 척도를 둘이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절실한 주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소설

나라 밖에서의 문학활동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 심사위원들은 숙연해졌다. 외국에 살면서도 보국어를 잊지 않고 그것을 빛내는 글쓰기의 절망과 그 신명에 대한 경외였다.

어렵게 추려낸 30편의 작품을 놓고 심사위원들은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편 모두가 이국 생활에 적응하는 주인공들의 갈등과 고뇌가 나름의 서사 양식을 통해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들이라 읽은 이에 따라 그 가치 매김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필

심사는 먼저 세 심사위원이 사전에 총 17개국 113명이 응모한 277편을 나누어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26명의 29편이었다.

구성과 문장, 감성에 있어서의 절제와 압축은 힘겨운 글쓰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문학적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돌아보는 응시력의 산물이기도 할 것이다.

- 심사평 중에서

